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5-23-2005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 방안: 미주 중동북부 한인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Sung Kwon Lee 이성권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성권,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 방안: 미주 중동북부 한인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UDY OF THERAPEUTIC PREACHING FOR HEALING THE WOUNDED MIN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ID-NORTHEAST KOREAN CHURCH IN AMERICA

written by

SUNG KWON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Chi Young Kay

_____
Yea Sun Kim

_____
Seyoon Kim

May 23, 2005

A STUDY OF THERAPEUTIC PREACHING FOR HEALING THE WOUNDED MIN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ID-NORTHEAST TO KOREAN CHURCH AMERIC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KWON LEE

MAY 2005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 방안

- 미주 중동북부 한인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계 지 영

이 성 권

2005년 3월

Abstract

A Study of the Therapeutic Preaching for Healing the Wounded Mind:
With Special Reference to Mid-Northeast Korean Church in America

Sung Kwon Lee
Doctor of Ministry
200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ny church members that are immigrants to this country have many wounds in their minds. They have left their homelands and come here with hopes and new dreams of their future ahead. Yet, different culture and language have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adapt to new surroundings. To theses immigrants, the church was their only source of comfort to their hardships.

Therefore,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not only to save them, but it should also be a place to heal their wounds and to help them become a mature christians. There are variety of ways of ministry to heal their wounds. Most of the korean immigrated christians consider sermon as the most integral part of a church worship.

The purpose of this theses is to study and to survey the different methods of resenting sermons in order to heal the wounded minds. If the wounds are not healed, there will be no life-changing experiences through weekly worship. Thus, in order to find out the wounds and the sermons they desire to listen, I have done a survey among the Mid-Northeast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By understanding their pains and their history of church life since immigration, I present a necessity of a healing ministry through A Bibl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I have focused on the therapeutic preaching, since sermon is very influential to everyone. I have researched specific principles such as function, preparation, write-out, and communication of the sermon.

Finally, I present this theses to suggest an effective way of healing ministry for everyone that preaches for the wounded immigrant christians.

Theological Mentor : Chi Young Kay, Ph.D.
Jung Suck Rhee, Th. D.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한 종이 이렇게 좋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베네주엘라 선교사로 있을 때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십여년 전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상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설교 세계를 새롭게 보도록 이끌어 주신 계지영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 신학의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신 김세윤 박사님, 가정과 상담, 치유에 귀한 가르침을 주신 엄예선 박사님, 미국 이민사회의 실상과 목회 방향을 열어 주신 유의영 박사님, 논문을 잘 쓰도록 격려해주신 이정석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 연구에 기초가 된 설문조사에 정성껏 관심을 갖고 수고해 주신 미주 중동북부 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나오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신 베네주엘라의 김명옥 집사님과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 제직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목회하시면서 목회에 본이 되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다가 작년에 주님 품에 안기신 아버님, 고 이태식 원로 목사님과 8남매를 기도로 잘 키워 주셔서 아들 넷, 모두와 딸 하나를 목회자로 바치신 어머님, 고화임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부탁할 때 언제나 협력해 준 우리 8남매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 년동안 언제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목회에 동역하면서 논문을 잘 쓰도록 격려해 준 사랑하는 아내 강경숙 사모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예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딸, 리브가와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될 아들, 요셉의 도움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05년 3월

이 성 권

목 차

Abstract ····· ii
감사의 말씀 ····· iv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 6

제 1 장 미주 한인 교인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7
제 1 절 한인 이민의 역사 ····· 7
1. 1903년 이전의 미주 한인(1882-1903) ····· 7
2. 1903년 이후의 초기 이민(1903-1945) ····· 8
3. 제 2의 이민 물결(1945-1965) ····· 8
4. 제 3의 이민 물결(1965-현재) ····· 9
제 2 절 한인 이민 교회의 역사 ····· 9
제 3 절 한인 교인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12
1. 설문조사 ····· 12
2.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 12
가. 청중의 설교 선호도에 대한 영역 ····· 12
나. 청중의 마음의 상처 원인에 대한 영역 ····· 13
다. 청중의 마음의 상처 증상에 대한 영역 ····· 14
라. 청중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결과에 대한 영역 ····· 15
마. 청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증상에 대한 영역 ····· 15
바. 청중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상 및 장소에 대한 영역 ····· 17
사. 청중의 마음의 상처 해결 방법에 대한 영역 ····· 18

아. 청중의 교회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효과 영역 ····· 19
자.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은 청중의 요청 영역 ····· 19
3. 한인 교인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상처와 증상들 ····· 21
가. 상처들 ····· 21
나. 증상들 ····· 21

제 2 장 마음의 상처에 대한 신학적 이해 ····· 22
제 1 절 마음에 관한 일반적, 성서적 이해 ····· 22
1. 마음의 일반적 이해 ····· 22
가. 마음의 의미 ····· 22
나 마음과 감정 ····· 24
다 마음과 상처 ····· 25
2. 마음의 성서적 이해 ····· 26
가. 구약성서에서의 마음 ····· 27
나. 신약성서에서의 마음 ····· 28
제 2 절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이해 ····· 29
1. 마음의 상처의 개념 ····· 29
2. 마음의 상처의 원인 ····· 29
가. 원죄와 자범죄 ····· 30
나. 환경 ····· 30
다. 거절감 ····· 31
라. 굶주림 ····· 32
3. 마음의 상처의 증상 ····· 33
가. 분노(Anger) ····· 33
나. 우울증(Depressin) ····· 34
다. 두려움(Fear) ····· 34
라. 열등감(Inferioity Complex) ····· 35
마.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 ····· 36

바. 죄책감(Guilt) ····· 36
사. 수치심(Shame) ····· 37
아. 성인아이(Adult Child) ····· 37
4. 마음의 상처의 발달과정 ····· 38
가. 첫 번째 단계; 상한 마음 ····· 38
나. 두 번째 단계; 포로된 마음 ····· 39
다. 세 번째 단계; 갇힌 마음 ····· 39

제 3 장 치유목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 40
제 1 절 치유에 대한 성서적 이해 ····· 40
1. 치유의 어원적 고찰 ····· 40
가. 히브리어 ····· 40
나. 헬라어 ····· 41
2. 치유의 의미 ····· 42
3. 치유의 성서적 배경 ····· 43
가. 구약성서에 나타난 치유 ····· 43
(1) 예방적 측면 ····· 43
(2) 치유적 측면 ····· 44
나. 신약성서에 나타난 치유 ····· 45
(1) 예수님의 치유 사역 ····· 45
(2) 사도들의 치유 사역 ····· 46
4. 치유의 목적 ····· 47
제 2 절 치유 목회에 대한 이해 ····· 47
1. 목회의 정의 ····· 48
2. 목회의 치유적 기능 ····· 48
3. 치유목회의 중요성 ····· 49
가.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 ····· 49
나. 내적 치유의 필요성 ····· 49

다. 치유목회와 교회성장 ····· 50
제 3 절 치유목회의 방법들 ····· 51
1. 예배를 통한 치유 ····· 51
가. 설교를 통한 치유 ····· 52
나. 성례전을 통한 치유 ····· 53
(1) 세(침)례를 통한 치유 ····· 53
(2) 성찬식을 통한 치유 ····· 54
다. 찬양을 통한 치유 ····· 55
라. 기도를 통한 치유 ····· 56
마. 회개(고백)을 통한 치유 ····· 56
2. 소그룹 모임을 통한 치유 ····· 57
가. 성경공부 모임을 통한 치유 ····· 57
나. QT 나눔을 통한 치유 ····· 58
3. 목회 상담을 통한 치유 ····· 59
가. 구원상담을 통한 치유 ····· 60
나. 내적 치유 상담을 통한 치유 ····· 60
4. 팀 사역을 통한 치유 ····· 61

제 4 장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에 대한 이해 ····· 62
제 1 절 설교에 대한 이해 ····· 62
1. 설교의 본질 ····· 62
가. 설교에 대한 용어 ····· 62
나. 설교의 정의들 ····· 63
2. 설교의 목적 ····· 63
가. 복음선포적 설교(Kerygmatic Preaching) ····· 64
나. 교리적 설교(Didactic Preaching) ····· 65
다. 치유적 설교(Therapeutic Preaching) ····· 65
라. 사회적-예언자적 설교(Social-Prophetic Preaching) ····· 66

제 2 절 치유적 설교에 대한 이해 ····· 66
1. 치유적 설교의 정의 ····· 67
2. 치유적 설교의 성경적 배경 ····· 68
가. 구약성서에서의 치유적 설교 ····· 68
나. 신약성서에서의 치유적 설교 ····· 69
3. 치유적 설교의 목적 ····· 70
4. 치유적 설교의 기본 원리 ····· 70
가. 은혜의 원리 ····· 70
나. 사랑의 원리 ····· 71
다. 용서의 원리 ····· 72
라. 성령의 원리 ····· 73
마. 동질감의 원리 ····· 74
제 3 절 치유적 설교의 역사 ····· 75
제 4 절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과 기능 ····· 76
1.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 ····· 76
2. 치유적 설교의 기능 ····· 77
가. 치유적 기능 ····· 78
나. 예방적 기능 ····· 78
다. 재활적 기능 ····· 78
3. 치유적 설교의 효과 ····· 79
4. 치유적 설교의 문제점 ····· 80

제 5 장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의 작성 ····· 81
제 1 절 치유적 설교의 방법 ····· 81
1. 린(Linn)의 치유설교 방법 ····· 81
2. 헤슨(Hesson)의 치유설교 방법 ····· 82
3. 포스딕(Fosdick)의 치유설교 방법 ····· 82
제 2 절 치유적 설교의 주제 선정의 동기와 원리 ····· 83

1. 치유적 설교 주제선정의 다양한 동기들 ····· 84
2. 치유적 설교 주제선정의 원리들 ····· 84
3. 치유적 설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 84
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들 ····· 85
나. 가정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들 ····· 85
다. 사회·관계적 측면에서의 주제들 ····· 86
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들 ····· 86
제 3 절 치유적 설교의 요소와 작성 ····· 86
1. 치유적 설교의 요소 ····· 86
가. 청중의 문제 확인 ····· 87
나. 문제의 탐색 ····· 87
다. 진단적 해석 ····· 88
라. 목회자의 개입 ····· 88
2. 치유적 설교의 작성 ····· 89
가. 치유적 설교 준비 단계 ····· 89
(1) 본문 선택 ····· 89
(2) 중심 내용 파악 ····· 89
(3) 본문 연구 및 자료 수집 ····· 90
(4) 설교제목 결정 ····· 92
나. 치유적 설교의 작성 단계 ····· 92
(1) 서론 ····· 92
(2) 원리제시 ····· 94
(3) 결론 ····· 94
다. 치유적 설교의 예화 ····· 95
라. 치유적 설교의 적용 ····· 96
제 4 절 치유적 설교의 주의할 점 ····· 97
제 5 절 치유적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 99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99

2.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 99
3.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 100
가. 공감의 방법 ····· 100
나. 비언어적 방법 ····· 101
다. 직언의 방법 ····· 102

제 6 장 마음의 상처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방안 ····· 103
제 1 절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를 위한 설교계획 ····· 103
1. 치유적 설교의 목표 설정 ····· 103
2. 치유적 설교의 내용 선정 ····· 104
3. 치유적 설교의 분류 및 계획 ····· 105
제 2 절 치유 기능에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 106
1.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치유설교 ····· 106
가. 복음치유설교의 필요성 ····· 106
나. 복음치유설교의 의미와 방법 ····· 107
2.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상한감정 치유설교 ····· 108
가. 상한감정 치유설교의 필요성 ····· 108
나. 상한감정 치유설교의 의미와 방법 ····· 109
제 3 절 치유와 예방 기능에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 110
1.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설교 ····· 110
가. 관계치유설교의 필요성 ····· 110
나. 관계치유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 111
2.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 113
가. 말의 상처 치유설교의 필요성 ····· 113
나. 말의 상처 치유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 114
3.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 ····· 115
가. 상담설교의 필요성 ····· 115
나. 상담설교의 의미와 방법 ····· 116

제 4 절 치유와 재활 기능에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 117
1.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아상 회복설교 ····· 117
가. 자아상 회복설교의 필요성 ····· 117
나. 자아상 회복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 117
2.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 118
가. 좌절된 꿈 치유설교의 필요성 ····· 118
나. 좌절된 꿈 치유설교의 의미 ····· 119
3.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 ····· 120
가. 비전설교의 필요성 ····· 120
나. 비전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 120
제 5 절 치유적 설교의 치유효과 증대를 위한 방법들 ····· 122
1. 유사한 치유사례 인용방법 ····· 122
2. 고백적(confessional) 간증방법 ····· 122
3. 치유관련 비디오 및 영상 클립(clip) 상영방법 ····· 123
4. 스킷 및 드라마 공연방법 ····· 124

결 론 ····· 125
제 1 절 논문 요약 ····· 125
제 2 절 연구를 통한 제언 ····· 127

부록 ····· 129
치유적 설교의 예 ····· 129
1. 좌절된 꿈의 치유설교 ····· 129
2. 상한감정 치유설교 ····· 133
3. 관계치유설교 ····· 137

참고문헌 ····· 141
Vita ····· 150

표 목 차

<표 1> 가장 듣고 싶은 설교 ····· 13
<표 2> 이럴 때 상처받는다 ····· 14
<표 3> 상처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 15
<표 4>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다 ····· 15
<표 5>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와 증상 ····· 16
<표 6>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과 장소 ····· 18
<표 7> 마음의 상처 해결 방법 ····· 18
<표 8> 교회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효과 ····· 19
<표 9> 어떤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 20
<표 10> 얼마나 자주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 20
<표 11>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의 분류 ····· 105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이민교회에는 아픔과 고통이 많다. 교인들에게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고국을 떠난다는 것이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되지만 동시에 정든 사람과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상처를 준다. 미국에서의 삶은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고, 동시에 인종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지만, 미국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데다 주류사회에 끼어 들지도 못하고 좁은 한인사회에서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애쓰다보니 서로 상처를 입힐 때가 많다. 교회가 한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유일한 곳이기에 울분과 분노가 쉽게 터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리가 많다.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상처가 많으면 인격과 관계에 장애가 온다. 가정이나 교회에도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매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답답할 때가 많다. 성도들이 와서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고 듣는 시간은 설교시간이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설교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교회 성장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교회생활이 달라지고, 사회생활이 달라지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데는 설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교인들에게도 원인이 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들이 있으면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설교가 현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해보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을 본

다. 그 동안 내적 치유에 대한 심리학적, 성경적인 접근이 많이 있었으나, 본 논문은 잘 들리는 설교, 청중에게 다가가는 설교, 감동을 주어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를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설교는 최대의 특권이며, 동시에 최대의 짐이다.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최상의 기쁨이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에게 1년 내내, 5년, 10년, 많게는 20년 이상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적절하게 적용시켜야하는 책임이 있다. 설교자는 강단 위에서는 말로, 강단 아래서는 삶으로 설교해야 한다. 그래야 설교는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준다. 목사는 교회의 최고 리더쉽이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John Maxwell) 목사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만큼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없다. 목회자는 한정된 자기 교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설교이다. 교인들의 의식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장 깊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는 설교를 1년, 10년, 20년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겠는가?

설교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보듯,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해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도 해야 한다. 온전한 삶, 온전한 인격을 위해 교훈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청중들의 삶에서 변화가 안 보일 때 설교자의 고통은 크다. 설교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상투적인 인사에 속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인사가 아니라 변화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실, 온전한 인격,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 기독교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변화를 기대하려면, 먼저는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 들리는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고, 들리지 않는 설교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 정보문화가 발달하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점차 듣는데 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들리는 설교를 해야 영향력이 있다. 상처가 치유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교회는 상처받은 자가 치유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방

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설교를 통한 치유를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받은 상처, 내 스스로 받은 상처, 남에게 준 상처 등 무수히 많다. 우리는 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다. 그 상처들을 사람이 치유할 수 없다. 사람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는 분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나 현재에도 받은 상처로 고통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상처 가진 미혼자가 결혼하면 그 상처가 반복되어 상처를 준다. 그러므로 상처는 빨리 치유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처들의 치유는 목회와 복음 사역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지 알아야 한다. 상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질병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에 의한 치유가 일어나야 하며, 목회의 중점은 바로 이 부분에 모아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설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정든 고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민성도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되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인 배경은 목회학적인 측면과 성경적 및 신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 치유설교의 필연성을 찾고,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그에 맞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방안을 제시함으로 설교자들의 설교 실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유와 관련된 서적과 설교와 관련된 서적 및 출판된 간행물, 신문, 잡지, 세미나, 인터넷 정보 등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처와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설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총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 1 장에서는 미주 이민교인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약 2백년의 미주 한인의 이민역사를 통해서 초기 이민부터서 아픔과 상처가 많았음을 보고, 그들의 유일한 위로와 치유기관으로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를 살펴존다. 그 가운데서 미중동북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처와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 그런 다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분석이 있다. 청중들의 종교적 배경, 설교에 대한 지각도, 설교에 대한 청취도, 그리고 상처의 원인, 증상, 결과, 상처받은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상처를 알고자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청중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알아야 치유적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에서는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일반적이고,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이해를 다룬다.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먼저 마음에 대한 의미와 형성 및 작용, 마음과 감정, 마음과 상처에 대해서 다룬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 그에 맞는 설교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의 성서적 이해를 다루므로 성경에서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다룸으로써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마음을 이해해야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의 상처에 대한 개념과 그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상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상처를 입은 마음과 상처의 과정을 알아야 치유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에서는 치유목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룬다. 먼저 치유목회를 하려면 먼저 치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치유의 어원적 고찰과 그 의미, 또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치유의 성서적 배경, 그리고 치유목회의 중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설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치유 목회적 방법들을 알아본다. 치유목회의 효율성을 위해서이다.

제 4 장에서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먼저 설교에 대한 본질과 목적, 치유적 설교의 정의와 성경적인 배경, 치유적 설교의 목적과 치유적 설교의 기본 원리, 역사, 필요성과 기능, 그리고 효과와 문제점까지 기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치유적 설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치유적 설교를 강조면서 청중들에게 다양한 설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제 5 장에서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의 작성에 대한 실제를 다룬다. 현대의 치유적 설교의 선구자들의 방법들을 먼저 제시하고, 치유적 설교의 주제 선정의 다양한 동기들과 주제 선정의 원리들 그리고 다루어야할 주제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요소들과 준비단계, 작성단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설교의 창이라 할 수 있는 예화 및 적용부분도 빠트리지 않는다. 아무리 잘 준비가 되었다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 효과적인 설교가 될 수 없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마음의 상처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방안으로 먼저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치유적 설교의 목표설정, 내용선정, 설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살펴본다.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치유적 설교의 기능에 따른 구체적인 설교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서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설교에는 복음치유설교, 상한감정치유설교, 인간관계 치유설교, 말의 상처 치유설교, 자아상 회복설교, 좌절된 꿈의 치유설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를 효과적인 치유설교로 제시하려고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하고, 치유적 설교 방안 연구를 마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제언을 함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은 청중들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치유적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은 치유받아 변화될 수 있으므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고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첫째, 치유적 설교가 갖는 문제점은 회중들의 현실적인 상처나 문제들이 한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가 되겠는가에 대한 것이다. 상담이나 일반 치유프로그램도 몇 주 내지, 몇 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설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치유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상담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설교는 1주일에 한번만 주일예배를 참석해도 설교을 통해서 치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그 결과가 청중들에게 곧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유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청중들이 지닌 상처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과 그 상처의 치유가 건강한 삶의 비결이 된다는 인식과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의 절박성과 치유과정에 관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중들의 설교 피드백(feed-back)을 통계화 하면 좋은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못했다. 교인들의 상처만 파악했지 일정기간 치유설교를 행한 후에 그 설교에 따른 청중들의 변화여부, 변화의 과정, 또는 치유설교가 일반 설교에 비해 청중들이 지니고 있던 문제나 상처들을 해결하며 치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의 청중들의 피드백을 통계화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이 논문을 통해서 설교자들에게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은 치유적 설교 개발을 연구하도록 도전을 준다면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모든 설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교회의 상황과 필요, 청중들의 특성과 구성분포, 설교자의 목회철학 및 설교철학에 맞게 새롭게 연구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리라 확신한다.

제 I 장

미주 한인 교인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주 한인 이민교인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와 이민교회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 교인들의 상처와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치유적 설교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인 이민의 역사

미국에 한인들이 정착한 역사는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03년 이전의 미주 한인(1882-1903), 1903년 이후의 초기 이민(1903-1945), 제 2의 이민물결(1945-1965), 제 3의 이민물결(1965-현재)로 나눈다.[1)]

1. 1903년 이전의 미주 한인(1882-1903)

한인으로서 제일 처음 미국에 온 사람은 민영익을 대표로 구성된 구한말 외교사절단 8명이다. 이들은 다음해 5월에 귀국한다. 이 가운데 서광범은 한국에 돌아간 후,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실패하자 정치망명객으로 서재필, 박영효와 함께 1885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시민이 되었다. 서광범은 미국시민이 되어 한국의 관리를 지낸 최초의 재미 한인교포이다. 한국은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공관을 설립했다. 1902년 말에 50명 미만의 한인 유학생, 노동자, 상인들이 미국에 있었다고 말한다.[2)]

---

1) 유의영, *한국 이민 교회사* (D.Min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년 봄), 1-5. 강의에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2) 유의영, *미국 속의 한인사회*, 12-13. 최봉윤 교수가 1979년에 발행한 책 '미국 속의 한인들'(Korean in American)에서 말하고 있다.

2. 1903년 이후의 초기 이민(1903-1945)

한인들이 최초로 미국에 집단 이민을 온 것은 1903년과 1905년 사이이다. 1903년부터 190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하와이로 이민 온 7,800여명의 한인 중 2,000여명은 미 본토로 재 이주했고, 1,000여명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별히 1910년부터 하와이 이민 제 2의 물결이라 할 수 있는 "사진신부(Brides Picture)"들이 들어오면서 하와이 이민사회는 번성기를 맞게 된다.[3] 초기 노동 이민자의 대다수는 미혼 청년들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는 동양 여자들이 드물었고, 백인과 동양인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4], 청년들이 그들의 사진을 한국에 보내 선을 보고 여자를 구해오는 방법으로 결혼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온 사진부인들의 숫자가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1,066 명이나 되었다.[5] 그러나 사진 부인을 데려올 돈이 없는 수많은 총각 노동자들은 일생을 독신으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외국인 부동산 구입 금지법 때문에 집도 사지 못하고 떠돌이 농장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했다. 1924년 미국의 동양인 이민금지법 제정으로 이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0년 이전에 모두 9백명 가량의 한인 유학생들이 정치적 망명이나 수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이중 일부는 귀국했으나 대부분은 미국에 남아 재미 한인 사회의 지도력을 형성했다. 미국 센서스는 재미 한인의 인구를 1930년에는 8,332명, 1940년에는 8,568명으로 파악했다. 당시 약 1만 명의 한인 인구 중 70%는 하와이에, 30%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다.[6]

3. 제 2의 이민 물결(1945-1965)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부터 한국 동란이 시작된 1950년 사이에 약 100명의 유학생이 왔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세계대전 후 최초의 미국 이민자들이 되었다.[7] 1950년부터 1965년 새 이민법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제 2의 이민 물결이라 부른다. 이 기간 동안에 약 6천 5백명에 달하는 전쟁부인이 왔다. 미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만

---

3) "美, 한인 땀과 꿈의 100년, 희망 실은 게일릭호 첫 입항" *한국일보*, 2003년 1월 1일자, 8.
4)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 교회", http://user.chollian.net/~ikch0102/y-2-13.htm. 하와이는 1898년 미합중국에 병합되는데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은 그 뒤에 이루어졌다.
5) "전국 한인 소식" *중앙일보* 미주판, 2001년 11월 1일자.
6) 유의영, *미국 속의 한인 사회*, 13-14
7) Ibid., 15.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들이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왔다고 한다. 그 뒤 미주 한인의 약 절반이 전쟁부인과 연관되어 미국에 왔다. 또 6천 3백 명의 입양아들이 왔다. 이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지금까지 모두 1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미 이민 통계에 나타난다.[8] 또 6천여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왔다. 이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들이 세운 유학생회, 유학생 교회가 이 시기에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갔다.[9]

4. 제 3의 이민 물결(1965-현재)

제 3의 이민물결이 시작된 1965년 당시 미국에는 모두 3만 명 가량의 한인이 살고 있었다. 케네디(John F. Kennedy)가 "새 이민 법령(New Immigration Act)"을 발효시킨 이후 한국 이민은 급격히 증가하여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취업비자로 와 있던 의사, 과학자, 간호사들이 영주권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부모와 형제들을 초청하여 데려 왔다.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모두 2만 7천명의 한인이 이민을 왔고, 미주 한인의 인구는 1970년에 7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계속된 이민으로 미주 한인의 인구는 1980년에 35만, 1990년에 80만, 그리고 1998년에 120만이 되었다.[10]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이민 감소[11]가 나타났고, IMF사태 이후의 이민 증가 등의 특색이 두드러졌다.[12] 이민자의 유형도 생계형 이민보다는 전문직들의 이민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엄청난 사교육비, 교통체증과 공해 등을 피해 더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이민 온 경우가 많아졌다.[13]

제 2 절 한인 이민 교회의 역사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이다. '이민교회'라는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고서 이민 사회의 지난 역사와 현재,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기란 힘든 일이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교회는 종교적 기능은 물론 사회

---

8) 참고, *한국일보*, 2003년 4월 28일자, 19. 2002년 말 현재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유의영, 강의안, 4-5.
10) Ibid.,, 6.
11) Ibid. 1992년 4.29폭동과 94년 1월 노스리지 지진으로 한국으로의 역이민자가 급증했다.
12) 유의영, "21세기 한인교회의 전망," 6.
13) *한국일보*, 2003년 1월 15일자, 9.

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사교 공동체였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입국신고를 마친 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교회이다.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민자의 70% 이상이 크리스천이다. 초기 이민자들에게 한인 교회는 동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들은 타향살이의 설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다.[14] 이런 모습은 1903년 첫 이민선 게일릭(S. S. Gaelic)호에 몸을 실은 102명의 이민자 가운데 50여명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한인 교회의 뿌리 깊은 역사를 엿볼 수 있다.[15] 그 교회 교인 중에서 50여 명이 이민자로 자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첫 이민자중에 교인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다.[16] 이들은 하와이의 여러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하면서 농장별로 기도회 모임을 가졌고, 1903년 7월 4일 호노룰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와이의 한인 교회가 시작되었다.[17]

한편, 미국 본토에서는 1904년 3월 11일 로스앤젤레스의 남가주 대학(USC) 부근에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온 플로렌스 셔만 부인 (Mrs. Florence Sherman)이 한국 유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모임이 후에 한인연합 감리교회로 발전되었다. 미주 한인들의 근거지가 호놀루루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스 등 캘리포니아로 확산되면서 미 본토에 한인교회들이 증가되었다.[18] 이렇게 하여 1913년까지는 하와이에 모두 31곳의 한인교회가 세워졌고, 미 본토에는 7개의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1929년까지 하와이와 미 본토에 농장 예배처를 포함하여 모두 39개의 한인교회와 약 3천명 가량의 교인이 있었다. 이 숫자는 당시 미주 한인 총 숫자의 절반 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던 초기 한인교회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1950년까지는 하와이와 미 본토에 모두 9개의 한인 교회만 남게 되었다. 이 초기 이민 사회의 교회들은 1970년대까지 계속 되었으나 초기 이민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녀들도 대부분 한인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해서 초

---

14) 한국일보, 2003년 2월 19일자, 10.
15) Ibid.
16) 김대균 외, *미국 장로교 한인 교회사*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9), 37-38.
17) 참고, *한국일보*, 2003년 2월 19일자, 10.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한인교회는 1903년 11월 10일 창립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였다.
18) 참고, *한국일보*, 2003년 2월 19일자, 10. 1905년에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가 설립됐고, 1906년에 제퍼슨 장로교회로나성는 나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 1914년에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1919년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1921년에 뉴욕 감리교회 순으로 창립됐다.

기 이민교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한국동란 이후 미국에 온 유학생들과 전쟁부인, 그리고 1965년 이후에 온 새 이민자들에 의해서 한인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다.[19]

드류(Drew) 대학교 김일수 교수는, 미국 내 한인교회(신교)의 총수는 1970년에 20개 미만이었는데, 1983년에는 그 75배인 1,500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한인 교인수는 1970년에 약 7만이었고, 1980년에 약 70만으로 추산되어 1985년에는 교회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를 넘었다. 재미 한인 300명당 한인교회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한인교회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첫째, 초기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민자들의 약 반수 이상이 한국에서부터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민와서 교인화(약 40%)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심리적인 이유와 이민교회의 기능 때문이다. 이 이유들은 힘든 이민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된 것이다.[20]

한인 이민역사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내 한인 수는 130만~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2000년 미국 연방 인구 통계국 한국계 미국인은 약 107만 명), 이 중 70%는 기독교인이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인 중 80%가 미국 전역의 3,000여 개의 한인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출석하고 있다. 1985년 1,000개 미만이었던 한인교회가 10년간 약 2,000개가 증가해 1994년에는 3,000개를 넘는 급성장을 보였으나, 1988년을 고비로 이민자수의 감소와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증가율이 떨어져 정체상태에 있다가 2,000년에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부터 다시 교회수가 증가했다. 교단별로는 장로교 44%, 침례교 15%, 감리교 12%, 순복음교 8%, 성결교 7%로 나타났다.[21]

북미주 한인교회는 2003년 12월 말 현재 3,528개 교회로 집계됐다.[22] 한인 이민의 역사와 이민교회의 역사를 고찰한바와 같이, 교회는 한인 이민 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왔고,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안식처가 되어 왔다.

---

19) 유의영, "21세기 한인교회의 전망", 2-3.
20) 허원무, "한국 이민과 종교 참여," *미국 속의 한인사회* (뉴욕: 뉴욕 한인회, 1986), 162-164. 교회를 참석하는 이유를 종교적 이유(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인의무이기 때문에)와 심리적 이유(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친구, 친척 기타 아는 사람 만나기 위해, 목사님이나 다른 교인들이 고맙게 해 주어서)라고 말했다.
21) 이지희, "미주 한인교회 현황과 역사," *크리스챤 투데이*, 2003년 1월 21일자, 1.
22) 서인실, "북미주 한인교회 3,528개," *크리스챤 투데이*, 2004년 1월 7일자, 1. 한인교회는 124개국에 1,067개가 있다. 미국은 3,233개 한인교회가 있다.

제 3 절 한인 교인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여기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며, 어떤 설교를 듣고자 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청중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알아야 가슴에 와 닿는 설교, 들리는 설교, 치유적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중들의 설교의 선호도, 마음의 상처 원인과 증상, 청중의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와 상처받은 대상과 장소, 상처 해결 방법 등을 조사했다. 이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1. 설문조사

본 논문의 설문대상자는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교회당 10명을 기준으로 했다. 미국 중동북부 지역에 속한 4개 주(Indiana, Kentucky, Ohio, Michigan)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20개 교회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12개 교회에서 118명의 응답이 와서 59%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내었다.

2.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가. 청중의 설교 선호도에 대한 영역

먼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현재 어떤 설교를 가장 듣고 싶은가'를 조사했다. <표 1>에 의하면, 청중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73.6퍼센트를 차지한 가정에 관한 설교였다. 이민 가정에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리설교가 71.9퍼센트, 복음설교가 70.3퍼센트, 고난설교가 65.2퍼센트, 삶의 문제설교가 65.1퍼센트, 치유설교가 61.1퍼센트를 차지했다. 교리나 복음설교를 제외하면, 모두 다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함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치는 30.4퍼센트를 차지한 사회문제 설교로 이민생활에 지치다보니 세상의 흐름에는 관심이 적음을 나타내 준다. 윤리설교는 49.9퍼센트로 교훈적인 설교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은 내세에 대한 설교 선호도가 51.6퍼센트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신앙생활설교는 56.6퍼센를 차지하여 관심도가 낮았고, 삶의 문제해결에 관심이 컸다.

<표 1> 질문 1 - 질문 10. 가장 듣고 싶은 설교

No.	구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1	치유설교		6 (5.0%)	39 (33.0%)	38 (32.2%)	33 (27.9%)	2 (1.6%)	
2	구원(복음)설교	1 (0.8%)		32 (27.1%)	49 (41.5%)	34 (28.8%)	2 (1.6%)	
3	인생의 고난설교		7 (5.9%)	30 (25.4%)	45 (38.1%)	32 (27.1%)	4 (3.3%)	
4	교리설교	1 (0.8%)	7 (5.9%)	23 (19.4%)	48 (40.6%)	37 (31.3%)	2 (1.6%)	
5	내세설교	1 (0.8%)	11 (9.3%)	42 (35.5%)	41 (34.7%)	20 (16.9%)	3 (2.5%)	118 (100%)
6	삶의 문제설교	1 (0.8%)	4 (3.3%)	32 (27.1%)	52 (44.0%)	25 (21.1%)	4 (3.3%)	
7	가정생활 설교		4 (3.3%)	21 (17.7%)	56 (47.4%)	31 (26.2%)	6 (5.0%)	
8	신앙생활 설교		6 (5.0%)	41 (34.7%)	46 (38.9%)	21 (17.7%)	4 (3.3%)	
9	윤리설교	3 (2.5%)	8 (6.7%)	41 (34.7%)	42 (35.5%)	17 (14.4%)	7 (5.9%)	
10	사회문제 설교	6 (5.0%)	16 (13.5%)	53 (44.9%)	27 (22.8%)	9 (7.6%)	7 (5.9%)	

나. 청중의 마음의 상처 원인에 대한 영역

설교를 하려면 먼저 청중들이 가진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치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표 2>에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82.1퍼센트, 실수할 때 79.6퍼센트로 죄와 실수로 인한 자신의 죄책이나 자책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의 원인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무시당할 때 72.8퍼센트, 거절당할 때 68.5퍼센트, 놀림 당할 때 66.8퍼센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48.2퍼센트,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15.1퍼센트로 주로 사람으로부터나 사람과 관계되어 상처가 발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36.4퍼센트,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46.5퍼센트로 높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24.1퍼센트나 되어 4명중 1명이 큰 상처로 힘들어했다.

<표 2> 질문 11 - 질문 20. 이럴 때 상처받는다

No.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11	죄를 지을 때		4 (3.3%)	13 (11.0%)	71 (60.1%)	26 (22.0%)	4 (3.3%)	
12	실수할 때		7 (5.9%)	15 (12.7%)	62 (52.5%)	32 (27.1%)	2 (1.6%)	
13	무시당할 때	1 (0.8%)	9 (7.6%)	19 (16.1%)	52 (44.0%)	34 (28.8%)	3 (2.5%)	
14	거절당할 때	1 (0.8%)	7 (5.9%)	25 (21.1%)	50 (42.3%)	31 (26.2%)	4 (3.3%)	
15	놀림 당할 때	7 (5.9%)	7 (5.9%)	22 (18.6%)	48 (40.6%)	31 (26.2%)	3 (2.5%)	118 (100%)
16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5 (4.2%))	20 (16.9%)	31 (26.2%)	39 (33.0%)	18 (15.2%)	5 (4.2%)	
17	나에게 무관심할 때	5 (4.2%)	28 (23.7%)	39 (33.0%)	33 (27.9%)	9 (7.6%)	4 (3.3%)	
18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21 (17.7%)	42 (35.5%)	33 (27.9%)	14 (11.8%)	4 (3.3%)	4 (3.3%)	
19	내 성격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는다	8 (6.7%)	35 (29.6%)	32 (27.1%)	26 (22.0%)	17 (14.4%)		
20	주로 말에 상처를 받는다	3 (2.5%)	19 (16.1%)	36 (30.5%)	34 (28.8%)	21 (17.7%)	5 (4.2%)	

다. 청중의 마음의 상처 증상에 대한 영역

상처의 원인뿐만 아니라 상처의 증상을 알아야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치유적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표 3>에 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면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가 82.1퍼센트로 누구나 상처받으면 말로 분풀이를 하던지, 남에게 하소연을 하던지 했다. 그리고 상처 준 자가 무조건 싫어진다 68.5퍼센트, 화 가나서 잠을 못 잔다 48.2퍼센트,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 38.1퍼센트로 일단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것이 삶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상처를 준 자와 대화를 단절한다 35.5 퍼센트, 상처 준 자를 말로 공격한다가 15.1퍼센트로 나타났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처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이다.

<표 3> 질문 21 - 질문 27. 상처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No.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21	받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말한다		4 (3.3%)	13 (11.0%)	71 (60.1%)	26 (22.0%)	4 (3.3%)	118 (100%)
22	상처를 준 자가 무조건 싫어진다	1 (0.8%)	7 (5.9%)	25 (21.1%)	50 (42.3%)	31 (26.2%)	4 (3.3%)	
23	화가 나서 잠을 못 잔다	5 (4.2%)	20 (16.9%)	31 (26.2%)	39 (33.0%)	18 (15.2%)	5 (4.2%)	
25	상처를 준 자와 대화를 단절한다	5 (4.2%)	28 (23.7%)	39 (33.0%)	33 (27.9%)	9 (7.6%)	4 (3.3%)	
26	상처를 준 자를 말로 공격한다	21 (17.7%)	42 (35.5%)	33 (27.9%)	14 (11.8%)	4 (3.3%)	4 (3.3%)	
27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	10 (8.4%)	26 (22.0%)	36 (30.5%)	38 (32.2%)	7 (5.9%)		

라. 청중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결과에 대한 영역

<표 4> 질문 28 - 질문 36.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다.

No.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28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	14 (11.8%)	33 (27.9%)	20 (16.9%)	40 (33.8%)	8 (6.7%)	3 (2.5%)	118 (100%)
29	교회에서 당(편)을 만들겠다.	25 (21.1%)	51 (43.2%)	14 (11.8%)	22 (18.6%)	3 (2.5%)	3 (2.5%)	
30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겠다.	27 (22.8%)	39 (33.0%)	17 (14.4%)	28 (23.7%)	3 (2.5%)	4 (3.3%)	
31	상처를 준 자와 싸우겠다.	19 (16.1%)	58 (49.1%)	25 (21.1%)	11 (9.3%)	1 (0.8%)	4 (3.3%)	
32	상처를 준 자와 만나지 않겠다.	11 (9.3%)	36 (30.5%)	19 (16.1%)	40 (33.8%)	9 (7.6%)	3 (2.5%)	
33	말을 만들어 상처준 자를 공격하겠다	19 (16.1%)	53 (44.9%)	25 (21.1%)	13 (11.0%)	3 (2.5%)	5 (4.2%)	
34	기도하면서 치유되기를 기다리겠다	2 (1.6%)	13 (11.0%)	34 (28.8%)	42 (35.5%)	25 (21.1%)	2 (1.6%)	
35	목사, 사모, 신앙인과 상담하겠다.	3 (2.5%)	23 (19.4%)	37 (31.3%)	41 (34.7%)	12 (10.1%)	2 (1.6%)	
36	속으로 삭이겠다.	1 (0.8%)	13 (11.0%)	40 (33.8%)	46 (38.9%)	18 (15.2%)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면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가 <표 4>에 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안겠다가 40.5퍼센트를 차지하여 상처의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말해 준다. 교회에서 당(편)을 만들겠다가 21.1퍼센트로 이민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많다.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가 26.2퍼센트이기 때문에 유동교인들이 많다. 상처 준 자와 만나지 않겠다 41.4퍼센트, 말을 만들어 상처 준 자를 공격하겠다가 12.5퍼센트, 싸우겠다가 10.1퍼센트로 상처는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치유를 기다리겠다 56.6퍼센트, 목사나 사모, 신앙인과 상담하겠다 44.8퍼센트, 속으로 삭이겠다가 54.1퍼센트나 되어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들도 많았다.

마. 청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증상에 대한 영역

<표 5> 질문 37 - 질문 52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와 증상

No.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37	거절당한 상처가 있다	15 (12.7%)	43 (36.4%)	28 (23.7%)	24 (20.3%)	6 (5.0%)	2 (1.6%)	118 (100%)
38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14 (11.8%)	45 (38.1%)	28 (23.7%)	24 (20.3%)	4 (3.3%)	3 (2.5%)	
39	말에 받은 상처가 있다	6 (5.0%)	31 (26.2%)	25 (21.1%)	43 (36.4%)	10 (8.4%)	3 (2.5%)	
40	가난, 물질(돈) 때문에 상처가 있다	20 (16.9%)	45 (38.1%)	28 (23.7%)	17 (14.4%)	6 (5.0%)	2 (1.6%)	
41	왕따를 당한 상처가 있다.	28 (23.7%)	59 (50%)	15 (12.7%)	12 (10.1%)	1 (0.8%)	3 (2.5%)	
42	헤어짐(사망,이혼,실연)의 상처가 있다	17 (14.4%)	37 (31.3%)	28 (23.7%)	27 (22.8%)	5 (4.2%)	4 (3.3%)	
43	타문화(언어,인종차별)의 상처가 있다	9 (7.6%)	34 (28.8%)	35 (29.6%)	34 (28.8%)	6 (5.0%)		
44	외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	21 (17.7%)	47 (39.8%)	33 (27.9%)	13 (11.0%)	1 (0.8%)	3 (2.5%)	
45	나의 성격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	12 (10.1%)	44 (37.2%)	34 (28.8%)	27 (22.8%)		1 (0.8%)	
46	현재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다	12 (10.1%)	47 (39.8%)	34 (28.8%)	20 (16.9%)	3 (2.5%)	2 (2.5%)	

No.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47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	19 (16.1%)	33 (27.9%)	29 (24.5%)	31 (26.2%)	4 (3.3%)	2 (2.5%)	118 (100%)
48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있다	19 (16.1%)	45 (38.1%	28 (23.7%	23 (19.4%	2 (1.6%	1 (0.8%	
49	혼자 있고 싶은 우울증이 있다	23 (19.4%)	44 (37.2%)	24 (20.3%)	25 (21.1%)	2 (1.6%)		
50	나를 학대하며 자존감이 낮다	19 (16.1%)	44 (37.2%)	29 (24.5%)	21 (17.7%)	1 (0.8%)	4 (3.3%)	
51	받은 상처에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다	19 (16.1%)	54 (45.7%)	25 (21.1%)	16 (13.5%)	2 (1.6%)	2 (1.6%)	
52	상처를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	10 (8.4%)	43 (36.4%)	38 (32.2%)	24 (20.3%)	3 (2.5%)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와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이 내용은 설문조사는 <표 5>에 있다. 가장 높은 수치부터 보면, 말에 받은 상처가 44.8퍼센트로 역시 말의 상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타문화(언어, 인종차별)의 상처가 33.3퍼센트나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 29.5퍼센트로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헤어짐(사망, 이혼, 실연, 실직)의 상처는 27.0퍼센트, 거절당한 상처는 25.3퍼센트,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23.6퍼센트로 대부분 사랑과 관련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가 22.8퍼센트, 혼자 있고 싶은 우울증이 22.7퍼센트,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21.0퍼센트로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다가 19.4퍼센트로 죄와 씨름하고 있으며, 가난(물질)의 상처는 19.4퍼센트, 나를 학대하며 자존감이 낮다가 18.5퍼센트 였으며, 받은 상처에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다 15.1퍼센트, 외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가 11.8퍼센트, 왕따를 당한 상처가 있다가 10.9퍼센트, 상처를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가 22.8퍼센트였다. 설교자가 타문화권에서 사는 교인들의 상처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 청중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상 및 장소에 대한 영역

교인들이 상처를 누구에게, 어디에서 주로 상처를 받는지 알게 되면 설교할 때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쉽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표 6>에 있다. 친구에게 상처받았다는 자가

39.8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부부가 22.8퍼센트, 부모로부터가 13.5퍼센트, 형제가 7.6퍼센트, 목회자가 5.9퍼센트였다. 그리고 상처받은 장소에 대해서는 가정에서가 33.0퍼센트, 직장이 28.8퍼센트, 교회가 20.3퍼센트, 학교가 12.7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정, 직장, 교회 등 상처는 가까이 있는 친구나 부부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받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질문 53 - 질문 54.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과 장소

No.	주로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목회자	사모	친구	기타	계
53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16 (13.5%)	9 (7.6%)	27 (22.8%)	3 (2.5%)	7 (5.9%)	3 (2.5%)	47 (39.8%)	6 (5.0%)	118 (100%)
54	주로 어디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가정	직장	교회	학교	기타	계			
		39 (33.0%)	34 (28.8%)	24 (20.3%)	15 (12.7%)	6 (5.0%)	118 (100%)			

사. 청중의 마음의 상처 해결 방법에 대한 영역

상처를 받으면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표 7>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가 71.1퍼센트로 가장 높아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혼자서

<표 7> 질문 55 - 질문 61. 마음의 상처 해결 방법

No.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55	혼자 삭인다	2 (1.6%)	12 (10.1%)	31 (26.2%)	51 (43.2%)	18 (15.2%)	1 (0.8%)	118 (100%)
56	하나님께 기도한다	2 (1.6%)	2 (1.6%)	30 (25.4%)	56 (47.4%)	28 (23.7%)		
57	목사님과 상담한다	15 (12.7%)	39 (33.0%)	40 (33.8%)	20 (16.9%)	1 (0.8%)	3 (2.5%)	
58	사모와 상담한다	17 (14.4%)	47 (39.8%)	29 (24.5%)	18 (15.2%)	4 (3.3%)	3 (2.5%)	
59	신앙선배와 상담한다	13 (11.0%)	31 (26.2%)	34 (28.8%)	33 (27.9%)	7 (5.9%)	2 (1.6%)	
60	신앙친구와 상담한다	11 (9.3%)	23 (19.4%)	34 (28.8%)	41 (34.7%)	8 (6.7%)	1 (0.8%)	
61	세상적인 방법으로 푼다	31 (26.2%)	42 (35.5%)	29 (24.5%)	11 (9.3%)	4 (3.3%)	1 (0.8%)	

속으로 삭인다가 48.4퍼센트, 상담 중에는 신앙친구와 상담한다가 41.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신앙선배와 상담은 33.8퍼센트, 사모와 상담은 18.5퍼센트, 목사와 상담은 17.7퍼센트로 신앙친구나 선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2.6퍼센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푼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설교해야 한다.

아. 청중의 교회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효과 영역

<표 8>에 의하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으로 기도가 68.6퍼센트, 찬양은 59.3퍼센트, 설교가 56.7퍼센트, 성경공부나 구역모임이 36.4퍼센트, 상담이 27.8퍼센트를 차지했다. 기도나 찬양이 높은 것은 하나님께 아픔을 쏟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치유적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은 치유가 있으리라 믿는다.

<표 8> 질문 62 - 질문 66. 교회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효과

No.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62	설교를 통해서	2 (1.6%)	11 (9.3%)	37 (31.3%)	53 (44.9%)	14 (11.8%)	1 (0.8%)	
63	상담을 통해서	7 (5.9%)	23 (19.4%)	54 (45.7%)	27 (22.8%)	6 (5.0%)	1 (0.8%)	
64	기도를 통해서		8 (6.7%)	27 (22.8%)	55 (46.6%)	26 (22.0%)	2 (1.6%)	118 (100%)
65	찬양을 통해서	3 (2.5%)	11 (9.3%)	33 (27.9%)	51 (43.2%)	19 (16.1%)	1 (0.8%)	
66	성경공부, 구역 모임을 통해서	5 (4.2%)	24 (20.3%)	43 (36.4%)	32 (27.1%)	11 (9.3%)	3 (2.5%)	

자.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은 청중의 요청 영역

청중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설교를 우선적으로 듣고 싶어했다. 이는 <표 9>에 있다. 가장 높은 수치는 '억눌린 마음을 자유케 할 성령의 능력설교' 73.6퍼센트,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치유설교' 67.7퍼센트,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 63.4퍼센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 61.1퍼센트,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설교' 52.4퍼센트,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치유설교' 51.8퍼센트, '상한감정을 치유하는 상한감정 치유설교' 50.9퍼센트,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를 듣고싶다가

50퍼센트, '자존감을 높여 주는 자아상 회복설교' 49.9퍼센트였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그들은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어했다. 많은 문제와 상처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질문 67 - 질문 75. 어떤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No.	구 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67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	1 (0.8%)	6 (5.0%)	39 (33.0%	50 (42.3%)	21 (17.7%)	1 (0.8%)	
68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치유설교		7 (5.9%)	37 (31.3%)	51 (43.2%)	22 (18.6%)	1 (0.8%)	
69	상한감정 치유위한 상한감정 치유설교		5 (4.2%)	41 (34.7%)	49 (41.5%)	23 (19.4%)		
70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아상 회복설교	11 (9.3%)	12 (10.1%)	35 (29.6%)	48 (40.6%)	11 (9.3%)	1 (0.8%)	
71	죄의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치유설교		4 (3.3%)	32 (27.1%)	58 (49.1%)	22 (18.6%)	2 (1.6%)	118 (100%)
72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	1 (0.8%)	3 (2.5%)	27 (22.8%)	56 (47.4%)	28 (23.7%)	3 (2.5%)	
73	억눌린 마음 자유케 할 성령의능력설교	1 (0.8%)	5 (5.0%)	24 (20.3%)	54 (45.7%)	33 (27.9%)	1 (0.8%)	
74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3 (2.5%)	9 (7.6%)	30 (25.4%)	50 (42.3%)	25 (21.1%)	1 (0.8%)	
75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2 (1.6%)	11 (9.3%)	43 (36.4%)	41 (34.7%)	21 (17.7%)		

마지막으로 <표 10>에 의하면, 청중들이 치유적 설교를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한 달에 1회 듣고 싶다가 44.9퍼센트, 연속 시리즈로 듣고 싶다가 21.1퍼센트, 두 달에 1회가 18.6 퍼센트, 소그룹이나 세미나를 통해 듣고 싶다가 소수였다. 그러나 한 달에 1회나 연속 시리즈를 원하는 교인들이 66.0퍼센트인 것을 보면, 많은 청중들이 상처 치유에 대한 설교를 갈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치유설교를 거의 안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표 10> 질문 76. 얼마나 자주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No.	1달에 1회	2달에 1회	연속 시리즈	기타	무응답	계
76	53 (44.9%)	22 (18.6%)	25 (21.1%)	10 (8.4%)	8 (6.7%)	118 (100%)

3. 한인 교인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상처와 증상들

가. 상처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는 '말의 상처'였다. '조금이라도 있다'가 65.9퍼센트로 3명중 2명이 말에 받은 상처가 있었다. 두 번째가 '타문화(언어, 인종차별)의 상처'였다.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63.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고충과 인종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가 '조금이라도 았는' 경우까지 합하면 51.6퍼센트가 되어 2명중 1명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네 번째는 '실연(헤어짐)에 대한 상처'였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자들은 50.7퍼센트로 2명중 1명은 실연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거절당한 상처'였다.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49퍼센트를 차지하여 2명중 1명이 거절당한 상처가 있었다. 이외에도 왕따를 당한 상처(23.6퍼센트), 사랑의 굶주림에 대한 상처(47.3퍼센트), 가난이나 물질 때문에 받은 상처(43.1퍼센트), 외모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진 자가 39.7퍼센트였다.

이상의 상처들을 통해서 볼 때, 이민교회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싸움과 분열이 많고, 말이 많고, 타문화의 상처는 필수적인 결과였다.

나. 증상들

이상과 같은 상처들 때문에 응답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의 증상들 중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한 것은 첫 번째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가슴에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2명 중 1명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의 문제였다. 48.2퍼센트가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의 증상이었다. 타문화권에 살면서 더 갖게 되는 결과라 본다. 네 번째는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으로 약 43.0퍼센트가 가지고 있었다. 현재 받은 상처에 눌려 있다고 답한 자는 36.2퍼센트로 3명중 1명 정도였고, 상처를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고 답한 자는 약 5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교인들의 다양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는 이민교회 현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본다.

제 2 장
마음의 상처에 대한 신학적 이해

설교자는 먼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마음에 대한 일반적이고 성서적인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마음의 의미, 형성, 작용, 그리고 마음과 감정, 마음과 상처 관계를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관한 개념, 상처받는 원인들과 그 증상들을 살펴보고, 상처의 발달 과정을 봄으로써 마음과 상처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마음에 관한 일반적, 성서적 이해

먼저 마음의 의미, 형성, 작용과 마음과 감정과 마음과 상처와의 관계를 살펴 본 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마음의 일반적 이해

가. 마음의 의미

마음은 우리 인간이 볼 수도, 느낄 수도, 무게를 달수도 없다. 그러나 마음은 각 사람의 삶의 방식과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마음은 타인이나 자신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으며, 왜곡된 생각에 의해 뒤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배될 수도 있다.[23] 이처럼 마음이란, 너무나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콜린스(Gary R. Collins)는 "마음이란, 사고, 학습, 문제해결, 의지, 인식, 집중, 기억, 주의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경험 등을 포함한 우리의 정신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3) Gary R. Collins, *마음탐구 (The Magnificent Mind)*, 허영자 역 (서울: 두란노, 1993), 11-12.

윌라드(Dallas Willard)는 "인간의 마음은 인생의 중앙 살림 부서이다. 마음은 결정과 선택이 내려진 곳."[24]이라고 말한다. 마음은 의식[25]과 무의식[26] 혹은 잠재의식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마음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삶의 상황을 겪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경험과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커진다.[27] 그래서 이민재는 이렇게 말한다.

> 마음에 입력된 긍정적인 자극들은 의식의 표면에 머무르면서 쉽게 표출되고 발산되지만, 부정적으로 경험된 자극들은 계속 억압되면서 마음에 쌓인다. 그래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것이다. 결국 마음은 점점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온갖 나쁜 기억과 상상과 생각들, 어둡고 우울한 정서들로 가득 찬 불결한 창고가 된다. 결국 마음은 악성 감정과 상한 감정으로 뒤범벅이 된다. 이런 마음에 대해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

결국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설교도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치유적 설교자는 필히 마음 연구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28] 마음은 어떤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은 주변 세계와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계속 수용하며, 생각의 기능이 있어서 세상에 대해 해석을 내린 후에, 이 해석과 일치된 행동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한다.[29] "난 너무 둔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하기를 포기하여 결국은 실패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자기 신념에 맞게 행동하여 마침내 친구가 없이 일생을 마친다. 이런 것들을 "자기 완성의 예언(self-fulfilling prophecies)"라고 부

---

24) Dallas Willard, "기독교적 마음 탐구," *목회와 신학*, 2003년 8월호, 81.
25) 윤현철, *당신도 상담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서울: 도서출판 아바, 1997), 39. 의식은 오관(눈, 귀, 코, 혀, 몸)과 함께 자율신경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며, 조절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 이라고 정의한다.
26) Ibid., 41. 무의식은 개인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의 총체로써 잊어버린 과거의 경험이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마음의 일부 혹은 일면 즉 생리적 활동, 반사를 가리킨다.
27) 이민재, "그리스도인의 마음 지키기," *목회와 신학*, 2003년 8월호, 100-101.
28) 이성훈, *내적치유* (서울: 두란노, 1992), 13.
29) 참고, 윤현철, 43. 의식보다 무서운 것은 잠재의식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른다. 그러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고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의 '적극적인 사고(positive thinking)'라는 유명한 철학의 결론이며,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의 '가능성의 사고(possibility thinking)'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30]

그러므로 사람들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됨으로 정작 문제를 다루어야 할 장소는 마음이다.[31] 마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알아야 한다.

나. 마음과 감정

감정이란, 감각 또는 정서적인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감각이 다 감정은 아니다. 아픔과 쓸음, 배고픔 따위는 몸의 상태를 말해 주는 신체적 감각이다. 반면에 감정은 인간의 내면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감정은 심리적인 동력(psychic motors)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감정이 우리를 움직인다든지, 우리가 감정에 의해 어떤 활동이나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32]

윌라드(Dallas Willard)는 "감정이란, 생각을 통해 머릿속에 들어온 소재에 끌리게 하거나 등 돌리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감정에는 생각거리의 존재나 소유에 대한 매력이나 반감, 좋고 싫음의 기류가 담겨져 있다.[33] 또한 감정은 종종 변화되어야 할 태도나 고쳐야 할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다. 그러므로 감정은 잠재해 있는 문제들의 증상이다. 감정은 영적, 심리적 문제의 증상일 뿐 아니라, 또한 육체적 고장의 증상이 되기도 하다.[34] 그리고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고 깨달음을 생생하게 하는 일도 한다.

> 그러므로 감정적 기억은 어떤 형태로든 마음속에서 작용한다. 많은 종류의 감정적 기억들이 '암묵적', '무의식적', '비진술적'인 기억의 형태로 남아 우리의 삶을 엮어간다. 이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얼개들을 형

---

30) Collins, *마음탐구*, 14-17.
31) Ibid., 19-20.
32)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Healing from the inside out)*, 이상신 역 (서울: 예수 전도단, 2003), 104.
33) Willard, 83.
34) Ralph Speas,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How to deal with how you fell)*, 이현모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0), 22-24.

> 성한다. 알 수 없는 불안의 감정, 이해가 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 혹은 이유 없이 슬프거나 기쁜 등의 일상적인 생활 속의 감정들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감정적 기억들에서 연유한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의지작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과제다.[35]

그리고 마음의 걱정, 두려움, 불안, 근심, 흥분, 불신 등 수많은 감정들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장마비, 편두통, 고혈압, 궤양, 대장염, 변비, 설사, 알레르기, 암 등의 통증, 관절염 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에 물리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각각의 병들이 마음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나타나기 쉽다.[36]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 하고있기 때문이다.[37] 답슨(Dobson)은 감정이란 억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으로 가라앉아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활동한다. 무의식적 감정은 의식이라는 빛을 전혀 받지 않고 표출되어 어떤 형태로든 건전하지 않는 행동을 낳게 만든다. 예를 들어 분노는 험담, 중상모략, 빈정거림, 판단, 정죄, 관계의 장벽, 원한으로 드러나거나 우울증처럼 자신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욕설과 폭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감정은 억압하면 우리가 원하는 반대 방향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낸다.[38]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인간 내부에 있는 강력한 힘이다.[39] 인간의 정신 속에서 깊이 흐르는 감정이라는 강은 범람하여 정신의 둑을 넘쳐흐르고 마음을 뒤덮는 능력이 있다.[40] 그러므로 설교자는 감정의 숨은 힘을 알고 설교를 해야 한다.

다. 마음과 상처

---

35) 안석모, "감정을 이해하면 치유의 길이 보인다" *목회와 신학*, 2003년 8월호, 91-93.
36) Collins, *마음탐구*, 64.
37) Theodore E. Dobson,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 (How to pray for spiritual growth)*,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167.
38) Ibid., 169.
39) James Dobson, *4가지 감정의 치유 (Can you trust them?)*, 남미선 역 (서울: 서로 사랑, 1999), 8.
40) Ibid., 15.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취약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관직은 다음과 같이 마음에 대해서 말한다.

> 마음은 각 사람의 기질이나 성장환경,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충격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동일한 심리적 충격에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와해되고, 또 어떤 사람은 견뎌내며 또한 승화시켜 더 강하고 성숙한 마음의 소유자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서 고착이나 퇴행의 상태로 나아가, 보다 유아적인 마음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마음의 평형상태(equilibrium) 혹은 항상성(homeostasis)을 잃어버려서 현실과 실제를 왜곡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망상과 환각이 동반되는 정신병적 상태에 나아가기도 한다. 마음의 또 다른 한 면은 고집성이다. 웬만한 외부 자극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작용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이는 성격장애로 분류한다. 이를 고치는데는 장기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요구한다.[41]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음이 연약하여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외적으로나 의식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다.[42] 특히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쉽게 받는다.[43] 특히 정서적인 상처는 빨리 낫지 않는다.[44] 그러므로 받은 상처는 마음에 남아 있으므로 설교자는 이 사실을 알고 설교해야 한다.

2. 마음의 성서적 이해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소유하지 못한 두뇌의 기능과 마음의 구조 및 작용을 갖는 은총 받은 피조물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세계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며, 또한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지혜력, 정서능력, 자유의지가 균형있게 작용되도록 지음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주어진

---

41) 이관직,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보내 입니다.", *목회와 신학*, 2003년 8월호, 51-52.
42) 이성훈,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서울: 두란노, 1994), 15.
43) David A.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1995), 25.
44) Ibid., 19.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마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원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간 후손에게 원죄로 인한 마음의 기능이 원래 창조시의 기능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죄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wholeheartedly)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45]

원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도 영어의 마음(mind)과는 동일하지 않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6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마음'(mind)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때로 '혼'(soul), '마음'(heart), 그리고 '태도'(attitude)로 번역되기도 했다. 성경에서는 마음(mind)을 결심(determination; 느 4:6), 기억(사 46:8-9),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며, 영적인 기민함, 헌신을 언급할 때도 썼다.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개념은 거의 행동 쪽에 가깝다. 예를 들면, 근심스런 마음은 근심스런 행동을 낳고, 죄를 품은 마음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며 인격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46] 마음은 지, 정, 의가 자리하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 즉 보이는 육체와 대조되는 전인격을 말한다.[47]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48]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 구약성서에서의 마음

레브(leb), 레바브(lebab)는 마음(heart), 이해(understand), 정신, 마음(mind)의 뜻이다. 레브(leb)의 실제적인 의미는 내부기관과 유사 신체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인간 내부의 총체 혹은,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부한 성서 용어로 사용된다. 레브(leb)는 일반적으로 내적인 본성 혹은 영적인 본성을 언급하거나 인격의 세 가지 기능, 즉 감정, 생각, 의지를 언급한다.[49] 이 히브리어 용어들은 인

---

45) 이관직, 46-47.
46) Collins, *마음탐구*, 38-39.
47) 구요한, *내적 치유 이렇게 하라* (서울: 백합 미디어, 2002), 261.
48) Ibid., 263-265.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완악한 마음(마 13:15)과 강퍅한 마음(유 15, 히 3:8, 13, 15), 굳은 마음과 새 마음 또는 부드러운 마음(겔 11:19; 36:26), 더러운 마음(딛 1:15)과 청결한 마음(마 5:8, 딤전 1:5, 행 15:9), 미련한 마음(롬 1:21) 허망한 마음(엡 4:17)과 참 마음(a sincere heart, 히 10:22), 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사 61:1, 골 1:28) 등이다.
49) "마음" *구약신학사전*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9), 777-778.

간 전 인격의 핵심, 그의 존재의 감추인 부분을 가리킨다. 이 안에서 모든 활동들, 즉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지적인 활동들이 생겨나며, 이 활동들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의 방향을 결정한다.[50] 그러나 구약에서 인간의 마음 상태는 심히 타락해 있고, 부패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은 악뿐이다.[51]

구약에서 마음(heart)은 감정의 자리로 생각된다.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출 4:14), 겁내는 마음(사 35:4), 떨리는 마음(삼상 4:13)들이 있다. 또한 '마음'은 양심과 도덕적인 특성의 자리이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행하였다.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존재, 곧 그 자신을 대표한다. 마음은 그 자체로써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잠 4:24). 사람의 모든 생각, 욕망, 말, 행동들이 마음의 내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52] 그러므로 마음은

나. 신약성서에서의 마음

신약에서의 마음은 의지(막 3:5), 지성(막 2:6), 정서(눅 24:32)의 좌소로 묘사된다. 따라서 마음은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사용된 마음은 현대 용어상 '정신'에 가장 가깝다.[53] 또한 신약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은 사람의 존재, 양심, 기능 등 여러 측면들을 나타낸다. 사람의 전인격이 강조될 때는 여러 용어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마 22:37, 엡 2:3, 빌 4:7, 계 2:23), 사람의 내적인 갈등이 묘사될 때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롬 7:22-25; 8:5, 고전 14:14).[54]

신약에서 주님은 마음의 올바른 상태를 강조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 5:8). 죄를 제일 먼저 범하는 곳은 마음이다(마 5:28). 용서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마 18:35). 로빈슨에 따르면, '마음'을 사용한 열다섯 경우가 대체로 인격이나 내부적 생활을 나타내고(고전 14:25), 열세 경우가 의식의 감정적 상태의 중심부를 말하며(롬 9:2), 열한 경우가 지적 활동의 중심으로(롬 1:21), 열세 경우가 의지의 좌소로써(롬 2:5)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55] 그러므로 신약에서 마음은 다양

---

50) "마음"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 5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791.
51) 구요한, 262.
52) "마음" *구약신학사전*, 780.
53) "마음", *I.V.P 성경사전* (서울: 한국 기독학생 출판부, 1992), 139.
54) "마음"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423.
55) "마음" *Baker's 신학사전*, 신성종 역 (서울: 엠마오, 1993), 185.

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마음은 인간의 육신 생활의 중심이며, 자신의 모든 욕망, 도덕적 선택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경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소가 인간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56] 그러므로 설교자는 마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설교해야 한다.

제 2 절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이해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치유적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마음의 상처에 관한 개념과 원인, 증상 그리고 상처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마음의 상처의 개념

상처는 '상처 난 감정'이다. 사람의 내면을 지, 정, 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상처를 받는 부분은 감정이다. 왜냐하면 지, 정, 의 가운데 가장 쉽게 다칠 수 있고 또 가장 예민한 부분이 감정이기 때문이다.[57] 상처는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에도 나타나게 된다.[58] 또한 상처는 나쁜 행동 습관으로 변질되어 나타난다.[59]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갈아먹을 뿐 아니라 가치를 저하시키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삶도 포기하게도 만든다.[60]

2. 마음의 상처의 원인

사람의 상처의 원인을 잡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처의 내용과 상황과 각 개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61] 마음의 상처는 한가지 큰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별, 결혼 생활의 깨어짐, 직장의 실패, 건강상실, 지위나 명성의 손실 또는 사고와 같은 감정의 외상적 경험이 우리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

56) *Baker's 신학사전*, 185.
57)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울: 두란노, 2003), 19.
58)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19.
59) Charles Stanley, *상한 감정 클리닉 (The Source of My Strength)*, 김창대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10.
60) 유진소, 110.
61) Ibid., 25.

감정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가정불화, 잔소리, 비판, 심한 권위주의적 훈련, 심리적인 잔인함 등 스트레스에서도 온다.[62] 그 외에도 감정상의 충격을 받았을 때, 장기간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꼭 채워져야 하는 필요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등이다. 특히 유년기의 상처는 감정상의 성장을 중단시킴으로써 어른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미성숙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된다.[63] 상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원죄와 자범죄, 환경, 거절감, 그리고 굶주림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상처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상처는 학습이나 경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이며, 살면서 겪는 문제나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64] 그러므로 상처는 일종의 죄 현상이다. 즉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원죄의 아주 구체적인 증거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65] 그런데 죄는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그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자기 미움의 상처를 남긴다.[66] 이 상한 마음을 치유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게 된다. 특히 굶주림과 버림받은 마음은 욕심을 일으킨다. 버림받은 마음은 허기, 두려움, 불신, 불안, 열등감 등으로 채우고, 보호받기 위한 욕심을 갖는다. 굶주림 때문에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욕심이 죄의 뿌리가 되어 죄를 계속 범하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굶주린 마음 때문에 계속 세상의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세상 것으로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다.[67] 가장 심각한 상처의 원인이다.

나. 환경

---

62) Tom Marshall, *자유케 된 자아 (Free Indeed)*, 예수 전도단 역 (서울: 예수 전도단, 1994), 71.
63)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25.
64) 유진소, 27.
65) Ibid., 26.
66) 이성훈,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16-17.
67) 이성훈, *내적치유*, 108-109.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각종 고통도 같이 들어왔다.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고통스런 환경은 치명적인 상처의 간접 원인 될 수 있다. 물론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상처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있다보면 그 만큼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68]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유년기는 내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69] 또한 가계의 조상들 중에 영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 즉 살인, 성적 문란, 심한 우상숭배나 무속에 빠진 죄를 지은 영적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상처를 특히 더 잘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70] 또한 어렸을 때 받은 학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71] 만일 부모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권위적인 인물로서 결코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와 친구들은 감춰진 상처를 강화시키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처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게 한다. 동료들이나 이웃들은 상처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준다.[72] 그러므로 환경은 상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 거절감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 그런 사람을 '권위의 인물'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때 받은 상한 감정이 거절감이다. 이는 '버림받은 마음'이라고도 한다. 이 상처가 모든 상처의 출발점이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말 그대로 진짜 버림받은 경우도 있고, 사고나 피치 못할 이유로 헤어진 경우, 같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거절한다는 의사표현을 심한 언어로 받는 경우, 비교에 의해 상대적으로 거절당했다고 느낀 경우 등 수없이 많다.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 후에 전혀 상관없는 다

---

68)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 회복*, 28.
69) 엄예선, *목회 가정 상담*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7), 123.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모도 그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70) 유진소, 30.
71) 김종주, *셋이 만드는 행복한 가정* (서울: 예솔, 1996), 246.
72) 유진소, 32-36.

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반응을 한다.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정당한 거절인데도 유난히 못 견딘다.[73]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거절감의 상처는 깊어진다.[74] 그래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원죄처럼 자리잡고 있다.[75] 이 거부의 상처는 워낙 쓰라려 애써 아무렇지도 않는 듯 외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보다 깊은 곳, 이성보다 깊은 곳, 기억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76] 거부는 다른 많은 파괴적인 감정과 태도를 기르는 뿌리이다.[77] 인간은 거절감의 상처를 원죄처럼 가지고 살고 있다.

라. 굶주림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 받고 싶은 굶주린 마음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향락으로도 채울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하는 '권위의 인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78]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기에게 적절한 사랑이 주어질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79] 그러므로 사랑의 결핍은 부정적인 사랑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 "나는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어버린다. 또 자신에게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돌려버릴 수도 있다.[80] 그리고 굶주린 마음의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집착한다. 그 집착은 두려움에 의한 집착과 다르다. 두려움에 의한 집착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안전에의 집착'이지만, 굶주림에 의한 집착은 '채우기 위한 만족에의 집착'이다.[81] 굶주린 마음의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만큼 상처를 쉽게 받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조금만 거부해도 상처받는다. 그러면서도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

---

73) 유진소, 44-45.
74) Norman Wright,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Making Peace with Your Past)*, 송헌복, 백인숙 공역 (서울: 조이 선교회 출판부, 2004), 114.
75) Ibid., 46.
76) Derek Prince, *거부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God's remedy for rejection)*, 조철환 역 (서울: 에이멘, 2000), 14.
77) Ibid., 37.
78) 유진소, 89.
79) 김 진,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울: 뜨인돌, 1999), 167.
80) 윤현철, *당신도 상담·치유자가 될 수 있다*, 156.
81) 유진소, 77.

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굶주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위장된 분노를 가지고 있으나 그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고 속으로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82] 그러므로 굶주린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어야 한다.

3. 마음의 상처의 증상

마음의 상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찰스 셀(Charles Sell)은 "분노, 두려움, 모멸감, 슬픔, 부끄러움, 죄의식, 이질감, 혼란, 무가치, 고독, 불신, 불안, 위협, 우울함 등"[83] 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상처의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가. 분노(Anger)

상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감정은 분노라고 생각한다. 그 분노는 거절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비난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난다.[84] 또한 분노는 어떤 필요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강한 불쾌감이다.[85]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86] 화를 내는 것은 행동이며, 분노는 어떤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감정이다.[87] 분노는 거절감을 느낄 때, 굶주림 채워지지 않을 때, 두려울 때, 또 열등감을 감출 수 없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쉽게 나온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한 감정들 가운데 제일 바깥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88] 상한 감정이 억압되어서 안으로 들어가 쌓이면 우울증이 되고 밖으로 나오면 분노가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밖으로 나올 때에는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폭력이 될 수 있다.[89]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분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않는 쓰라림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몸을 파괴하고 감정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황폐

---

82) 유진소, 82.
83) 윤현철, 271.
84)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혜련 공역 (서울: 두란노, 1995), 151.
85) June Hunt, *성경적 상담의 열쇠 (Biblical Counseling Keys)*, 최복순 역 (서울: 프리셉트, 2001), 48.
86) William Backus, Marie Chapian,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 61.
87) Ibid., 69.
88) 유진소, 60-61.
89) Ibid., 61-62. 분노는 이렇게 표현된다. 원한, 원망, 질투(투기),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악의 성냄, 불평, 비방, 미움, 선동, 험담, 빈정댐 등이다. 참고, 윤현철, 205.

케 한다.[90] 그리고 분노는 습관화가 된다. 일종의 중독이다. 분노에 길들여진 사람은 좀처럼 그것을 끊을 수 없다. 분노는 고통이지만,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는 굉장한 쾌감이 있기 때문이다.[91] 분노에서 핵심적인 것은 비난과 고발의 비판적 심리이다. 분노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인격적 모독에 대한 비판이다.[92] 분노, 이것은 상처의 첫 증상이다. 설교자는 특히 감정조절을 잘 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나. 우울증(Depression)

화가 나서 분노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속으로 숨긴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우울증이란 사전에서는 '내리 누름'(press down)이라는 어원을 담고 있다. 우울하다는 동사는 "정신을 깎어내다. 기를 죽이다. 낙담시키다. 슬프게 만들다. 가치를 낮추다. 활동성과 적극성을 저하시키다. 더욱 저급한 위치로 밀어 넣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명사형으로써의 우울증의 뜻은 '일반적인 정서적 낙담과 철수의 상태'(a condition of general dejection and withdrawal)로 정의된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건강하지 못한 식사의 습관, 부족한 휴식, 스트레스, 잘못된 대인관계,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 분위기의 변화, 영적인 갈등" 같은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93]

우울증의 증상은 공연히 슬퍼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피곤해 지며, 유머감각을 상실한다. 종종 자신을 싫어하는 강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느낀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우울한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으며 장래를 암담하게 내다본다.[94] 그리고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의 성격적 특징은 의존적이고, 분노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며, 양심적이어서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비난한다. 그러므로 우울증이란 자신을 향한 분노나 적개심이다.[95] 그런데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격하시키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악화시키거나 장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

90) Hunt, 55.
91) 유진소, 62-63.
92) 최재락, *위기와 교육적 치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7), 277.
93)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222.
94) 김예식, *우울증 치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8), 32.
95) 구요한,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라*, 220. 또한, 우울증에서 가장 주의할 사항은 자살 가능성이다. 우울증은 무력감, 분노, 공격의 감정 등으로 가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긴다.[96]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증을 강화하는 행동을 한다. 우울증은 의존심(dependency)을 낳고, 의존심은 무기력증(helplessness)을 낳으며,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anger at his own helplessness)가 생기면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97] 그러므로 어떤 교인이 잘 참는다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두려움(Fear)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이란, 내면을 지탱하는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감정이다. 사람에게는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의지나 열정이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실패나 부담감, 좌절, 거절감 등에 의해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관계에서 고통받는 마음이다. 그렇게 까지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던 감정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98] 이 두려움은 목표를 허물어 내리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99]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보호벽을 친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증상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교인들은 한인 교인들과 접촉을 꺼려하거나 아예 미국교회로 가버린다.

라. 열등감(Inferiority Complex)

상처를 받아 감당이 안되면 열등감으로 간다. 그래서 열등감이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를 내리는 마음이다.[100]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능,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 자기 개념"[101]이라고 정의한다. 말쯔(Maxwell Maltz)는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퍼센트 정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C. S 루이스는 "사탄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의식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비교의식인데 이 비교의식은 열등감의 배후세력이다"[102] 라고 말한다. 열등감의 원인은 부모의

---

96) William Backus, Marie Chapian,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 46.
97) 엄예선, *가족 위기들과 가정사역*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1997), 207.
98) Ibid., 94-95.
99) Seamends, *치유하시는 은혜*,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0), 166-167.
100) 이성훈, *내적치유*, 62.
101) 정정숙, *사모를 위한 상담* (서울: 베다니, 1995), 85.
102) 윤현철, *당신도 상담 · 치유자가 될 수 있다*, 168.

비난, 창피, 거부, 꾸짖음이나 지식, 교육, 재력, 권력, 명예 등을 획득, 보유하지 못했거나 얻었으나 상실한 경우도 원인이 된다. 모든 종류의 상처는 열등감을 일으킨다. 열등감은 모든 상처의 부작용이다. 거절감이든, 굶주린 마음이든, 두려워하는 마음이든 다 열등감을 낳는다.[103]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마.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

앤더슨(Hans Christian Anderson) "낮은 자존감의 원인으로 비판적인 말, 비웃음, 놀림, 신체적인 공격, 배척, 비난, 규탄 등을 받을 때 생긴다"[104]고 말한다. 또한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significant others) 및 부모로부터 성장기에 필요한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그 결과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감정과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마음을 갖는다.[105]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은 아기 침대에서부터 갖기 시작하여 유치원 시절까지 연결되고 십대에 들어서는 더욱 심해진다. 성년이 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마음속에 머무르다가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한다.[106]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저해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음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된다.[107] 그러므로 자존감 회복설교는 교인들에게 생기와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바. 죄책감(Guilt)

죄책감은 자신이 설정한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범하는 행동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약속 또는 법을 어길 때 생기는 불편하거나 고통스런 감정이다.[108] 옳지 못하다고 느끼는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했을 때, 혹은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과 수치와 자책 등의 불편한 감정이다.[109] 이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마음에 전달되는 비난의 감정이다.[110] 또

---

103)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회복*, 110.
104) Hunt, 35.
105) 윤현철, 154.
106)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66.
107) Ibid., 71.
108) Charles L. Whitfield,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Healing the child within)*, 김용교, 이인출 공역 (서울: 글샘, 2000), 76.
109)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169.

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범죄[111]나 실패 등의 기억과 그때 깨어진 이미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마음이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또 그렇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을 경멸하고 비하하여 그로 인해 생겨난 각종 상한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죄책감이다.[112] 따라서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이다.[113] 죄책감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114] 그러므로 설교자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도록 복음설교를 해야 한다.

사. 수치심(Shame)

수치심은 자신이 결점 투성이고, 불안전하고, 형편없으며, 부적합하거나 실패작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결점까지를 훤히 꿰뚫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이다. 죄책감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오는 감정인데 반하여 수치심은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은 교정과 용서의 길을 찾을 수 있으나 수치심에 대한 해결책은 찾기가 어렵다. 수치심은 자기 혼자만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115] 그 수치심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 수치심의 결과 자포자기나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쉽다.[116]

아. 성인아이(Adult Child)

성인아이란 "어린 시절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된 후에도 유년기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117]을 말한다. 성인아이들은 자아개념이 희박하고, 절망에 대한 극복력이 낮고, 학문적인 낮은 성취도, 과도한 활기, 낮은 자존감, 미루는 버릇, 정서적 및 행동적인 장애, 성적인 혼란과 신체적인 이상, 자

---

110) 구요한, 189.
111) 윤현철, 199. 죄를 범하면 양심의 찔림, 율법의 고발, 타인의 비방, 사탄의 참소를 받는다.
112)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 회복*, 118.
113) Whitfield, 76.
114) Seamends, *치유하시는 은혜*, 143.
115) Whitfield,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75.
116) 구요한, *내적치유 이렇게 하라*, 197.
117) 윤현철, 74.

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고, 끊임없는 인정이나 동의를 구하고, 비평이나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위협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지나치게 책임의식, 지배적 성향, 충동적, 강박적, 일 중독, 남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 완전주의자에다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된다.[118] 어린 시절의 상처지만 현재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설교자는 원인, 증상, 치유책을 알고 설교해야 한다.

4. 마음의 상처의 발전과정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이사야 61:1) 여기에서 메시야의 사역이 '마음이 상한 자(brokenhearted)'를 고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또 마음의 상처의 발전과정 세 단계를 볼 수 있다.[119] 그러므로 상처는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두려움, 굶주림, 열등감, 죄책감 등 다른 상처들을 연쇄적으로 갖게 한다. 내면의 의식까지 상처 입은 상태로 변형시키면서 상처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상처의 정도 또한 점점 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상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있다.[120]

가. 첫 번째 단계; 상한 마음

'상처받은 모든 감정을 지닌 마음'이다. 이 상태에서는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나, 자각 증세를 느끼면서도 그냥 갈등 가운데 지낸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내면에 평강이 없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상이거나 안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조금만 빈틈이 생겨도 한층 더 심각한

---

118) 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서울: 규장 문화사, 1995), 110.
119) 참고,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서울: 규장, 2003), 12-13, 21, 39, 65.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맡 13:1-23)'에서 마음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신다. 길바닥같은 마음(닫히고 굳은 마음), 돌이 들어있는 마음(상처가 있는 마음), 가시덤불 마음(근심, 불안, 질투같은 감정들 때문에 방황하는 마음), 옥토마음(열매 맺는 마음)이다. 그는 마음과 상처를 연관지어 설명한다.
120) 유진소, 37-38.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121]

나. 두 번째 단계; 포로된 마음

계속해서 상처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상처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포로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122] 받은 상처는 마음속에 남아 원통함이 된다.[123] 겉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이미 내면의 의식과 상태가 상처의 영향 속에 굳어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크래프트(Charles Kraft) 교수가 말하는 '깊은 상처'가 바로 이것이다. 각종 집착과 중독 현상 등이 나타나고 내적으로 심각한 혼동이 시작된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해결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124]

다. 세 번째 단계; 갇힌 마음

정서적, 정신적으로 이미 심각한 장애 상태에 이른 마음이다. 단순히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갇힌 마음(감옥)'이라고 부른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강박관념 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심한 경우 귀신들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나쁜 쪽으로 발전되다보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처는 내면에 있는 일종의 죄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그 세력은 끝없이 확장해 가고 심화해 간다. 그 결과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까지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상처는 정말 밉다. 그러면서 무섭다. 만만치 않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대답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125] 갇혀짐은 억눌림과 자기 학대를 통해 이루어진다.[126] 그러므로 상처를 초기 단계에서 치유하지 않으면, 더 부정적인 증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

121)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회복*, 38.
122) Ibid., 38.
123) Wright,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85.
124) 유진소, 38-39.
125) Ibid., 39.
126) 이성훈,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32.

제 3 장
치유목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이 장에서는 치유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치유와 치유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들, 그리고 치유목회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치유에 대한 성서적 이해

먼저 치유에 대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원들을 고찰해 보고, 치유의 의미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성서적 배경으로 구약성서에 나타난 치유의 예방적인 측면과 치유적인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를 살펴보고 난 뒤 치유의 목적을 보고자 한다.

1. 치유의 어원적 고찰

가. 히브리어

구약에서 명사로 '치유'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אֲרֻכָה'(arukhah)이고, 또 하나는 'מַרְפֵּא'(marpe)이다. '아룩하'는 의사가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긴 붕대'라는 뜻으로 예레미야 8장 22절, 30장 17절, 33장 6절에서 사용되고 있다.[127] 이 단어는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치료, 고침, 회복, 원상복구, 완쾌, 간척, 권리회복, 승소, 병이 차차 나아감, 회복의 뜻이 있다.[128] 그리고 '말페'는 예레미야 14장 19절, 역대하 21장 18절에서 '치료', '고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외에 '원기 회복'이라는 뜻도 있는데, 잠언 4장 22절의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와 잠

---

127) 이성호, *성구 대 사전* (서울: 혜문사, 1983), 1401.
128) 조두만, *히, 헬라어 성경 대 사전* (서울: 성지사, 1987), 34.

언 12장 18절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가 바로 그런 예이다.[129] '말폐'의 본래 의미는 '치료', 문자적으로 '약', 상징적으로는 '구출, 평온, 치유, 완쾌, 치료, 구제법, 교정법, 건강, 건전, 건강상태, 위생, 평정, 부드러움, 온화함, 냉정, 침착' 등의 의미가 있다.[130] 또 동사로서 치유를 의미하는 단어는 'חלים'(halram), 'רפא'(rapha), 그리고 명사 '아룩하'와 함께 'צמח'(samah)가 사용되고 있다. '할람'은 '회복케 하다'[131]로 이사야 38장 1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견고하게 묶다', 함축적인 의미로 '뚱뚱하게 되다' 또 상징적으로 '꿈꾸다', '꿈에 생각하다', '몽상하다', '강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 때에 따라서 '강하게 만들다', '힘세게 하다', '치료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마'는 이사야 58장 8절에서 '치료하다'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 상징적 의미는 '싹이 트다', '열매를 맺다', '산출하다', '자라다', '나오다', '솟아나다', '솟아나오게 하다', '자식이 생기다' 등의 의미가 있다. 이 중 '라파'가 가장 많이 성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 보면 '상처를 고치다', '치료하다'(창 22:17, 욥 5:18), '하나님이 치료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대하 7:15, 시 30:2), '수선되다'(렘 19:1), '위로하다'(렘 8:11, 겔 34:4), '치료받다'(레 13:37, 사 54:5), '자신이 고침받게 하다'(왕하 8:29) 등의 뜻으로 상용되고 있다.[132]

나. 헬라어

신약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ἰάομαι'(이아오마이), 'θεραπεύω'(데라퓨우오), 'ὑγιαίνω'(휘기아이노), 'σῴζω'(소조) 그리고 복합어인 'διασῴζω'(디아소조) 등이 있다. 이 네 단어들이 치유의 기본적인 단어들이며,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133]

ἰάομαι는 '병을 고치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희랍어 용법에서는 의학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도덕적인 상처나 질병의 치료에까지 그 용법이 확장되었다. 희랍어만을 생각할 경우엔 죄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죄 그

---

129) 이성호, 1401.
130) 조두만, 203.
131) 고영민, *성구 원어 대 사전* (서울: 교문사, 1984), 360.
132) 조두만, 107.
133) Morton Kelsey, *치유와 기독교 (Healing and Christian)*, 배상길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1), 121-122.

자체는 독특한 조건(육체적 또는 정신적)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θεραπεύω는 영어 'therapy'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의료적 처치나 치유를 표현하는 말이다. 원 의미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돌봄이나 섬김을 의미하였다. 차용(借用)에 의해서 이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병을 고치다'를 의미한다. ὑγιαίνω는 '좋은 건강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몸이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일들의 건강 또는 건전한 상태를 언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희랍 의료 용어의 기본적인 단어이며, 영어의 'hygiene'는 이 말에서 유래하였다. σῴζω는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를 뜻하는데 고대 희랍어에서 의료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치료의 뜻을, 한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희랍어의 개념 가운데는 몸을 구원하는 것이 전존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의미상 완전한 구원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 단어로부터 신학 용어인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어인 διασῴζω는 '위험을 뚫고 안전하게 가져오다', 또는 '위험을 헤치고 보존하다'를 의미하며, 그 의미나 용법에 있어서 σῴζω와 유사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와 후대의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서 치료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134]

2. 치유의 의미

치유는 구속적인 은혜의 표현이다.[135] 김세윤은 "치유를 하나님 나라 회복 차원에서 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치유란, 부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고난의 제거, 긍정적으로 말하면 온전케 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육신의 병고 제거뿐만 아니라, 갈등의 제거, 정치적 억압의 제거 등과 같이 전 포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죄용서: 의인됨),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136]

---

134) Kelsey, 121-122.
135) Paul Tournier, *성서와 의학 (A Doctor's Case Book in the Light of the Bible)*, 마경일 역 (서울: 전망사, 1979), 291.
13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69-70.

또한 치유는 상한 육체와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며, 구원은 최고의 치유이다.[137] 로렌스(Roy Lawrence)는 "치유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면, 즉 육체, 정신, 영혼, 태도, 관계,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등을 어루만지는 것이며, 시간이 흐르며 치유되는 것과 영원한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138] 언더힐(Evelyn Underhill)은 "치유란, 인간성을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써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게 하는 것"[139]이라고 하였다. 치유는 인간에게 병이 있기 전인 본래적 상태로의 원형적 회복만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상태로의 성장적 회복이다.[140]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깊은 차원과 표면적 차원의 치유 즉 통전적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적 차원의 치유는 육체적 치유를 말하며, 깊은 차원의 치유는 관계적 치유로써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감정적으로는 자아와 관련된 부분과 타인과의 부분으로써 이 두 부분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치유이다.[141]

토르니에(Paul Tournier)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치유란 곧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142] 비록 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치유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치유는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과 하나님의 형상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치유의 성서적 배경

가. 구약성서에 나타난 치유

(1) 예방적 측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예

---

137) Doug Murren, *치유하는 교회 (Churches That Heal)*, 심영우 역 (서울: 홍성사, 2002), 16.
138) Roy Lawrence,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The Practice of Christian Healing)*, 이주엽 역 (서울: 요단, 1999), 32.
139) Ibid.
140) 이기춘, "기독교 치유와 영성", *기독교 사상* 1988년 4월호, 26.
141) Charles H. Craft,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Deep Wounds, Deep Healing)*, 이윤호 역 (서울: 은성 출판사, 1995), 25.
142) Tournier, 294-295.

방하기 위하여 배설물 처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다(신 23:12-13).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 문둥병, 매독, 혹사병을 살피고 그러한 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금지하게 하였다(레 13:4).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써 남아가 출산하면 반드시 할례의식을 행하게 함으로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부인병을 예방하게 하였다(창 17:10-14). 지혜의 왕 솔로몬은 술에 관하여 경고하며 술 취함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잠 23:29-35).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모세와 같은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건강을 위한 예방법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질병을 예방하는 조건으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출 15:26, 레 26:14-16). 둘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신 7:12-16, 레 26:14-16)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위생에 관한 법(신 23:12-13), 정결에 관한 법(출 23:10-11, 레 15장), 격리에 관한 법(민 5:1-4), 식이요법에 관한 법(레 11장), 절제에 관한 법(민 6장)등을 통해 자신을 잘 관리하므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말씀 순종과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⑵ 치유적 측면

구약성서에서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인간을 찾아가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창 3:1-21). 이것이 최초의 치유이며[143] 인간을 고통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치유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계시하셨다.[144]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셔서 질병을 치유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여종이 치유를 받았고(창 20:17),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의 문둥병이 치료되었으며(민 12:1-16), 아론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퍼진 염병이 그쳤다(민 16:41-50).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며(왕상 17:17-24), 욥의 기도로 악창이 치료되었고(욥 42:10),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낫고 생명까지 연장되었다(왕하 20:1-7).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연주함으로 치유되었다(삼상

143) 김신명, *치유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성결 문화사, 1995), 45.
144) 박형렬, *치유 목회학* (서울: 치유, 1994), 219.

16:14-23). 또한 예언자들은 병이 든 자에게 예언(사 38:1)이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적 화해를 통해 치유했고(왕상 13:6), 호세아는 사람들이 악해서 역경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회복사건은 치유 능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겔 37장).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의 치유복음 선포(사 53장)는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출 15:26)되시는 하나님의 실제성 있는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145]

나. 신약성서에 나타난 치유

(1)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146]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행위는 구원사업의 핵심이었던 하나님나라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를 알고자 했을 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4-5)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보낸 이유임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147]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질병은 다양하며 또한 고치신 동기나 방법 그리고 치유의 결과 등은 세상의 어떤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병의 대의사가 되심을 알 수 있다(마 8:15-17). 예수님은 말씀으로 21번, 손으로 13번, 설교나 가르침으로 9번, 귀신을 쫓아내시며 8번 치유하셨다.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한 경우가 8번, 직접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6번, 긍휼함으로 4번 치유하셨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적어도 한번은 치유하셨다.[148] 켈시(Morton T. Kelsey)는 복음서 내용의 7분의 1정도의 분량이 예수의 치유사역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좀더

---

145) 박형렬, *통전적인 치유목회학* (서울: 나임, 1994), 222.
146)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서울: 좁은 문, 1995), 53.
147) 정태기, *아픔 · 상담 ·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3), 166.
148) Murren, *치유하는 교회*, 235.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사 복음서 전체 3,779절 중 498절을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기술하는데 사용하였다.[149] 주님은 사회적 치유까지 확장하셨다. 누가복음 5장 27-28절을 보면 세리라는 직업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레위를 불러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이렇듯 주님의 치유는 다양하게 환자들마다 환경과 환자에 맞는 치유로 그들의 사정과 문제 핵심을 살펴 정확한 병의 진단과 알맞은 치유방법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몸과 마음이 고난에 처해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생애였다.[150]

(2) 사도들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찾아온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다(눅 9:1-6). 제자들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최대교회는 치유를 통한 기사와 표적이 전형적인 특징이었고, 병의 치유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151]

사도들의 치유는 베드로, 빌립,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행 3:7), 병자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행 5:15-16).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낫게 했다(행 8:5-8).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다(행 14:10).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축사를 행했다(행 19:11-12). 또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치유하기도 했다(행 28:8-9).

초대교회 사도들의 치유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행 2:33; 2:46-47; 4:8-12; 5:14; 8:6-8). 이같은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극적으로 증거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새로운 운동의 거센 물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152]

---

162) Morton T, Kelsey, *Encounter with God*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2), 242-245.

150)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44-45.

151) William Barclay, *예수의 치유 이적 해설 (And He Had Compssion)*, 김득중, 김영봉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4), 241-242.

152) F. B. Str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배상길 역 (서울: 나단, 1992), 48-49.

4. 치유의 목적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져 주어라"(마 10:7-8)라는 말씀처럼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완성에 있다. 그래서 치유목회는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의 백성으로서 언약적 삶을 살게 하는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며, 성경전체를 가로지르는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153]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병든 자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154] 그러므로 치유의 목적은 신자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새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155]. 그리고 치유의 목표는 전인 건강(wholistic health)이다. 이 말은 한 인간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차원과 대인 관계적 차원 및 대사회적 차원, 자연 환경적 차원에서까지도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56] 또한 영과 마음과 신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온전함'(wholeness)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온전함'이란, 마치 하나의 상수리 씨앗이 싹터서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과 비슷하다.[157]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이에는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할 목표지를 알고 있는 사령탑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158] 그러므로 치유의 목적은 전인건강,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다.

제 2 절 치유목회에 대한 이해

치유적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목회와 목회의 치유적 기능을 살펴보고,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치유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153) 박형렬, "전인 치유 사역의 현장과 실제",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제 20권 (1997), 268.
154)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45.
155) 구요한, *내적 치유 이렇게 하라*, 44.
156) Howard Clinebell, *Well Being* (San Francisco: Harper, 1991), 7-9.
157) Clinebell, *Well Being*, 10.
158) John A. Sanford, *Healing and Wholeness* (N.Y.: Paulist Press, 1977), 16.

1. 목회의 정의

목사라는 용어는 '먹이다'(to feed), '보호한다'(to protect)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포이멘'(ποιμήν)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바로 '목자'(shepherd)를 의미한다. 헬라어 '포이멘'의 동사 '포이마이노'(ποιμαίνω)는 신약 성경에서 7회 사용되고 있는데 4번은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마 2:6, 계 2:27; 12:5; 19:15), 3번은 '가축을 치다, 양을 치다'로 쓰였다(요 21:16, 행 20:28, 벧전 5:2). 또한 목사(pastor)란 용어는 라틴어 'pastores'에서 푸른 풀을 연상시키는 '초장'(pasture)에서 유래됐다.[159] 목사라는 칭호는 신약에 꼭 한번 기록되었으나(엡 4:11) 일반적으로 목자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목자란 '그리스도의 무리를 먹이는 영적인 목자'를 목사로 칭하여 사용하고 있다.[160]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삶과 영혼구원을 위해 돌보고 먹이며 싸매 주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역이다.[161]

2. 목회의 치유적 기능

목회의 기능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마다 문화적, 심리적, 종교적, 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그 기능이 결정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목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162] 그것은 치유 기능, 유지 기능, 지도 기능, 조정 기능이다. 그 가운데 치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회에서 "치유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의미한다."[163] 이러한 관점에서 힐트너(Seward Hiltner)는 치유 목회를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 첫 단계는 환자의 병을 시인하고 수용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환자의 감정에 동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둘째 단계로는 전인적인 회복에 초점을 두어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서 생의 재발견, 인격의 재체계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도록 하며, 전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회한다. 마지막 단계는, 종교적인 깊이의 차

---

159) Ralph G. Turmbull,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292-293.
160) 김득용, *현대목회 실천론 신강* (서울: 총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0), 152.
161) 박형렬, *통전적 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나임, 1995), 47.
162) 김득용, 117-125
163) Ibid., 119.

원에서 시작하여 종교적인 회복으로 종결하는 목회이다.[164]

결국 치유목회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병을 근원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3. 치유목회의 중요성

가.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

현대인은 산업의 발달로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받을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병들어가고 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재산도 잃고 친구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외로움의 상처를 앓고 있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다.[165]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대신 물질, 권력, 명예가 자리 잡고 있다. 위기를 맞아 병들어 있는 인간을 해부해보면 그 마음 한가운데서 상처를 일으키는 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166]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한다. 학교에서부터 직장과 사회전반에 걸쳐 경쟁에 뒤지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의 목표는 성공과 재물이다. 인간은 성공과 재물을 얻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인은 안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매슬로우(Maslow)에 의하면,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어지는 것은 결국 병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훈련과 수련이 없는 현대인은 대부분 병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이다.[167] 이런 사회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경증에 걸리기 쉽고, 신경증은 영적, 신체적 이상현상을 불러오게 된다.[168] 그러므로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치유목회가 반드시 요청된다.

나. 내적 치유의 필요성

내적 치유는 속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즉 마음과 감정과 기억과 꿈을 치유하는 것이다. 증오심, 거부감, 자기연민, 우울증, 죄의식,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으로부터 해방하는 과정이다.[169] 윔버(John Wimber)는 "내적 치유란, 손상된 감정 등으로 고통

---

164) 오성춘, "치유목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기독교 사상*, 1984년 1월호, 58.
165) 정태기, *아픔 · 상담 · 치유*, 155-156.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물질에 지배당하면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이웃을 잃어버렸다.
166) Ibid., 157.
167) Ibid., 158-159.
168) Ibid., 155-156.

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죄와 용서와 정서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서 곤경에 빠져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일정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170]이라고 말했다. 크래프트(Charles Craft)는 "내적 치유란, 원한, 거부감,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죄책감, 무가치함 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171] 라고 했다. 그러므로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삶에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힌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준다.[172] 또한 다른 사람, 부모 혹은 세상의 모순 탓으로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서운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한다. 또 잠재되어 있는 분노는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173] 또한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깊은 마음 속은 하나님에 대해 심히 부정적이다.[174] 그러므로 내적 치유는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성경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하셨다.[175]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필수적이다.

다. 치유목회와 교회성장

치유목회는 교인 개개인의 신앙성장과 성숙된 삶의 균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가져오며, 외부적으로는 건전한 교회성장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주적인 교회가 확장되는 활력소가 된다. 현대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물질주의와 현실적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여서 이 땅의 것으로는 진정

---

169) Betty Tapscott, *내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평강 (Inner Healing Healing Memories)*, 구자원 역 (서울: 은혜 출판사, 1998), 21.
170) 김신명, *치유목회와 교회성장*, 177.
171) Charles H. Craft,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Defeating Dark Angels)*, 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188.
172) 주서택, 심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 출판사, 1997), 33. 극단적인 대인관계의 모습은 지나친 지배의 모습이나 지나친 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73) Ibid., 33-34.
174) Ibid., 35.
175) 윤현철, 376.

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 도리어 사람들은 불안과 고독, 소외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치유목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을 발견시켜 주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한편 치유은사는 복음 전파와 병행되어 교회성장을 위해 활용될 때 치유목회는 더욱 활성화된다. 교회 성장학자 와그너(Peter Wagner)는 "하나님의 신유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176]

> 신유의 은사는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계시함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한 사죄의 확신과 성경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형태로 변화시켜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을 주고 교회성장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은사라고 했다.[177]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성장요인 중에 치유사역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 3 절 치유목회의 방법들

치유목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가운데 구체적인 방법들로 예배, 소그룹, 상담, 팀 사역을 통한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배를 통한 치유

터너(John Turner)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수록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실 조건이 생기게 된다"[178]고 말했다. 그러므로 치유받기 위한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가장 현저히 일어나는 때는 예배드릴 때이다.[179]

---

176)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60.
177) Ibid., 261.
178) John Turner, *치유하는 교회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서울: 광림 출판사, 1986), 91.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으로 살다가 예배에 참석한다. 주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권능의 손으로 역사를 하여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심령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신다.[180] 그래서 터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예배 의식 속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 예배를 드릴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외로움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달을 때 죄책감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희망이 싹터 슬픔이 치유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실망한 영혼이 치유된다. 또한 하나님이 인생의 사소한 일 조차도 처리해 주실 만큼 위대하신 분임을 깨달을 때 근심이 치유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인식할 때 자기비하가 치유되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치유된다.[181]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영적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그 만큼 치유의 효과는 커진다. 이제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설교와 성례전, 기도와 찬양, 회개(고백) 등을 통한 치유의 방법들을 알아본다.

가. 설교를 통한 치유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롬 10:17) 말씀은 치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회복과 성장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말씀(설교)만으로도 능력을 나타내셨고(마 9:6-7, 요 5:8-9),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다. 오늘날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182] 그러므로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재확인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자기 안의 모난 부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듬어지며, 죄용서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치유설교는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

179)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96.
180)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271.
181) Turner, 91.
182) 정태기, *아픔 · 상담 · 치유*, 153.

돕는다. 하나님과의 이런 조우가 일어나면 내면의 치유를 통한 삶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183]

미국 의학연구팀의 한 보고에서 신체적인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한 환자들 가운데 50~70%가 영적인 이상증세를 나타내어 의사의 도움보다는 목사의 도움이 훨씬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심리학자이며 치료자인 융(Carl G. Jung)에 의하면, 그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 거의 모두가 영적인 장애가 병의 근원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환자의 영적인 장애를 바르게 도와 줄 때,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병의 상호관계를 목회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교를 통해 치유해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는다.[184] 그러므로 설교는 인간의 영과 정신과 신체의 뒤틀려진 관계를 바로 잡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다.[185]

나. 성례전을 통한 치유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과 더불어 성례전을 주셨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신다. 성례전에는 세(침)례와 성찬식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성례전은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 성례전을 통한 치유의 효과는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구속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186]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갖게 한다.[187] 셋째, 성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한다.[188] 두 성례전을 통한 치유는 회심과 더불어 영적인 치유와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준다.

(1) 세(침)례를 통한 치유

세(침)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

183)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15.
184) 정태기, *아픔 · 상담 · 치유*, 154-155
185) Ibid., 168.
186) Turner, *치유하는 교회*, 106.
187)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서울: 목회신학 연구원, 1993), 242.
188) WCC, ed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III, Eucharist II, 19. (Geneva: WCC Press, 1982).

것"(롬 6:3-5)이다. 칼빈은 세(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강조한다.

> "세(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에 접붙이려 하신다. 바른 믿음으로 세(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느끼며, 성령이 새 생명을 주시는 사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189]

세(침)례를 통하여 그 치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롬 6:4) 셋째,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누리게 해야 한다(롬 6:5).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한다(롬 6:22).

(2) 성찬식을 통한 치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성례전적 어린양이 되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성찬예식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감동과 뜨거움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mysterial reconciliation)이 일어난다.[190] 그래서 매독스(Morris Maddocks)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분의 은혜를 받게 하는 치유 예식이다. 이 예식이 진행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쌈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돌릴 때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신다."[191]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가장 풍성한 성례전이다. 성찬예식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흘려주신 피 가운데 들어 있는 용서의 체험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초점이 있다. 성찬예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제공한다.[192] 그러므로 칼빈은 성례전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 표징에 의해 확인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정을 서로 증거하는 것"[193]이라고 정의했다. 이점에서 세(침)례와 같이 새로움, 회복, 온전함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불러일으킨

---

18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homas McNeill ed. (Philadephia: Westminster Press, 1960), Ⅳ.15.5.
190) Turner, *치유하는 교회*, 106.
191) Morris Maddocks, *The Christian Healing Ministry* (London: SPCK, 1990), 113.
192)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190.
193) Calvin, Ⅳ.14. 1 & 3.

다.[194] 그러므로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통해 치유되며, 죄의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포를 통해 치유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흘리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자신이 부적합하다는데서 치유되며,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함을 믿을 때 고독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195] 그러므로 세(침)례 받고서 회개를 통한 속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찬으로서 그때 그때의 죄들을 씻을 수 있어서 중생과 죄사함의 체험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영적 건강, 영의 치유가 이 성례로 이루어지게 된다.[196]

다. 찬양을 통한 치유

찬양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가게 하면서 치유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 리프블래드(Bruce H. Leafblad)는 "찬양이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표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경축적인 예배"[197]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와 사랑, 섬김으로 표현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드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198] 또한 찬송은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여 구원한다. 사울 왕에게 임한 악신을 치료했다(삼상 16:23).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미함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으며 쇠사슬이 풀어졌다(행 16:25-26). 이것은 찬양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모습들이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이며(출 15:21, 마 21:16),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얻고(시 28:7, 사 61:3), 기적이 일어나며(대하 20:14-22, 행 16:25-26), 구원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행 2:47) 효과가 있다.[199] 그래서 루터는 회중적인 찬양을 부흥시키려고 애썼고, 찬양을 기쁨의 원천은 물론 교화의 한 방법으로 보았다.[200] 그는 "찬양은 마귀를 몰아내고 회중을 즐

---

194) 위성교, 190-191
195) Turner, 109.
196) Calvin, Ⅳ.17. 4.
197)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173.
198) Bob Sorge,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Exploring Worship)*, 최혁 역 (서울: 두란노, 1997), 52-53.
199) 김남수, 178.
200) 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Christian Worship)*, 정진황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3), 116.

겁게 하며, 모든 진노, 음란, 오만 및 그와 같은 것들을 몰아낸다. 찬양할 때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나를 새롭게 하고, 무서운 재난에서 구출한다"[201]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배시간에 찬양을 강조하는 것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 기도를 통한 치유

예배를 통한 치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초대 교회의 예배에서부터 말씀, 성찬과 함께 중요시되었다. 예배를 통한 치유에서 기도의 요소는 가장 실제적이요 구체적인 치유 행위가 된다. 기도는 일반 심리 치료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독특한 신앙치료 방법이다.[202] 그러므로 상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독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야 한다.[203]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204] 특별히 맥너트(Francis MacNutt)는 "짧은 기도보다 '젖어들어가는 기도', 즉 짧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가 치유 효과가 크다"[205]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치유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206] 치유를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즉 일대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거나 동료들이 환자를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 팀을 이루어 모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207]

마. 회개(고백)를 통한 치유

회개를 통한 치유는 원래 기도에 속하지만, 상처 준 원인이나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에게서 죄를 거두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

---

201) Ronald Bainton, *Here I Stand*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341.
202) William E. Hulme, *Pastoral Care Come of Age* (Nashiville: Abingdon, 1970), 151.
203) 크리스티 김,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서울: 규장 문화사, 2003), 81.
204) Ibid., 85.
205) Francis Manhunt, *The Prayer That Heal* (Notre Dame, In : Ave Maria, 1981), 57.
206) Edward P. Wimberly,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erminster, 1990), 11.
207) Francis MacNutt, *치유의 능력 (The Power to Heal)*, 조원길 역 (서울: 전망사, 1979), 220

어놓는 고백이다. 죄의 회개는 고백자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치유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성서 전체는 사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행위이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첩경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요일 1:9). 시편 기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시 32:3-4)고 고백했다. 죄를 품고 있을 때는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누름을 느끼며 답답한 상태였으나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기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시 32:5-7)라고 고백했다. 결국 죄를 고백함으로써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이나 상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모든 억압과 무거운 짐에서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2. 소그룹 모임을 통한 치유

예배같은 대중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서로 교제하며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 성장을 이루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소그룹은 이 점을 보완해 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전체가 모이기를 힘쓰면서도 가정 집회를 병행하였다.[208] 소그룹 모임을 통한 치유방법으로 성경공부 모임과 QT 나눔을 제시한다.

가. 성경공부 모임을 통한 치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모임인 성경 공부반이나 셀(구역/속회)을 활용하면, 대중적인 치유 방법과 다른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인 문제의 치유를 가져온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와 결단, 주의 인도하심, 위로와 격려,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 시험에서의 승리, 영적 분별력, 새로운 삶의 능력과 아울러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된다.[209]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과 권위를 믿을 때 말씀을 통한 치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사 55:11). 성령님은 삶에

---

208) 이연길, *소그룹 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총회 출판국, 1990), 33.
209) L. A. Margaret, *효과적인 성경공부*, 정재영 역 (서울: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1986), 9.

서 느끼는 고통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210] 두 번째 소그룹 성경공부는 인간관계의 치유를 가져다 준다. 존스(Martin Lloyd Jones)는 "성경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이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알아야 할 것을 밝혀준다"[211]고 말했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그룹원들이 성경을 읽고 상황을 찾아내며 그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삶의 정황에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결론을 맺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그룹원들 상호간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며, 인격의 변화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212] 그러므로 소그룹의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213] 모임을 가질수록 점점 자기를 개방하면서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으로 묶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성령이 자신의 아픔이나 문제를 고백하게 하며 간증하게 함으로써 모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214]

나. QT 나눔을 통한 치유

소그룹 성경 공부모임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는 소그룹에서 기대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배창돈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딤전 4:8),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고(계 14:13), 시험을 이기는(창 39:7-9) 유익을 가져온다"[215] 라고 말했다. 성경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개인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며, 아직까지 내 생활 속에서 고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216] 토르니에는 "죄로 인하여 파괴된

---

210) Waylon O. Ward, *상담성경공부 (The Bible in Counseling)*, 최영경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7), 29.
211) Jay Edward Adams, *성서적 상담법 (Critical Stages of Biblical Counseling)*, 이종태 역 (서울: 월간 목회사, 1977), 15-16.
212) 이연길, *소그룹 연구의 이론과 방법*, 50.
21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245.
214) Ibid., 246-247.
215) 배창돈, *큐티를 하고 싶습니까?* (서울: 예루살렘, 1993), 29-31.
216) Paul Tournier, *인간 치유의 길 (The Healing of Person)*, 황창규 역 (서울: 보이스사, 1977), 85-86.

인간성은 말씀에 의하여 회복된다"[217]고 하였다. 그러므로 QT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실제 생활에서 동행하기 위한 교제시간이기[218] 때문에 QT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영성 훈련이다. 그러므로 "QT는 하나님의 경향, 즉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경향싸움이며, 치유의 길이다."[219] QT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절감, 분노, 열등감, 죄책감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굶주림의 상처를 치유한다.[220] 그리고 QT를 통한 치유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들, 깨달은 말씀들 그리고 적용과 체험, 간증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한다. QT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고 치유 받았다고 고백한다.[221] 그러므로 QT를 하면 개인적으로 치유 받고, 나눔을 통해 치유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3. 목회상담을 통한 치유

예배나 소그룹을 통해서도 치유되지 못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치유방법이 목회상담이다. 특별히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과 인격에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심방을 통한 상담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을 통해 목회자는 영적,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를 지닌 개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22] 클라인벨(Howrerd J. Clinebell)은 목회자가 상담자 또는 치유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첫째, 정신병자나 정신요법자들이 일반 상담자를 두려워하는 반면 목사에 대해서는 더 신뢰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오래 전부터 수립되어 온 목사와의 안정된 기존 관계는 상담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다른 상담이나 정신요법에 대

---

217) Eduard Thruneysen, *목회학 실천론 (Seelsorge im Vollzug)*, 박근원 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2), 196.
218)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서울: 두란노, 1991), 10.
219)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회복, 184.
220) Ibid, 185.
221) 라채광, 26.
222) Kelsey, *치유와 기독교*, 363.

> 하여 가정과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넷째, 죽음, 질병, 사고 등 위기에 가장 약해지기 쉬운 경우 쉽게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상담을 약속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223]

이런 목회상담의 이점을 가진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상담을 통해 교인들을 치유할 수 있다.

가. 구원상담을 통한 치유

구원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특별히 예수의 치유는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치유 사역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생명을 건지는 것이요 둘째, 병을 고치는 것이요 셋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의 개념이 치유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치료된 완전한 존재'라 부를 수 있다. 구원 상담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상담자를 통해서 훼손되고 왜곡된 내담자를 그 문제와 곤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는 것이며[224] 그러므로 구원상담은 마음과 생활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있다(요 1:12).

나. 내적 치유 상담을 통한 치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죄책감, 나쁜 습관 등에 시달리고 있든지, 비판적인고 부정적인 신자,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자, 열심이 없는 신자 등 도무지 신앙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성령의 인도로서 하는 목회 상담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히 치유되기 힘들다. 치유상담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225]

> 첫째,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질병의 현상과 증세를 잘 진단해야 한다. 둘째, 그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넷째, 계속 양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

223) Howard J Clinebell, *현대목회상담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95), 50.
224) Edward E. Thronton, *The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38.
225)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38.

> 충성하도록 해야 한다. 내적치유 상담시에 상담자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고통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다.[226]

그러므로 내적 치유 상담은 과거에 입은 쓰라린 기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며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4. 팀 사역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방법 중에서 팀 사역을 통한 치유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이루어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옥덴(Greg Ogden)은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역자들이다"[227]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돕는 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이며, 평신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깨닫게 되고,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어느 부분에 적합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228]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약 5:14)"고 치유에서의 팀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 중에는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활용해야 한다. 팀 사역의 구성원은 목회자, 의사, 약사, 간호사, 사회 사업가, 법률가, 기업가, 장의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환자와 관련하여 치유해야할 부분들이 육체의 질병, 심리적인 불안, 신앙적 죄책감, 가정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질병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치유사역은 팀으로 수행하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들을 전문성별로 구조화해야 한다. 육체의 질병을 담당할 팀, 가정 문제를 담당할 팀, 신앙지도 상담 팀 등으로 구분하고,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모든 팀들을 활용하여 전 교회가 치유에 참여하는 치유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229]

---

226) Mike Flynn & Doug Greg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Inner Healing)*, 오정현 역 (서울: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1999), 24-26.
227)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1998), 19.
228) Larry Gilbert, *팀 사역(Team Ministry)*, 채수범, 황석호 공역 (서울: 프리셉트, 1995), 26.
229) 오성춘, "치유목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65.

제 4 장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에 대한 이해

이 장에서는 설교의 일반적인 의미와 목적을 먼저 살펴본 다음, 치유적 설교의 정의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치유적 설교 그리고 치유적 설교의 목적과 기본 원리 역사와 필요성, 기능과 효과, 치유적 설교의 문제점까지를 모두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설교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는 설교에 대한 원어적 의미와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서 설교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설교의 본질

가. 설교에 대한 용어

설교라는 말은 '케루세인'(Kerysseín)이라는 말로 '선포하다' 혹은 '전달하다'로 번역된다. 이 단어에서 '케뤼그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230] 그리고 설교에 해당되는 단어로는 라틴어의 'sermo' 가 있다. 이 말은 본래 담화나 연설과 같은 뜻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교회에서 설교 형식을 갖춘 연설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설교하는 행위를 뜻하는 영어 표현인 'preaching'은 헬라어의 '선포하다'라는 단어의 번역이다. 영어의 'preach'는 라틴어의 'praedico'에서 나온 말로 '선포하다', '찬미하다', '예언하다'의 뜻을 지닌다. 넓게는 예언을 말하거나 신적 계시인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을 지닌다.[231]

---

230)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 J. Northcutt, *설교 방법론 (Steps to the Sermon)*, 이정희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89), 18-19.
231) 정성구,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4), 34-37.

나. 설교의 정의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설교는 사람에 의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했고, 패티슨(T. Harwood Pattison)은 "설교란 설득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전달하는 것"으로 말했다. 블랙우드(Andrew W. Blackwood)는 "설교란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혹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며, 오늘의 생활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232] 그리고 바르트(Karl Barth)는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설교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설교자로 하여금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회중에게 그의 이름으로 말하게끔 하신다. 그의 저서 "교회 교의학"에서 "복음의 선포란 왕이 전령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안에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설교자가 그 당시의 언어로 그 시대의 회중을 향하여 설교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다.[233]

바우만(Daniel Baumann)은 "설교는 행위의 변화를 목표로 한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234]이라 했고, 스타트(John Stott)는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235]이라 했다. 파이퍼(John Piper)는 "설교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자를 통한 복음의 전달"[236]이라 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청중들의 구원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2. 설교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피조물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237]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이루기를 원하는 결과이다.[238] 그러므로

---

232)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 J. Northcutt, 20.
233)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1), 18-19.
234) 정장복, *한국 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71.
235) John R. W. Stott, *현대 교회와 설교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02), 12.
236) John Piper,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6), 27.
237) Piper, 29.
238)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 J. Northcutt, 28-29.

설교자는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설교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준비과정까지, 나아가서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은 설교와 강의 차이를 "강의는 주로 분명히 설명되어야 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설교는 주로 성취되어야 하는 목적에 관심이 있다"[239] 고 말했다. 알렌(Arther Allen)은 자신의 저서인 '설교의 기술'에서 설교의 목적을 "진리를 보다 명료하게, 의무를 보다 촉박하게 만들고, 지성을 계몽하며, 양심을 일깨우며, 마음을 감동시키며,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적 삶을 살도록 설득하는 것"[240]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우만(Baumann)은 설교의 목적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241]

가. 복음선포적 설교(Kerygmatic Preaching)

케리그마적 설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회개케 하여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안겨다 주는 설교이다.[242] 케리그마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원의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즉, 미래와 현실의 일체감을 주는 설교이며, 반드시 성경에 의존하는 설교이다.[243] 그러므로 복음선포적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세(침)례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 조준되어야 한다.[244]

브라이슨(Harold Bryson)과 테일러(James Taylor)는 예수께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 14-15)고 하셨고, 또 사도들이나 신약성경의 설교자들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초청이 있었다."[245]고 말했다. 그러나 참된 복음설교를 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식과 높임과 임재를 수반해야 한다.[246]

---

239) Harry Emerson Fosdick, *The Living of These Day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6), 99.
240) 김창수, *설교자여, 시대를 살리는 설교를 하라* (서울: 엘맨, 2002), 46.
241) J. Daniel Baumann, *현대 설교학 입문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엠마오, 1994), 286-309
242) Ibid., 289-290
243) 김창수, 71.
244) Bill D. Whittaker, *설교 리모델링 (Preparing to Preach)*, 김광석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245.
245) Harold T. Bryson, James C. Taylor,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Building Sermon to Meet People's Need)*, 정성영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4), 92.
246) Clarence Edward Macartney, *원고 없는 설교 (Preaching Without Notes)*, 박세환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8), 32.

나. 교리적 설교(Didactic Preaching)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을 교회의 평신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리적 설교는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교리의 주장없이 어떻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247] 교리적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딤후 3:16) 돕기 위한 것이다. 교리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특정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248]

바우만은 "교리적 설교란, 사람과 관계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강단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249]이라 정의했다. 교리적 설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본질적으로 교육적이다. 둘째, 반드시 실천적이어야 한다. 셋째,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브룩스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교리를 설교하라. 사람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라"[250] 고 말했다. 넷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접근을 피하고, 현대의 필요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보일 때 흥미를 갖게 된다.[251]

다. 치유적 설교(Therapeutic Preaching)

치유적 설교는 상처로 인한 위기와 고통가운데 있는 회중들을 성경으로 안내하여 치유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설교이다.[252]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또한 해결되어야할 필요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설교해야 한다. 설교가 단순히 선언이나 명령이나 책망이 아니라, 청중들이 마음을 열고 상담의 자리, 대화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설교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 주셨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교하실 때, 그 여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 내셨다.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 오라!"(요 4:16)는 말씀 속에는 상처를 치료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의도가 들어

---

247) 김창수, *설교자여, 시대를 살리는 설교를 하라*, 72.
248) Whittaker, 261.
249) Baumann, 296.
250) Phillip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9), 128-129.
251) Baumann, 297-299.
252) Whittaker, 283-284.

있다. 바우만은 "설교자가 삶의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경우에 청중들에게 상담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253]고 말했다. 그러므로 치유적 설교자는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심리적인 분야의 지식을 갖춘 후, 문제들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주고 조명해 주는 복음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254]

라. 사회적-예언자적 설교(Social-Prophetic Preaching)

약칭 예언자적 설교란, 그리스도의 속죄를 오늘날 인간과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와 연관시켜 하는 설교이다.[255] 또한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인종문제, 노동문제, 인권문제, 전쟁문제, 부정, 불의, 부패성 등에 대해서 교회들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설교이다.[256] 이 사회적-예언자적 설교는 설교자가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하는 설교이다.

> 첫째, 성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눅 10:27, 요일 2:10-3:18, 마 25장). 둘째,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술, 담배, 성 문제, 이혼, 도박, 문학, 고아, 노인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금도 빈곤, 실업, 핵전쟁, 테러와의 전쟁, 정신질환, 인구폭발, 생태계 파괴, 자살, 범죄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우리의 삶이 사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 주거, 교통, 식량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57]

그러므로 설교자는 사회적-예언자적 설교를 통하여 현실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의 답변을 청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치유적 설교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는 치유적 설교의 정의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치유적 설교의 배경, 그리고 치유적 설교의 목적과 그 기본 원리를 살펴 볼 것이다.

---

253) Baumann, 301
254) 김창수, *설교자여, 시대를 살리는 설교를 하라*, 72.
255) Ibid., 71.
256) Baumann, 302-303.
257) Ibid., 304-305.

1. 치유적 설교의 정의

치유적 설교의 대가 포스딕(Fosdick)은 "삶의 정황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제시해 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설교를 하려고 했다".[258]

> 포스딕은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혼란시키는 개인적, 사회적인 실제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고, 사람들이 설교를 통하여 보다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보다 더 숭고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것이 설교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다.[259]

그러므로 치유적(목양적) 설교는 청중 개개인의 문제 해결에 표적을 둔 설교이며, 강단에서 하는 목양적 상담이다.[260] 포스딕은 "모든 설교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난제들, 무거운 양심, 혼란된 삶 등 인생의 어려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261]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그룹 카운슬링(group counseling)[262]으로 생각하여 설교를 통하여 회중 전체의 그룹을 치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263]고 했다. 계지영은 설교자의 특징을 통해 치유적 설교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신을 목양자로 이해하는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주로 목양적(pastoral), 상황적(life-situation), 치유적(therapeutic), 문제해결 위주(problem-solving), 또는 제사장적인(priestly) 설교를 하게 된다. 목양적 설교의 목적은 회중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회중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있다. 그

---

258) 김형준, "해리 에머슨 포스딕을 중심으로 한 상담설교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예배 · 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374-375.

259) Halford E. Luccock, *In the Minister's Worship* (New York: Abingdon Cokesbury Press, 1944), 51.

260) G. Lee Ramsey, Jr, *Care-Full Preaching : From Sermon to Caring Community* (St. Louis: Chalice Press, 2000), 14.

261) Harry Emerson Fosdick, "What is the Matter with Preaching?", *Harper's Magazine*, July 1928, 134. cf. LeRoy H. Aden and Robert G. Hughes, *Preaching God's Compass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30.

262) Harry Emerson Fosdick, "Personal Counseling and Preaching", *Pastoral Psychology* 3, no 22 (March 1952), 11-15. ref. Ramsey, 14.

263)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23.

> 러므로 목양적 설교에서는 회중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매우 중요시하며 설교를 본문으로부터가 아니라 회중들의 상황으로부터 출발한다.[264]

김만풍은 "치유설교란,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회중의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상처를 회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기능과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다"[265] 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유설교는 예수님이 하셨다. 선포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의 아픔을 치유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2. 치유적 설교의 성경적 배경

가. 구약성서에서의 치유적 설교

치유적 설교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부터 볼 수 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 첫 치유설교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였으며,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되었다.[266] 하나님은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들이 당면한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서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267]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열납지 않으시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그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아벨로 돌로 쳐죽였다. 그 결과 그는 낯을 들지 못하고 지냈다(창 4:7).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내부에 일어나는 상한 감정의 상처를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중대성을 말씀하셨다.[268] 가인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그 형벌의 중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였다. 특히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리라"고 호소하자, 하나님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갚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상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셨다(창 4:15). 이 외에도 상대방의 가장 민감한 약점을 공격했기 때문에 학대받아 도망쳐 나온 하갈을 치유하사 관계를

---

264) 계지영, 22.
265)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챤 서적, 1995), 20.
266) 김경수, *치유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4), 21.
267) 김만풍, *상담설교*, 38.
268) 강병도, "창세기", *호크마 종합주석* (서울: 기독 지혜사, 1989), 185.

회복시키신 치유설교(창 16:10-16),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문제를 해결받은 치유설교(창 32:24-32),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이세벨 왕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혼자 광야로 들어가 좌절하여 우울증에 걸려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치유설교(열상 19:1-8) 등등이 있다.

나. 신약성서에서의 치유적 설교

신약성경은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269] 신약에서 치유설교는 먼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 예수님의 치유는 몸의 치유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과 사탄의 박멸이라는 구속점인 관점에서 전인치유를 하셨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의 육적인 치유 후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14)"고 하심으로 육체적 치유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1-12)"고 하심으로 그의 육체적 질병의 핵심이 영적인 것임을 시사한 뒤에 육체적 치유를 행하셨다. 그 외에도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3:1-15), 간음한 여자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으며(요 8:1-11), 세리장 삭캐오를 구원해 주셨다(눅19: 1-10). 이처럼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치유설교자로서 본을 보여 주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회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치유설교를 하셨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만나시고, 같은 진리를 각기 그 사람들에게 맞게 전하시면서 치유사역과 함께 치유설교를 하셨다.[270]

다음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바울 등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교인들 앞에서 읽혀질 때 설교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로마서는 구원론, 에베소서는 부부관계, 고린도 전서는 인간관계,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위로 등 많은 주제들이 있다. 이 서신들이 치유설교가 되어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위기, 갈등과 상처들을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었다.[271]

---

269) 신성종, "신약성경 속의 치유설교" *월간 목회*, 2002년 3월호, 61.
270) 김경수, *치유설교*, 22.
271) Ibid., 23-24

3. 치유적 설교의 목적

치유적 설교의 목적은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있다. 즉, 청중이 죄에서, 악한 생각에서 그리고 사악한 행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상처받은 자들을 도우셨으며, 회당에서는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눅 4:18-19) 고난받은 자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또한 바울과 요한 역시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다.[272] 브라이슨(Harold T. Bryson)과 테일러(James C. Taylor)는 이렇게 말한다.

> 청중들은 무수한 문제들 즉 죄책감, 세월의 무상함,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두려움, 걱정, 우울증, 질병, 재정적 손실, 자기비하, 외로움, 권태, 강박감, 스트레스성 우울증, 불면증, 과대망상, 정신적인 분열, 낙심과 좌절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청중들이 그리스도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치유설교를 해야 한다.

김선도는 "목회자는 상처받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묘약'으로 치유하는 치유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렌트(Leg Grent)와 리드(John Reed)는 "오늘의 설교자들이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게 설교함으로써 설교를 통한 치유의 효과를 상실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의 치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다.[273]

4. 치유적 설교의 기본 원리

치유적 설교에서 강조해야 하고 설교자가 염두해 두어야할 원리로 은혜의 원리, 사랑, 용서, 성령 그리고 동질감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은혜의 원리

설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원리는 은혜다. 은혜는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말이다.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274] 씨맨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

---

272) 김경수, 33.
273) Ibid., 33-34.
274) Philip Yancey,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윤종석 역 (서울: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2000), 14.

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요인을 은혜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 둘째,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데 있다. 또한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읽고 듣고 믿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275]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죄악에 맞서는 치유의 힘으로 제시하고 있다.[276] 또한 하나님은 은혜라는 마스크를 쓰신 얼굴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 그리고 실수를 대면해 주신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가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시며, 그의 행하시는 행위 자체이시다.[277]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할 때 은혜가 안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치유가 일어난다.[278] 설교자가 먼저 은혜 충만하면서 은혜를 강조해야 한다.

나. 사랑의 원리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하에서도 그것을 붙잡는다면 누구든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루터(Martin Luther)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장 악한 불의와 가장 슬픈 비극을 담당하신 후 그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며 더 나아가서 은혜와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279] 사람은 사랑 없이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280] 오늘날 설교가 많이 선포되지만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나우웬(Henri Nouwen)은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강

---

275) David Seamends, "Perfectionism: Fraught with Fruits of Self-Destruction", *In Christian Today* (April 10, 1981), 24-25
276) Yansey, 218.
277)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108-109.
278) 지용수, "능력있는 치유목회", *교회발전을 위한 치유개발*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262.
279) Ibid., 48-49.
280)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217.

조한다. 그의 책 "The Beloved Son"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다.[281]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적 설교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전할 때 치유 효력이 나타난다.[282] 그러므로 설교자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엡 4:15)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설교자의 모든 행동의 우물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상처를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283] 결국 치유설교는 사랑으로 전할 때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의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

다. 용서의 원리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상하여 주시리라"(막 11:25-25).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용서는 가장 좋은 치유약이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를 누릴[284]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그러나 용서하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샬롬을 느끼게 된다.[285] 용서(forgive)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주다' (give)라는 말이 들어있다. 용서의 또 다른 말 pardon에도 donum 즉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28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선물로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치유설교에서는 용서를 강조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25)[287]고 경고하셨다.

---

281) 이연길, "말씀과 치유", *교회발전을 위한 치유개발*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195.
282) Whittaker, *설교 리모델링*, 285.
283) Warren W. Wiersbe *역동적 설교 (The Dynamics of Preaching)*, 고영민, 김기원 공역 (서울: 엘맨, 2001), 68-69.
284) 윤남옥, *날마다 치유하는 가정* (서울: 진흥, 1998), 141.
285) Ibid., 143.
286) Yansey, 100.
287) Colin Urquhart, *치유함을 받으라 (Receive your Healing)*, 이광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115.

베드로가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주라"(마 18:22)고 하셨다.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있다.[288]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내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스미디즈(Lewis Smedes)는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기이다"[289]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요, 패자가 아니라 승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290]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다.[291] 씨맨즈는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292]이라고 했고, 얀시는 "용서는 비본성적 행위다"[293]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중지하고, 용서해야 손상된 감정을 치료받을 수 있음을 치유설교를 통해서 강조해야 한다. 많은 교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성령의 원리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거나 성령이 충만하면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도 곧장 낫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상처들과 혼동된 상태들을 고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294] 마음은 무의식과 영으로 되어 있어서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오직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만이 속속들이 아시며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295] 성령은 우리 속에 위장되어 숨겨져 있던 우리의 원 모습을 바르게 조명해 주고 또 이를 드러내 준다. 성령은 우리 속의 상함과 죄를 깊이 탄식하게 하며 이에 대해 더욱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준다. 그리하여 성령은 죄로 인해 상한 영을 십자가로 인도한다. 결국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치유케 한다.[296] 그러므로 치유

---

288) Yancey, 111.
289) Lewis Smedes, *Shame and Grace* (San Francisco: Harper Collin, 1993), 136.
290) 최현주, *위장된 평화의 치유* (서울: 규장 문화사, 1996), 218.
291) Yansey, 100.
292)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44-45.
293) Yancey, 96.
294) Seamends, 19.
295) Ibid., 33.
296) Ibid., 112.

설교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중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되도록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한다.[297] 스펄젼(Spurgeon)은 "성령의 도움 없이 70년을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섯 마디를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298] 낙스(John Knox)는 "참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다"[299]라고 말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으므로[300] 설교자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벌써 내가 하는 설교와 성령이 역사하신 설교는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마. 동질감의 원리

설교자가 자신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으로 제시하면 청중들은 마음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설교자가 자기의 고민이나 실패, 신앙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은 치유를 받게 된다. "나도 이 부분에서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겁니다"라고 말하는 설교자에게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낀다.[301] 그러므로 씨맨즈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의 깊고도 세심하게 말함으로써 공감을 얻게 하라고 말한다.

>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당신은 내가 추측하고 있는 바를 말씀하시는군요. 당신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 뒷전에 감추고 있던 것을 앞으로 끌어내셨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셨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감하게 되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302]

만약 공감을 못 얻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청중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자신들이 느끼며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의 일치를 발견할 때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청중은 어떤 내용이든 쉽게 받아들인다.[303]

---

297) 김만풍, *상담설교*, 65.
298)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393.
299) John Knox, *The Integrit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57), 89.
300) Macartney, *원고 없는 설교*, 32.
301) Murren, *치유하는 교회*, 191.
302) Henri J.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58-59.
303)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은 18가지 이유* (서울: 규장, 1998), 23-25.

제 3 절 치유적 설교의 역사

정태기는 그의 책 "아픔·상담·치유"에서 "상담이나 치유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치유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304] 그러므로 치유적 설교의 역사는 "상담, 삶의 상황, 목회적, 문제 해결, 치료적 설교"라는 말로 나온 서적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00년대를 넘어서면서 목회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성도들의 삶에 맞춘 설교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들이 점차 늘어났다.[305] 먼저, 1926년도에 발간된 헨리 슬론 카핀(Henry Sloan Coffin)의 저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what to preach?)에서 "목회적 설교"(pastoral preaching)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44년에 발행한 해포드 루카크(Halford E. Luccock)의 저서 '목사의 설교 준비실에서'(in the minister's workshop)에서 "삶의 상황설교"(life-situation preaching)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51년에 펴낸 웨인 오츠(Wayne E. Oates)의 저서 '기독교 목회자'(the christian pastor)에서 "치유적인 설교"(therapeutic preaching)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56년에 찰스 켐프(Charles F. Kemp)는 "삶의 상황설교"(life-situation preaching)라는 이름의 단행본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클래런스 라디(Clarence S. Roddy)는 1967년에 출간된 베이커 실천신학 사전(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에 기고한 "설교의 분류"(the classification of sermon)라는 제목의 글에서 "삶의 상황 혹은 문제해결 설교"(life-situation or problem-solution sermons)를 설교의 한 형태로 포함시키고 "이것은 오늘날 아주 인기 있는 형태의 설교이다"라고 평하였다. 근래에 들어 와서는 웨인 오츠가 1992년도에 나온 "현대 설교 핸드북"(preaching and pastoral care)에 기고한 "설교와 목회상담"(preaching and pastoral care)이란 제목의 글에서 설교를 목회상담의 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명칭들은 모두 맥락을 같이하는 치유적 설교의 한 분야이다.[306]

설교를 상담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은 설교를 상담의 전주곡으로나 상담을 설교의 한 요소로 보지 않고, 설교 자체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목회상담의 행위라는 것

---

304) 정태기, *아픔·상담·치유*, 152.
305) 김만풍, 29.
306) Ibid., 27-28.

이다.[307]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은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킨 사람중의 하나이다. 린(Edmund Linn)에 의하면 포스딕은 강해 설교(expository sermon)나 주제 설교(topical sermon)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적 방법"(project method) 또는 "상담 설교"(counseling sermon)라고 불리는 좀더 효과적인 설교 방법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다.[308] 그에 의하면 포스딕은 성경구절의 주석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강해 설교가 '실제 생활에 대한 사항보다 일부 성경구절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비중을 둔다'고 보았으며, 강해 설교보다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제설교도 심각한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포스딕은 강해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치유설교를 처음으로 시도한 설교자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대면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의문을 풀어 주며 가장 숭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확증시키면서 동정적인 현명하고 사려깊은 협력의 태도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309]

제 4 절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과 기능

여기서는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과 기능, 효과 그리고 문제점을 다루겠다.

1.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

오늘날에는 육체적 치유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으로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영적인 치유라고 본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과 정신질환이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에 교회의 치유목회는 계속되어야 한다.[310] 또한 오늘날 교인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인간성 상실로 인한 소외감 때문에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311] 이런 사람들이 용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312] 그러므로 오늘날 더욱더 필요한 것이 치유설교이다.

---

307) Donald Capps, *목회상담과 설교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A Quest for Integrated Ministry)*, 전요섭 역 (서울: 솔로몬, 2003), 16
308) Ibid.
309) 김경수, 26.
310) 신성종, "신약성경속의 치유설교" *월간 목회*, 2002년 3월호, 65.
311) 김창수, *설교자여, 시대를 살리는 설교를 하라*, 72.
312) Murren, *치유하는 교회*, 112.

현대인들은 모두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 해방의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치유설교가 절실하 필요하다.[313] 그런데 문제는 성서적으로 정확한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불안, 외로움, 죄책감, 분노, 우울증, 열등감 등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거나 대인관계가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314] 그들의 고민에 접근해야 하고, 그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내적 갈등에 뛰어 들어서 내면세계의 질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315] 치유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치유설교자였던 포스딕은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설교하는 순간까지 시종일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상담하는 심정으로 임했다고 한다.[316]

2. 치유적 설교의 기능(Function)

설교의 내용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듯이 설교의 기능도 본문이 무엇을 행하고(doing) 있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317] 치유설교의 기능을 클렙쉬와 재클(William A. Clebsch and Charles R. Jaekle)은 치료(healing)와 부양(sustaining), 안내(guiding), 그리고 화해(reconciling)의 기능으로 제안했고[318]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여기에 양육의 기능을 첨부했다[319] 상담은 일반적으로 치료적, 예방적, 교육적 상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왔다.[320] 그러나 본인은 이를 참고하여 치유설교의 기능을 치유적 기능, 예방적 기능, 재활적 기능으로 나눠서 논하려고 한다. 치유적이란,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들을 치유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적이란, 상처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문제들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재활적이란, 상처 치유 이후에 그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설교의 기능을 말한다.

---

313)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63-164.
314) 송길원, *쉼표가 있는 삶*, (서울: 두란노, 1996), 18.
315) Ibid., 19
316) 정태기, *아픔·상담·치유*, 152-153
317)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45.
318) William A. Clebsch and Charles R. Jae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Englewood: Prentice-Hall, 1964), 33.
319) Howard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and Growth*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26.
320) 고병인, *목회와 상담* (서울: 예인, 1996), 176.

가. 치유적 기능

치유설교는 회중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위기나 갈등이나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고난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치유설교는 연약하여 용기와 담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기능을 한다. 치유설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용서와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기능을 한다.[321]

나. 예방적 기능

치유설교는 아직 위기나 갈등이나 문제들에 당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거나 방지하거나 미리 준비하여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치유설교는 위기나 갈등이나 문제들을 극복하고 통찰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능을 함으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322] 다시 말하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면역체계를 길러 주는 것과 같다. 문제가 확대되고 나서가 아니라 사전에 이를 봉쇄함으로 쓸데없는 낭비를 막는 기능이다. 어떤 경우는 손실도 많지만 회복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벧후 3:17)라고 말했다. 여기서 '미리 알았은즉'이 예방적 기능을 말해 주고 있다.[323] 대체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산다.[324] 그러므로 치유설교는 치유기능도 필요하지만 이미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다. 재활적 기능

치유설교는 위기나 갈등이나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 줄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하는 무장의 기능이 있다. 치유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

321) 김경수, *치유설교*, 27-28.
322) Ibid., 28.
323) 송길원, *쉼표가 있는 삶*, 16-17.
324) Mike Flynn & Doug Greg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 41.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기능을 한다. 치유설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육의 기능을 한다. 치유설교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능을 한다.[325]

이처럼 치유설교의 기능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성경적인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3. 치유적 설교의 효과

치유적 설교의 효과에 대해서 김경수는 그의 저서 '치유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 목회 상담사역의 시간과 수고를 절약해 주는 효과가 있다. 목회자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만 교인들을 도와준다면 한 사람을 상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치유설교를 통해서 전체 회중에게 일시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많은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게 된다. 둘째, 치유설교는 내담자를 신속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교인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치유설교는 내담자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개인상담을 통한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부담이 클 경우에는 교회를 떠난다거나 교회 생활의 일선에서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설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질 뿐이다. 넷째, 치유설교는 그룹 상담과 개인상담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치유설교는 전체 회중에서 상담사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줌으로써 치유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치유설교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326]

이뿐 아니라, 치유설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케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결단하도록 도와 준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나면 옛날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 또한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한 영성과 마음과 육신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변화되어 간다.[327]

---

325) 김경수, *치유설교*, 28-29.
326) Ibid., 43-44.
327)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219-223.

4. 치유적 설교의 문제점

치유적 설교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교회에는 항상 웃음꽃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다. 교인들 사이에는 화합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는다. 교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328] 또한 치유설교는 인본주의, 상황중심적인 설교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이 회중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픔을 치유해 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목양적 설교, 상황적 설교 가운데는 예수님을 심리적 질환을 치유해 주는 일종의 심리치료사 정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성서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심리학이 하나님이 되어서(Psychology is God) 최근의 심리치료 방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을 자존감의 회복으로, 죄를 잘 적응하지 못함으로, 교회를 그룹치료(group therapy)로, 예수를 "Dear Abby"[329]로 변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의 문제가 최신의 심리적 치료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치유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Karl Barth)는 설교를 심리적 치료로 변형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바르트는 설교는 성서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하여 인생에 대한 더 명확하고 좀더 적절한 설명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회중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인생의 의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본문보다 상황을 더 중요시하는 위험이 목양적 설교, 상황 및 치유적 설교에 항상 있게 된다.[330] 그러므로 성경적인 치유설교를 하는 동시에 예언자적 설교도 겸하여 설교함으로써 치유적 설교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치유의 설교와 훈계의 설교를 3:1 정도로 해야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한다고 한다.[331] 본 연구자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치유설교를 할 때는 성경본문에서 찾은 치유 원리를 바탕으로 치유적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치유 역사도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

328)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198-199.
329) "Dear Abby"란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매일 실리고 있는 인생문제의 상담칼럼이다.
330)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23-24.
331) 김태복, "한국교회 성장과 치유설교", *월간목회*, 2002년 3월호, 70.

제 5 장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의 작성

이 장에서는 치유적 설교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는 치유적 설교자들의 설교 방법들, 주제선정의 동기와 원리 및 주제들, 치유적 설교의 요소와 준비단계 및 작성단계, 치유적 설교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치유적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룰 것이다.

제 1 절 치유적 설교의 방법

치유적 설교자로 알려진 에드먼드 린(Edmund Linn), 레이 헤슨(Ray Hesson), 그리고 해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rsdick), 이 세 사람이 말하는 치유적 설교 방법을 알아보겠다.

1. 린(Linn)의 치유설교 방법

램지(G. Lee Ramsey, Jr.)의 책 'Care-Full Preaching'에서 에드먼드 린(Edmund Linn)은 치유설교의 방법을 7가지로 말했다.[332]

> 첫째, 치유설교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분명한 확신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설교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할 때보다 단 한 사람에게 말하려는 태도로 설교할 때 더 잘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신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연관을 지어 주어야 한다. 넷째, 반대입장에 대해서도 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설교는 마치 강단에 설교자와 적대자의 두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준비해야 하며, 적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의문, 질문, 염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자들

332) G. Lee Ramsey, Jr., *Care-Full Preaching*, 15.

> 에게 복음의 내용을 적용시켜야 한다. 치유설교는 단순히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능력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존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래서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를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치유설교를 위해서는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333]

이처럼 치유설교를 하려면 청중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의 7가지 방법이 설교가 어떻게 치유사역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334]

2. 헤슨(Hesson)의 치유설교 방법

헤슨은 설득력 있는 치유설교의 조건으로 네 가지로 말했다. "첫째, 치유설교는 가슴에 와 닿게 설교해야 한다. 둘째, 쉬워야 한다. 셋째, 개인적인 상황에 적절해야만 한다. 넷째, 내적, 외적 교정과 함께 영·육이 치유되는 설교여야 한다"[335]고 말했다. 그래서 치유설교의 대가인 쉐퍼드(John Shephard) 목사는 치유설교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 나의 설교의 비결은 세 가지이다. 첫째, 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주 운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 셋째, 나는 마치 주님께 보고서를 막 제출하고 난 후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336]

그러므로 치유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주님께 보고하는 자세로 살면서 치유설교를 해야 한다.

3. 포스딕(Posdick)의 치유설교 방법

포스딕은 상황설교의 대가로서 목회적인 설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상담

---

333) Edmund Holt Linn, *Preaching As Counseling: The Unique Method of Harry Emerson Fosdick*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66), 16-20.
334) 김경수, *치유설교*, 46.
335) Ray Hesson, *Church and Person in English* (Hodder & Stoughton, 1964), 25.
336) Wood John, *The Preacher's Workshop: Preparation for Expository Preaching* (Chicago: Inter-Varsity, 1965), 125-130.

설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337] 그의 설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338]

> 첫째, 그의 설교는 상담적인 치유설교이다. 목사는 상담자이고 청중은 내담자로서 청중을 상대로 하는 상담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설교를 하였다. 둘째, 그는 설교를 통해서 목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셋째, 자신이 경험한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설교를 준비하였다. 넷째, 그는 설교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전달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였다. 다섯째, 그는 말씀중심의 설교자로서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었다.[339]

포스딕은 다양한 설교양식을 개발해서 설교하였다. 그는 성경의 진리와 인간의 경험과의 거리를 조화시켜 말씀의 현장화를 가져오게 했다.[340] 포스딕의 설교방법은 '삶의 상황', '문제 중심'의 설교지만, 스스로 듀이(John Dewry)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획식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341] 포스딕의 치유적 설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람들의 실제문제를 대면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문을 풀어주며, 믿음을 확증시키면서 동정적이고 현명하고 사려깊은 협력의 태도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 나간다. 둘째, 정치, 사회적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의 생활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셋째, 목회자는 사회문제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나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모를 수도 있지만 청중들의 생활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잠입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적인 전제 하에서 복음적인 치유설교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342]

제 2 절 치유적 설교의 주제 선정의 동기와 원리

---

337) 김형준, "해리 에머슨 포스딕을 중심으로 한 상담설교에 대한 연구", 374.
338) 김경수, *치유설교*, 47.
339) Timothy Keller, "A Model for Preaching : Part One", *Journal of Bible Counseling*, Spring, 1994, 36-42.
340) 김경수, 48.
341) 김형준, 373-374. 포스딕의 설교 이론의 중요한 관점은 1928년 7월 *Harper's Magazine*에 실린 "What is the Matter With Preaching?"이라는 논문에서 그에게 영향을 준 세 가지 관점이 나타난다. ① 현대심리학(modern psychology), ② 사회적 복음(the social gospel), ③ 존 듀이의 이론(John Dewry's learning theory)이다. cf. O. C. Edwards, Jr. "Preaching and Pastoral Care," in *Anglican Theology and Pastoral Care* (Wilton: Morehouse Barlow Co., 1985), 144-145.
342) Donald Capps, *목회 상담과 설교*, 17.

1. 치유적 설교 주제선정의 다양한 동기들

먼저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를 위해서는 청중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343] 그러므로 치유적 설교의 주제는 목회자가 성경을 읽다가 교인의 필요에 맞는 주제, 심방 중에 얻은 주제, 상담 중에 내담자들의 필요나 교인들의 형편에 맞는 주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나 방송을 듣거나 글을 읽다가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주제를 택할 수도 있다.[344]

2. 치유적 설교 주제선정의 원리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한편의 설교는 한 주제(topic)의 선정으로부터 시작되며",[345] 주제 결정의 원리로 "설교자의 성향,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균형과 규모(scale),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별한 필요"라고 말하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지혜로운 생각"[346]이라고 말한다. 김만풍은 치유적 설교의 주제선정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 성경말씀이 해답을 제시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회자가 보는 필요와 회중 자신이 느끼는 필요사이에서 객관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셋째,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넷째, 가장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선정한다. 다섯째, 최근에 무슨 일을 당한 특정한 개인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없는 주제를 선정한다. 여섯째, 다양한 주제들을 균형있게 선정한다. 일곱째, 가능할 경우에 연속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여덟째, 적절할 경우에는 연속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아홉째, 다른 분야의 설교들과 조화를 이루는 주제를 선정한다. 열 번째, 다른 분야의 설교들과 균형있는 배열을 한다.[347]

3. 치유적 설교에서 다루어야할 주제들

---

343) 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Preaching & Th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3), 42.
344) 김만풍, *상담설교*, 67.
345) Phillips Brooks, *설교론 특강 (On Preaching)*, 서문강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143.
346) Ibid., 146.
347) 김만풍, *상담설교*, 67-71.

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들

하이벨스(Bill Hybels)는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청중들은 '그 주제가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묻는다"[348]라고 말했다. 이젤(Rick Ezell)도 "설교의 주제는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349]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문제의 해답을 듣도록 해야 한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인정하는데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50]

본 논문의 1장 〈표 2〉에 의하면,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가 36.4퍼센트, 말에 주로 상처를 받는다가 50.7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우울증이 있다가 22.7퍼센트, 열등감이 있다가 21.0퍼센트, 나를 학대하며 자존감이 낮다가 18.5퍼센트로 나왔다.[351] 그러므로 개인적인 측면의 주제들로 성격, 기질, 열등감, 우울증, 강박관념, 분노, 슬픔, 불안, 두려움, 고독, 낙심, 자포자기, 절망, 이기심, 완벽주의, 자존감, 억눌림, 좌절된 꿈, 기억치유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나. 가정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들

가정에 대해서는 신·구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현대에 와서 가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잘 다루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주제로 삼아 치유적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보면, 부모로부터 13.5퍼센트, 형제가 7.6퍼센트, 부부가 22.8퍼센트, 자녀가 2.5퍼센트였다. 결국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비율이 46.4퍼센트로 거의 두 명당 한 명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가 73.6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주제로는 부부갈등, 부부대화, 자녀교육, 고부갈등, 형제갈등, 성인아이, 가정경제, 이혼 등을 다루어할 주제들이 많다.

---

348) Bill Hybels, *"Speaking to the Secularized Mind," Mastering Contemporary Preaching* (Portland: Multnomah/Christianity Today, 1989), 31.
349) Rick Ezell, *설교, 변화하는 청중을 사로 잡으라 (Hitting A Moving Target: Preaching To The Changing of Your Church)*, 민병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38.
350)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465.
351) 앞으로 나오는 〈표〉는 모두 본 논문 1장 설문조사 결과표를 참고로 한 것이다.

다. 사회·관계적 측면에서의 주제들

교인들은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받는 상처들이 치유되도록 설교해야 한다. 〈표 6〉에 의하면, 직장에서 33.0퍼센트, 교회에서 20.3퍼센트, 학교에서 12.7퍼센트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고, 〈표 2〉에 의하면, 남에게 무시당할 때 75.3퍼센트, 거절당할 때 71.8퍼센트, 놀림 당할 때 69.3퍼센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52.4퍼센트가 상처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표 9〉에 의하면, 관계치유설교를 듣고 싶다가 60.9퍼센트로 많은 교인들이 사회·관계적 측면의 설교를 듣고 싶어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거절감, 억울함, 적개심, 미움, 인종차별, 성차별, 실연(헤어짐), 소외감, 용서, 말의 상처, 등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교를 해야 한다. 〈표 2〉에서 죄를 지을 때 상처받는다가 85.4퍼센트,〈표 5〉현재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다가19.1퍼센트로 나타났다. 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죄책감, 양심, 쓴 뿌리, 영적 건강, 영적 치유, 영적 전쟁 등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표 10〉에 의하면, 치유설교를 한 달에 한번씩 듣고 싶다가 44.9퍼센트, 연속시리즈로 듣고 싶다가 21.1퍼센트로 많은 교인들이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어했다.

제 3 절 치유적 설교의 요소와 작성

다음으로는 도널드 캡스(Donald Capps)가 말하는 치유적 설교의 네 가지 요소와 치유적 설교의 구체적인 작성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1. 치유적 설교의 요소

캡스는 목회 돌봄에 대한 주제별 접근(pastoral care: a themat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해 가는 4 단계 과정을 말했다. 즉 문제의 확인(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문제의 탐색(reconstruction of the problem), 진단적

해석(diagnostic interpretation), 목회자의 개입(pastoral intervention)이다.[352] 이 네 가지 요소가 설교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동일한 단계를 거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가. 청중의 문제 확인

치유설교의 서론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점은 '어떠한 문제를 언급할 것인가?' 이다. 캡스는 가장 먼저 회중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주장한다. 왜냐하면 청중들의 현재의 문제를 설교자가 제시하여 청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청중들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교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고, 그 관심의 집중은 회중들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353]

나. 문제의 탐색

다음은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354]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중들의 현재의 문제가 왜 유발되었는가? 현재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의 삶 속에 접근하는 단계이다.[355] 캡스는 짧은 요약만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탐색의 과정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등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탐색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탐색 과정은 성경에서 얻은 통찰을 의지하여 문제의 특성을 분석할 수도 있고, 현재의 인간상을 분석함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성경적 분석과 현대적 분석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문제의 탐색을 위해서는 어느 방법을 적용해도 무방하지만,[356]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될 때 바른 탐색을 할 수가 있다.[357]

---

352) Donald Capps, *Pastoral Care: A Thematic Approa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3장과 *목회상담과 설교*, 46.

353) 박영재,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16가지 설교 구성법* (서울: 규장, 2000), 25 페이지에서 "청중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 순서에 따라 설교를 전개하면 설교가 자연스러워지고, 청중은 편안하고 부드럽게 설교를 받아들이며, 설교의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했다.

354) Ibid., 29. 박영재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어떤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지 자신의 언어로 정의 내리지 못한다. 이때 설교자가 청중의 삶의 문제를 언어로 표현해 내면 그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문제를 선명하게 이해한다"고 말한다.

355) 김경수, *치유설교*, 56.

356) Donald Capps, *목회상담과 설교*, 58.

357) 김경수, *치유설교*, 57-58.

다. 진단적 해석

캡스에 의하면 설교에서의 진단적 해석의 단계는 탐색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즉 문제의 중심을 자세히 살피고,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의 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358] 실제로 캡스는 이 단계에서 성경의 적극적인 활용을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 진단적 해석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성경의 사용만이 진단과 해석에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권위는 설교의 논리나 설교자의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한다는 점에 있다.[359]

실질적으로 캡스가 분석한 설교자들은 진단적 해석을 할 때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예를 들면, 결론이 분노라고 하면 분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가를 성경구절이나 성경에 암시된 내용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입하였다.[360]

라. 목회자의 개입

이 단계에서는 설교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넘어 청중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도록 방법들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진단적 해석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반응들을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361] 그렇다고 반드시 목회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하더라도 설교자의 방안이 앞 단계에서 실시된 진단에 의하여 정확하게 얻은 것이라면 주제에 대한 해석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362] 목회자의 개입은 막연한 일반적 언급이 아니라 진단적 해석에 의거한 독특한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설교에 효험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363] 그러므로 진단적 해석과 목회자의 개입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계획의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

358) Donald Capps, 59
359) Ibib., 62.
360) 김경수, 57.
361) Donald Capps, *목회상담과 설교*, 63.
362) 김경수, *치유설교*, 57-58.
363) Donald Capps, 66.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정확히 이해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처방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364] 그러나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정확히 이해되었다고 확신이 설 때에 처방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살아 있는 말씀이 청중들의 실제 상황에 파고 들어갈 때 회중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365]

2. 치유적 설교의 작성

가. 치유적 설교 준비 단계

(1) 본문 선택

주제선정을 먼저하고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문을 먼저 선택하고 주제선정을 뒤에 할 수도 있다. 필립스 브룩스는 "주제선택을 먼저 해야 한다"[366]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주제에 합당한 본문을 택해야 한다.[367] 치유설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단일한 사고 단위(a single unit of thought)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훌륭한 설교는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나 주제만 취급한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치유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선택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하나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더 짧게 끊어서 하나의 주제만을 포함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 반면 너무 짧아서 단일한 사고 단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조금 길게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에 따라서 본문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368] 그 주제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69]

(2) 중심 내용 파악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본문의 진리를 캐내어 청중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위기나 갈등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해결 원리들을 제기한 다음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치유설교는 현

---

364) 김경수, 58.
365) Rick Ezell, *설교, 변화하는 청중을 사로 잡으라*, 39.
366) Brooks, *설교론 특강*, 150.
367) 김만풍, *상담설교*, 77.
368) 김경수, 80-81.
369) 김만풍, 77.

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왜 여기에 이르렀는가?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그 전후 문맥과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치유설교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370] 이를 위해서 설교의 주요한 요점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 이것이 설교의 중심 주제인데 이는 성경 본문을 명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자라난 식물이다.[371]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중심 주제가 결정되면 그 중심 주제가 설교 준비를 통제하게 된다. 설교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그 중심 사상과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372] 그러므로 중심 주제는 설교 본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로빈슨(Haddon Robinson)은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적이고 전체를 통일시키는 관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373]고 주장했고, 콕스(James W. Cox)는 "중심 사상은 현실감이 있어야 하고, 완전해야 하고, 단순해야 하고, 직설적이어야 하고, 충격적이어야 한다"[374]고 말한다.

(3) 본문 연구 및 자료수집

(가) 필요한 참고서

본문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려면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도 필요하지만 다른 참고서의 도움도 역시 필요하다. 즉 치유 설교자가 전하고자하는 유의 사례, 문제 해결 방법, 전문 서적 등을 충분히 읽고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 더 복음적이고, 더 신령하고, 치유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375]

(나) 연구 방법

치유적 설교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inductive bible study)[376]에 근거하고 있

---

370) 김만풍, 81.
371) 주승중, *영상 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181.
372) Ibid., 185.
373) Haddon Robinson, *강해 설교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42.
374) James W. Cox, *설교학 (Preaching)*,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1999), 107-108.
375) 김경수, *치유설교*, 82.
37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 (서울: 요단 출판사, 1990), 118-119, 132-133. 귀납법은 특수 상황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유추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납법적인 설교는 삶의 정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서의 원리로 나아가는 설교를 말한다.

다. 귀납적 성경 연구 자체가 치유설교는 아니지만, 치유설교와 귀납적 성경연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귀납적 성경연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가 곧 바로 치유설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377]

(다) 관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관찰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설교자가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로 관찰해야 할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 그 네 가지는 단어(key words), 문장의 구조(structure), 문학 장르(literary form) 및 분위기(atmosphere)이다. 첫째, 중요한 단어를 관찰해야 한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 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생소한 단어,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관찰하여 그 원어의 치유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378] 둘째, 문장의 구조를 관찰해야 한다. 먼저 문법적 관계(grammatical relationship)와 논리적 관계(logical relationship)를 관찰해야 한다. 한 문장과 다른 문장이 인과관계, 목적, 조건, 결과, 대조, 비교, 설명, 예증 등 이런 관계를 주의해서 본문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시간적 관계(chronological relationship)나 지리적 관계(geographcal relationship)도 결코 경시하지 않으면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복음을 관찰해야 한다. 셋째, 문장의 장르도 관찰해야 한다. 교훈 문학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논리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훈 문학은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서사문학은 사건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간문학은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란 절제된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인의 감정을 바로 이해하는 것도 주요하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치유의 장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분위기를 관찰해야 한다. 성경 저자의 분위기가 슬픔의 분위기인지, 공포의 분위기인지, 외로움의 분위기인지, 기쁨의 분위기인지 등을 관찰하는 것도 본문 이해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설교자는 문맥 속에서 문자적인 원리만 강조하다가 보면 영적인 원리를 놓치기 쉽다. 그러므로 본문을 관찰할 때 사실적인 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문맥 속에 흐르는 영적인 진리도 발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진리를 놓치기 때문이다.[379]

---

377) 김경수, 82.
378) Ibid.
379) Ibid., 83-84.

(4) 설교제목 결정

치유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택한 다음에는 그 설교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제목을 확정하게 된다. 설교제목을 미리 정하고 내용구성에 들어갈 수 있고, 설교 내용을 구성하고 나서 제목을 확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한번 정한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가 있다.[380] 잘 표현되고 간명하게 진술된 제목은 청중이 설교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381] 그러므로 치유설교에 있어서 설교제목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설교의 강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제목은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설교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치유설교의 제목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좋다.

> 첫째, 간결하게 한다. 둘째, 기억하기 쉽게 한다. 셋째, 본문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호기심을 끌게 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은 피한다. 여섯째, 이미 익숙한 것을 활용한다. 일곱째, 가능하다면 새로운 것을 고안한다. 여덟째, 다양한 변화를 준다. 아홉째, 경우에 따라서는 번호를 붙여 연속설교도 시도한다. 열 번째, 긍정적인 제목을 제시한다.[382]

효과적인 설교의 제목에 대해 렌스키(R. C. Lenski)는 "설교의 통일성을 표현한 것으로 제목이 나누어질 수 있는 방향(way)으로 항상 진술되어야 한다"[383]고 말했다. 그러므로 청중들은 설교제목을 볼 때부터 설교를 듣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나. 치유적 설교의 작성 단계

(1) 서론

치유설교는 서론을 잘 시작해야 한다. 설교를 들을 때에 청중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나에 관한 설교가 되도록 서로의 연결점과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설교 시작은 귀납적 서론이 좋다. 먼저 문제를 제기함으로 청중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죄책감에

---

380) 김만풍, 78.
381)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 J. Northcutt, *설교 방법론*, 134.
382) 김경수, 치유설교, 84.
383)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 J. Northcutt, 137.

대한 실태를 소개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럼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이렇게 함으로 청중들을 본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특별한 원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384] 포스딕은 설교의 서론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385]

서론은 설교자가 회중과 악수하는 것과 같다. 서론의 초두에 설교자는 회중을 설교로 환영하며, 그들이 듣게 될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도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설교자가 회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며, 성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음을 말할 때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386] 그런데 오늘날의 청중들은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첫 문장, 첫 단락은 매우 중요하다. 첫 문장, 첫 단락이 청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설교 전체가 지지부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청중들을 감동시키고 긴장감이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의 도입부는 설교의 중심주제로 이어져야 한다.[387] 그러므로 적절한 치유적 설교의 제목은 청중이 주보를 보는 순간부터 그 효과를 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설교의 도입부에서 주제를 설명하고, 제목을 반드시 제시한다. 서두에서부터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아 들을 귀를 준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명하고도 흥미있는 설명이나 인용, 예화 혹은 질문들을 사용하여 기대를 가지고 원리제시와 적용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좋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케 하는 암시가 분명할 때 그 다음 나올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는 말씀이 간결하고 분명해야 효과적이다. 복잡하고 지루하면 설교 초반에 회중들의 관심을 잃고 만다. 일단 흥미를 잃은 청중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제대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힘든 일이다. 따라서 첫 수분간에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이 거의 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388] 그러므로 좋은 서론의 필수요소는 간결성, 적절성, 겸허성, 흥미성, 암시성이 있어야 한다.[389]

---

384) 김경수, 76-77.
385) Fosdick, *The Living of Thease Days* (New York: Harper & Bros., 1956), 77-79. 포스딕은 설교의 서론은 6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① 실제적인 문제로 시작하라 ②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으라 ③ 실제적인 문제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명확히 드러내라 ④ 성경으로 시작하라 ⑤ 큰 진리를 제시하라 ⑥ 실제적인 문제의 본질과 그 역사를 제시하라.
386)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175.
387) 주승중,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211.
388) 김만풍, *삼담설교*, 79-80
389) Baumann, *현대 설교학 입문*, 190-191.

(2) 원리 제시

서론에서 자기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낀 청중은 이제 문제해결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 원리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궁금증이 고조되는 순간에 청중의 필요를 채워줄 성경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본문에서 찾아내어 제시하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전한다. 이 대목이 치유설교의 핵심이다. 여기서 제시할 원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원리들을 찾아내려면 바른 해석에 근거한 내용분석과 종합이 필요하다. 설교자가 본문에서 찾아낸 원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교자 자신이 생각하는 원리가 아닌 성경 자체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의 치유설교에서 회중의 필요를 해결해 줄 원리들은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는 둘 내지 다섯 정도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회중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에 족하고 또한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390]

(3) 결론

결론은 설교의 총결산이다. 서론에서 시작해 본론을 거쳐 나오는 긴 흐름을 그 최종 목적지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것이 결론이다. 결론은 성경을 삶과 관련시키는 마지막 기회이다.[391] 또한 결론은 설교의 목적을 성취하는 마지막 기회이다.[392] 그래서 데이비스(H. Grady Davis)는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결론은 청중이 설교전체를 한꺼번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순간이다. 그것은 이슈를 가장 분명히 보고, 가장 예리하게 느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삶에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따라서 이 순간은 아마도 설교전체의 연속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이다. 설교는 결론을 맺어야지 그냥 중지해서는 안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냥 몰고 가서는 안 된다.[393]

그러므로 분명하지 않는 결론은 좋은 본론의 효과를 감소시켜 버린다. 그러나

---

390) 김만풍, 81.
391) Whittaker, *설교 리모델링*, 169.
392)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185.
393)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 출판사, 1987), 156.

훌륭한 결론은 본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를 보충해 준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이 강한 인상을 갖고 돌아가도록 최후의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본론과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좋다.[394] 그러므로 좋은 결론은 첫째,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본론에서 발전된 관념과 계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395] 둘째 간결하고 단순하다. 셋째, 개인적이다.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각 개인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대중을 상대하면서도 개인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용은 청중 각 개인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결론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간단히 재현하는 것도 좋은 결론이라 할 수가 있다.[396] 그러므로 결론은 "설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준 모든 인상을 강화하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다".[397] 그래서 위어스비(Wiersbe)는 "좋은 결론이란, 간결하고 인상적이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아무 말도 더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결론이다"[398]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치유적 설교의 결론은 요약하는 형태, 호소하는 형태, 예화, 성경구절, 질문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지만, 그 날의 주제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은 결론이다.[399]

다. 치유적 설교의 예화

예화는 설교의 논제나(thesis), 명제(proposition), 또는 대지(point)의 의미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고 조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400] 그러므로 스펄전은 예화란 "진리로 향한 창문과 같다"[401]라고 말했다. 존스는 "예화는 진리를 밝혀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다"[402]라고 했지

---

394) 장두만, 157-164.
395) Baumann, 198.
396) 김경수, 78-79
397) Glen E. Mills, *Message Preparation Analysis and Structure*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1966), 83.
398) Wiersbe, *역동적 설교*, 124.
399) 김경수, 79.
400)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149.
401)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15.
402) Martin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Preaching & Preacher)*, 서문강 역 (서울: 예수 문서 선교회, 1977), 256.

만, 예화는 성서를 인간의 삶의 경험으로 석의(exegete)하고 해석하는 것임으로[403] 설교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404] 예화가 들어감으로 설교의 질을 높이고 청중의 이해를 돕고 설교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405] 그러므로 바우만은 설교에 있어서 예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째, 선포될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설교의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어 변화시키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셋째는 더 큰 감동을 유발하기 위한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406]

그렇다면 예화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김경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 책들을 통해서 예화를 얻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치유설교자는 광고, 잡지, 소설, 시집, 전문소설 등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심리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신앙 서적만을 읽는데 있다. 둘째, 예화를 들 때 중요한 점은 치유 주제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한 것, 간접적으로 들은 것, 설교자를 통해서, 간증집, 치유에 관한 책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치유를 말하면 청중들은 치유의 현장감을 느껴서 그 설교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치유 예화를 드는 적절한 시점은 설교를 시작할 때와 설교를 끝낼 때이다. 또 말씀의 이해의 폭을 넓힐 때이다. 시작할 때는 청중들이 귀를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끝날 때는 들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예화이기 때문이다.[407]

그러므로 예화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교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그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상적인 예화는 좌절과 실망을 낳기 때문이다.[408]

라. 치유적 설교의 적용

영어 단어 '적용하다(apply)'는 라틴어로부터 왔는데 "포개다, 함께 모으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성경을 적용할 때 진리와 생활을 함께 포개어 메시지가

---

403) Bryan Chapell,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 with Power* (Grand Raphids: Zondervan, 1992), 13.
404)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153.
405)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 195.
406) 정인교,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47.
407) 김경수, *치유설교*, 60.
408) Baumann, 257.

실제적이 되게 하며, 개인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적용이다.[409] 설교는 적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설교는 어떤 형태로든 적용이 있어야 한다.[410] 스펄전은 "적용이 시작되는 곳에서 설교도 시작된다"[411]고 말했다. 효과적인 치유설교는 성경적이며, 상황에 적합하고, 인격적인 적용이 수반되어야 한다.[412] 그러므로 좋은 적용은 첫째, 개인적(personal)이어야 한다. 둘째, 현재시제(present tense)로 되어야 한다. 셋째, 역동적(dynamic)이어야 한다. 적용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시간과 문화와 주어진 환경의 필요에 의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13]

그러므로 본문에서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과정에서 회중은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성경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된다. 원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문맥을 찾아 회중의 필요를 따라 적용을 시도한다. 적용의 방법은 단순한 설명이나 권면, 격려, 책망, 도전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찬송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치유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할 수도 있다.[414] 특별히 치유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치유상담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치유설교에 예화를 쓰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상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내용을 사용할 때는 그 치유자가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사용해야 한다.[415] 치유설교자는 청중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자신의 메시지를 적용시켜야 하며, 자기 자신을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보내진 '영혼의 의사'라고 여겨야만 한다.[416]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때 치유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영혼은 회복될 것이다.

제 4 절 치유적 설교의 주의할 점

치유설교는 신중하고,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설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그

---

409) Wiersbe, *역동적 설교*, 117.
410) Baumann, 344.
411) Fairs D. Whitesell, *Power in Expository Preaching* (Westwood, N. Y.: Fleming H. Revell Co., 1963), 91.
412) Timothy Keller, 36-42.
413) Baumann, 345-347.
414) 김만풍, *상담설교*, 81.
415) 김경수, *치유설교*, 66.
416) Richard Wurmbrand, "Preaching for Eternity", *Ministry*, July 1994, 14-17.

주제로 삼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특수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지루해 지거나 지나치게 전문성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담학적 지식도 갖추어야 하지만, 설교에 대한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는 설교에 의해서 항상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치유가 그 목적이 되어 설교가 가지는 소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간과될 경우 설교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417] 넷째, 치유설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내담자에게 있었던 일어난 일을 설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담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418] 다섯째, 치유설교는 설교의 상황에 민감하다. 설교자는 청중사이의 눈맞춤과 표정과 서로간의 상호반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교자가 원고만 보거나 천장에만 시선을 두고 설교한다면 상호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 여섯째, 강단에서의 치유설교는 일방적이다. 강단에서의 치유설교자는 청중과 대화형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유설교자는 마치 청중과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며 설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일곱째, 청중의 사생활을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또 청중에게 위협이나 불안을 초래하는 암시를 주거나 공개적인 비난은 금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당황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또 치유설교자를 불신하여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419] 여덟째, 치유설교자에게는 한계가 있다. 치유설교자는 전문적인 심리학이나 목회상담을 깊이 다루어야 한다. 거기에 신학, 목회학, 기독교 교육학, 설교학 등 다양한 분야를 배워야 한다. 신학과정에서 배우는 심리학이나 목회심리학은 충분치 못함으로, 치유설교자는 다른 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해야 한다. 아홉째, 성경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또는 종교나 대중매체들이 질병모델을 다루는 방식들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열 번째, 치유설교를 함에 있어서 심리학을 이용한 인본주의적인 이해만을 배경으로 설교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치유설교를 하면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설교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진리를 행하기 전 사멸되어 그 진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420]

---

417) 김경수, *치유설교*, 87.
418) 송길원, *쉼표가 있는 삶*, 116-117.
419) 김만풍, *상담설교*, 49.

제 5 절 치유적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설교자는 성경의 진리를 언어적, 신체적, 음성적 자극을 통해 전달하는 자이다.[421] 효과적인 치유설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원리, 방법에 대해 논하겠다.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공통'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커뮤니스(communis)에서 나왔다.[422] 그래서 핸드릭스(Howard Hendricks)는 "서로 통하는 것이 많을수록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423]라고 말한다. 넓게 보면 설교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messenger)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자는 먼저 메시지의 근원자(source)로부터 메시지를 받고(encode),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대상자를 향해 방출(decode)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진다.[424] 그러므로 치유설교자는 청중과 협동적인 설교를 만들어 감으로써 삶의 자리와 설교의 강단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425] 설교자가 준비를 많이 하고 열정있게 전달한다 해도 청중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이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들과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들을 공유 또는 공통화 하는 행동이다.[426] 그러므로 치유 설교자는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설교를 해야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치유적 설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방적인 선포적 설교를 자제하고 청중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라. 둘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라. 셋째, 대화를 통한 전달로 참여와 결단을 가능하게 하라.[427]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을 피드백(feedback)이

---

420) 김경수, *치유설교*, 88-89
421) Baumann, *현대 설교학 입문*, 26.
422) Rick Ezell, *설교, 변하는 청중을 사로 잡으라*, 42.
423) Howard Hendricks, *Teaching to Change Lives* (Portland: Multnomah, 1987), 98.
424)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 221-223.
425) 김경수, 90.
426)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세영사, 1978), 18.

라 부른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피드백이란, 설교자가 청중들이 자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얻고 있는 어떤 정보를 말한다.[428] 그러므로 탁월한 설교자는 설교 중에 피드백을 읽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다면 자기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하여 청중들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다. 피드백은 미소나 갈채,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야유나 하품, 찡그린 얼굴 등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429] 그러므로 설교자는 피드백을 빨리 읽으며 설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가. 공감의 방법

청중들의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공감하는 것은 설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청중들과 동화되고, 일체감을 이를 수 있어야 한다.[430] 설교는 삶의 정황에서부터 시작할 때 청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431] 그러므로 설교자는 선포하기에 앞서서 청중들의 소리없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중들의 마음의 소리를 설교로 들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청중들의 마음에 와 닿는 힘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432] 밀러(Calvin Miller)는 그의 저서 '장터 설교(marketplace preaching)'에서 설교자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며,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들이 무엇인지 한번 더 살피라"[433] 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자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말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들이 당한 아픔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434] 또한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중들의 상한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청중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지를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도 서서히 녹아 내리기 시작한다.[435] 그것은 바로 설교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

427) 차배근, 18.
428) 이동원, 222-223
429) Baumann, *현대 설교학 입문*, 33.
430)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 문화사, 1997), 146.
431) 이동원, 132.
432) 김경수, 91.
433) Calvin Miller, *Marketplace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5), 19.
434) Rick Ezell, *설교, 변하는 청중을 사로 잡으라*, 43.
435) Ibid., 170-171.

나. 비언어적 방법

이전의 메시지 전달방식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비언어(nonverbal, 제스츄어, 그 사람이 가지는 분위기, 논리, 상징, 또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전달도구)에 속하는 모든 것들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고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436] 비언어적 행동(nonverbal behavior) 분야의 권위자 버드휘스텔(Birdwhistell)은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만 의사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감각적 존재(multisensorial being)"로 보았다. 루취(Jurgen Ruesch)와 키즈(Weldon Kees)는 "인간의 외모와 복장, 몸짓이나 의도적인 동작, 돌연한 행동, 행동의 결과, 음성, 구어(spoken words), 문어(written words) 등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7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단, 두 가지만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437]라고 말했다. 엔겔(James F. Engel)은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12가지 신호를 말했다. "소리나는 신호(말, 글, 소리)는 영향력이 크지만, 반면에 소리없는 신호(숫자, 동작, 그림, 꾸밈새, 접촉, 공간, 시간, 냄새, 시각)는 설교자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438]고 했다. 물론 언어가 중요하지만, 위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 이외의 것을 사용함으로 청중과 설교자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에게 유익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나쉬(Tom Nash)는 말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말했다. 그 중에서 설교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표정을 통하여 적절하게 감정을 나타내라. 시선을 많이 마주치도록 하라. 말의 속도를 조절하라. 각도에 변화를 주라. 강조하기 위해 잠시 멈춰라. 눌변(음..., 저어...)을 주의하고 발음을 정확히 하라. 과도한 액센트를 피하라. 풍부한 음성을 내라.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청중들을 편하게 앉도록 하라. 청중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라. 이러한 언어 이외의 표현방법은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를 자신의 삶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439]

---

43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감해 설교*, 223.
437) Myron R. Chartier, *설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Preaching as Communication)*,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93), 107.
438) James F. Engel,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Getting Your Message Across)*, 정진환 역 (서울: 조이 선교회, 1997), 103-112.
439) Tom Nash,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터 (The Christian Communicator's Handbook)* 독고 앤 역 (서울: 디모데 성경 연구원, 1997), 237-265.

존스도 "휴톤(John A. Hutton)의 '설교자란 자기 몸 전체로 설교해야 한다. 머리로 하는 만큼 다리로도 설교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자의 전체 인격뿐 아니라 몸짓, 행동,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440] 비언어적 전달 방법이 중요하다.

다. 직언의 방법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문제 해결에 노력을 보이지 않을 때 상담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게 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언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상담에서보다는 설교에서 자주,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스펄전은 바로 이 직언의 방법을 널리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죽어 가는 듯한 가냘픈 목소리로 전하지 말라.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라"고 권했다.[441] 그러므로 설교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직언을 사용할 수 있다. 직언을 통하여 청중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청중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442]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떨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어 청중들의 삶이 변화되고[443] 상처도 치유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치유 설교자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설교 내용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

440)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88.
441) Jay E. Adams, *설교연구 (Studies in Preaching)*,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20.
442) Spurgeon 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오 성령의 손길로 이 개요가 살아 있는 설교로 전달하게 하소서, 여기 제단과 나무는 있사오니 성령이여 당신이 불길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The 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 Vol. 27, 158 에 나온다.
443) Wiersbe, *상상력이 담긴 설교*, 165.

제 6 장
마음의 상처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방안

본 장에서는 제 1 장에서 '마음의 상처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치유적 설교 목표와 계획을 살펴본다. 그리고 치유적 설교 방안은 어떤 기술적인 전달방법보다는 교인들이 현재 안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적 설교의 기능을 기준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치유 기능면에서 복음치유설교, 상한감정치유설교를 제시한다. 둘째, 치유와 예방 기능면에서 관계치유설교, 말의 상처 치유설교, 상담설교를 제시한다. 세째, 치유와 재활 기능면에서 자아상 회복설교, 좌절된 꿈 치유설교, 비전설교를 제시한다. 다양한 상처를 가진 회중들에게 구체적인 종류의 치유적 설교를 전함으로 치유의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치유적 설교의 효과적인 증대방법으로 치유사례 인용, 고백적 간증, 치유관련 비디오나 영상 클립(Clip) 상영, 스킷 및 드라마 공연을 제시한다.

제 1 절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를 위한 설교 계획

상처 많은 교인들의 치유를 통한 영적 건강과 성장, 변화를 위해서 설교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교계획은 너무도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444]

1. 치유적 설교의 목표 설정

설교자라면 누구든지 목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이다. 브라이슨(Harold T. Bryson)과 테

---

444) Whittaker, *설교 리모델링*, 303-311 페이지에서 휘태커는 "설교를 계획하면, 설교자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으며, 통일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의 질적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설교준비 시간도 절약되며, 성도들의 삶과 보다 더 깊은 상관성을 가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러(James C. Taylor)는 특별히 설교자는 치유 목표를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청중들은 무수한 문제들 즉 죄책감, 세월의 무상,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두려움, 걱정, 우울증, 질병, 경제적 손실, 자기비하, 외로움, 권태, 강박감, 스트레스, 불면증, 과대망상, 정신적인 분열, 좌절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청중들이 그리스도안에서 문제를 해결 받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치유설교를 해야 한다.[445]

김만풍은 "치유설교의 목표를 회중이 현실에서 당면한 필요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전인치유, 전인성장, 전인구원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446] 그러므로 치유적 설교의 목표는 설교를 통한 치유, 하나님의 형상회복, 성숙, 전인구원, 헌신을 목표로 삼는다.

2. 치유적 설교의 내용 선정

설교 내용은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즉, 설교 목표의 구체적 표현이다. 따라서 설정된 설교 목표를 충실히 반영시켜서 선정되어야 한다.[447] 그 내용 선정을 위해서는 청중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면, 중요한 단서들이 나온다.

본 논문의 제 1 장에 <표 2>를 보면, 죄를 지을 때, 실수할 때, 무시당할 때, 거절당할 때, 놀림 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 당할 때 상처받는다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적게는 48.2퍼센트에서 많게는 82.1퍼센트를 차지했다. 또한 <표 3>에 보면, 상처를 받으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가 82.1퍼센트를 차지했고, 상처를 준 자가 무조건 싫어진다, 화가 나서 잠을 못 잔다, 상처를 준 자와 대화를 단절한다, 상처를 준 자를 말로 공격한다,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 등에 약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표 4>에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안겠다가 40.5퍼센트, 교회에서 당(편)을 만들겠다,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가 4명중 1명 꼴이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치유를 기다리겠다가 56.6퍼센트, 목사나 사모, 신앙인과 상담하겠다가 44.8퍼센트였고, 속으로 삭이겠다가 54.1퍼센트나 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잠복된 상처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표 9>에 보면, 청중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다양하다. 거절당한 상처, 사랑받지 못한 상처, 말에 받은 상처, 가난, 물질 때문에 받

---

445) 김경수, *치유설교*, 33-34.
446) 김만풍, *상담설교*, 52-53.
447)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56.

은 상처, 왕따, 헤어짐(사망, 이혼, 실연, 실직), 타문화(언어, 인종차별)의 상처, 외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었다. 현재도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거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 사람도 약 30퍼센트나 되었고, 열등감, 우울증, 낮은 자존감, 상처에 마음이 눌려 있는 교인들도 6,7명에 1명 꼴이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들의 상처를 설교를 전해야 한다.

3. 치유적 설교의 분류 및 계획

<표 10>에 보면, 치유적 설교를 한 달에 1회나 연속 시리즈로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66.0퍼센트인 것을 보면 3명중의 2명이 마음에 받은 상처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다. <표 9>를 보면, 청중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억눌린 마음을 자유케 할 성령의 능력설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설교로 모두 70퍼센트가 넘었다.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는 63.4퍼센트,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설교는 52.4퍼센트, 관계치유설교는 51.8퍼센트, 상한감정 치유설교는 50.9퍼센트,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는 50퍼센트, 자아상 회복설교가 49.9였다. 누구나 다 가진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설교'는 모든 설교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함으로 여기서는 제외시키고, <표 11>처럼 치유적 설

<표 11>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의 분류

주	설교 기능	설교 종류	설교 주제
1	치유 기능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치유설교	죄책감, 원죄와 자범죄, 양심, 환경, 구원 회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긍휼
2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상한감정 치유설교	거절감, 굶주림, 열등감, 두려움, 완벽주의 분노, 수치심, 억울함, 우울증, 슬픔, 미움
3	치유와 예방기능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 치유설교	인간관계, 모멸감, 피해의식, 오해, 반항심 소외감, 경쟁심, 배신감, 용서, 화목, 이웃
4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대화방법, 언어의 종류, 언어의 영향력 언어폭력, 언어습관, 언어의 죄, 언어상처
5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	고민, 갈등, 습관, 중독, 가정, 자녀, 결혼 직장, 진로, 물질, 신앙, 이단, 욕망, 상담
6	치유와 재활기능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아상 회복설교	자기학대, 성격, 자아상, 자존감, 성인아이 기질, 패배감, 하나님의 형상, 창조, 자살
7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상실감, 낙심, 좌절, 허무감, 쓴 기억, 꿈 침체, 하나님의 계획, 연단, 시험, 고난
8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	하나님 나라, 은혜, 사랑, 비전, 헌신, 문화 치유적 삶, 사랑의 이중계명, 세계관, 선교

교를 기능면에서 분류하여 설교의 종류와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설교 계획은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한 달에 한 번씩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하든지, 아니면 연속설교로 하든지 미리 계획하면,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가 될 것이다.

제 2 절 치유 기능에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치유기능에 효과적인 설교로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치유설교와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상한감정 치유설교를 제시한다.

1.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치유설교[448]

가. 복음치유설교의 필요성

'1년 동안 주일설교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는 질문에 44명의 목회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데 복음설교가 32.1퍼센트, 신앙설교가 25.7퍼센트, 전도설교가 14.퍼센트, 치유설교가 11.2퍼센트, 교리설교 7.8퍼센트, 윤리설교가 7.5퍼센트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지만 '가장 듣고 싶은 설교 조사'인 <표 1>을 보면, 복음설교가 70.3퍼센트, 가정설교(73.6%), 교리설교(71.9%)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10 명중에 7명이 복음설교를 듣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경우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로 무려 82.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교인들이 자범죄로 인한 상처가 많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표 5>에서 처럼 '현재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중이 5명 중 1명 꼴이었다.

이상 설문결과를 보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열등감과 두려움도 갖게 된다. 그리고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병든 마음이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이 생긴다.[449]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 청중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죄로 인한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또 교회는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치유설교는 필연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설교의 목적은 먼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데 있음으로 반드시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450] 그리

---

448) 복음치유설교란, 본 연구자가 치유에 초점을 둔 복음설교라는 면에서 붙인 명칭이다.
449) 박형렬, *통전적 내적 치유론* Ⅰ (서울: 치유, 2001), 111-112.

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었고, 내용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였다.[451]

나. 복음치유설교의 의미와 방법

(1) 복음치유설교의 의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핵심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452] 그러므로 복음은 치유의 내용이요, 능력이 된다.[453] 복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454] 그러므로 복음설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안겨다 주는 설교이다.[455] 또한 구원받고도 죄 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설교는 언제나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어스비는 "설교의 본문이나 주제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456]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 선포에도 항상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것이다. 복음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실제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457]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치유설교란, 복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2) 복음치유설교의 방법

그러므로 복음치유설교는 첫째,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깊은 학식을 가졌다해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지적해야 한다. 셋째, 예수님만이 죄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해야 한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행하였던 설교

---

450)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4), 102.
451) 문상기, "설교의 구속사적 이해와 현대설교의 과제", *현대 사회와 예배 · 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194. 교회는 설교와 함께 시작되었고, 사명은 구속 설교였다.
45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20.
453) 이성훈,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160.
454)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28-29.
455) Baumann, 289-290,
456)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migr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Wheaton, Ⅲ.: Victor Books, 1994), 279.
457) 김세윤, 65.

는 복음치유설교라고 할 수 있다(행 2:14-38).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음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넷째, 죄를 회개[458]하고 죄사함 받는 길이 죄로 인한 상처를 해결 받는 길임을 선포해야 한다. 십자가[459] 아래 무릎꿇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460]의 공로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결국 복음치유설교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회복시켜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설교이다. 복음치유설교는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죄로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더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상처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치유설교는 치유적 설교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다.

2.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상한감정 치유설교[461]

가. 상한감정 치유설교의 필요성

<표 1>을 보면, 치유설교를 듣고 싶다가 61.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2>의 의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놀림 당할 때, 3 명중 2명 이상이 쉽게 상처받는 것으로 타나났다. 그리고 <표 3>을 보면, 상처를 받으면, 감정이 상한다. 그래서 상처 준 자가 무조건 싫어지고(68.5%), 상처 준 자를 무조건 피하며(66.8%),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48.2%), 불안하고 초조해지며(46.5%),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38.1%)고 답변하여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그 감정은 쉽게 상처를 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이 조사는 모두다 90퍼센트 이상이 구원받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표 4>에 의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경우, 예배나 모임에 불참하겠다(40.5%), 당(편)을 만들겠다(21.1%),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26.2%), 상처 준 자와 만나지 안겠다(41.4%) 등 상처는 감정을 상하게 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분열과 싸움이 많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과 인격, 다른 사람

---

458) 구요한, 278-279. 내적 치유가 지칫 잘못하면 과거의 상처나 나쁜 기억치유에 중점을 두어 본인의 회개를 등한시하기 쉽다. 자기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가해자를 미워하고 증오한 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는 치유의 필수과정이다.

459) Piper, 34, 십자가는 모든 죄를 못박은 절정이다.

460) John Owen, *죄 죽이기 (The Mortification of Sin)*, 서문강 역 (서울: SFC 출판사, 2004), 198.

461) David A. Seamends, *좌절된 꿈의 치유 (Living with Your Dreams)*, 이갑만 역, (서울: 두란노, 1995), 146. 이곳에 '감정 치유에 대한 설교'라는 말이 나온다.

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설교는 필수적이다. <표 8>에 의하면,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56.7퍼센트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다고 답변했다. 설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목회자들이 1년 동안 치유설교를 하는 비율이 11.2퍼센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치유 받을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치유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 교회도 19퍼센트나 되었다. 그러나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88.0퍼센트나 되었다. <표 9>에 의하면, 상한 감정 치유설교를 듣고 싶은 청중이 2명중 1명 꼴이 되었다. 감정이 상하면, 영적 생활도, 대인관계도, 교회 분위기도 냉냉해 지므로 상한 감정 치유설교 역시 필수적이다.

나. 상한감정 치유설교의 의미와 방법

(1) 상한감정 치유설교의 의미

감정이란 내면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다.[462]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고통스런 감정을 갖게 된다.[463] 감정적인 상처는 지적인 상처보다 더 크며, 희망과 에너지를 고갈시킨다.[464] 그 상한 감정을 초래하는 요소들로는 사별, 결혼실패, 사업실패, 사고, 지위나 명예 상실, 건강상실, 충격, 잦은 불화, 심한 잔소리, 엄한 권위하의 양육, 잔혹한 심리적 스트레스, 필요 충족에 대한 좌절, 원망, 분노, 적대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중첩되는 업무환경, 경쟁의 불안과 긴장, 죄책감 등이다.[465] 이러한 상한 감정들은 구원이나 성결케 되는 체험 혹은 정상적인 기도의 효력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466] 그러므로 상한 감정 치유설교란,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춘 설교이다.

(2) 상한감정 치유설교의 방법

---

462) 박형렬, *통전적 내적 치유론 Ⅰ*, 104.
463) Whitfield,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119.
464) Norman Wright,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225.
465) 박형렬, *통전적 내적 치유론 Ⅰ*, 104.
466)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19.

첫째, 다양한 상한 감정 중에서 한가지 주제를 선택하라. 둘째, 원인을 전하라. 셋째, 증상을 전하라. 넷째, 치유원리를 제시하라.[467] 다섯째, 사람들의 감정에게 호소하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감정이란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기심이나 두려움 같은 원초적인 본능에 호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468] 청중들이 마음속에 마치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도록 전하라.[469] 설교자는 회중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아야 한다.[470] 그래야 상한 감정이 더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여섯째,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임을 제시하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한 감정' 즉 '마음이 죄를 향하여 끌리는 성품'까지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아신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시다.[471] 이상의 방법들을 기초로 치유적 설교를 할 수 있다.

제 3 절 치유와 예방기능에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치유와 예방기능에 효과적인 설교로 첫째,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치유설교 둘째,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적설교 셋째,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를 제시한다.

1.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치유설교

가. 관계치유설교의 필요성

인생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472] 많은 상처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상처를 준 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타나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상처를 준 자가 무조건 싫어진다가 68.5퍼센트, 상처를 준 자와 대화를 단절한

---

467) Seamends, 30-33. 상한 감정 치유의 원리를 6 가지로 말했다.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둘째,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셋째, 고침 받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 보라. 넷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라. 여섯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성령님께 구하라.
468) Ralph G. Turbull, "적극적인 설교", 그말씀, 두란노, 1998년 11월호, 70.
469) Ibid., 71.
470) Warren Wiersbe & David Wiersbe, *위어스비가 권면하는 설교의 원리 (The Elements of Preaching)*. 김창모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23.
471)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53-55.
472) 송길원, *쉼터가 있는 삶*, 128.

다가 35.5퍼센트, 상처를 준 자를 말로 공격한다 15.1퍼센트, 상처를 준 자에 대해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가 38.1퍼센트였다. 그러므로 일단 상처를 받으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표 4>에 의하면, 상처 준 자와 싸우겠다가 10.1퍼센트로 나와 있고, <표 5>에 의하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가 29.5퍼센트나 되었으며, '왕따를 당한 상처'도 23.6퍼센트, 헤어짐(사망, 이혼, 실연)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자들은 50.7퍼센트로 인간 관계가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은 <표 6>에 의하면, 친구로부터 39.8퍼센트, 배우자로부터 22.8퍼센트, 부모로부터 13.5퍼센트, 형제로부터 7.6퍼센트, 목회자로부터 5.9퍼센트, 사모로부터 2.5퍼센트, 자녀로부터 2.5퍼센트를 차지하여 가까이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는 자들로부터 도리어 많은 상처를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 9>에 보면, '인간관계 회복에 관한 관계치유설교를 듣고 싶다'가 61.8퍼센트로 많은 교인들이 인간관계 상처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낸 증거다. 보통 관계치유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는데 용기를 얻었다고 말거나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나. 관계치유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1) 관계치유설교의 의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사랑 혹은 보살핌, 신뢰, 존경이나 존중, 이해 또는 앎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관계는 와해되기 시작하고 그 상처는 정신과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73]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박형렬은 말한다.

> 첫째, 지나친 지배자의 모습을 나타내어 자신이 왕처럼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한다. 둘째, 지나친 의존의 모습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은 없고 피동적으로 산다. 셋째, 자신과 자기 세계를 사랑하지 못한다.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렵다. 넷째, 이기적인 모습이다. 언제나 남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본다. 다섯째, 진정한 헌신이 결여되어 있다. 여섯째, 불신과 의심이 팽배하다. 일곱째, 자신의 실수를 부인한다.[474]

그러므로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

---

473) 박형렬, *통전적 내적 치유론 I*, 106.
474) Ibid., 124-128

책감, 원망, 갈등, 근심하는 마음에 빠진다. 결국 긴장감과 모든 종류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낳게 된다.[475]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관계의 성격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476]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포함한다.[477] 그러므로 관계치유설교는 관계속에서 받았던 상처나 충격을 깨끗이 치유하여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다.[478]

(2) 관계치유설교에서 강조점

첫째, 와해된 관계의 결과를 강조한다. 관계가 무너지면, 지, 정, 의에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79] 둘째, 화목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한다.[480] 셋째, 양자 모두 화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 깨어진 관계에서 한쪽은 결백하고 다른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가 모두 잘못된 행위와 잘못 대응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11; 3:4, 갈 5:19-20).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대하여야 한다(갈 6:1-2). 넷째, 자신이 항상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마5: 23; 18:15, 요일 2:10-11). 다섯째, 화목은 은혜의 토대 위에서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결단하고 먼저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여섯째, 원한과 쓴뿌리의 문제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엡 4:31).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해야만 한다(엡 4:32, 마 18:23). 일곱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기본 원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

475)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39.
476) William Backus, Marie Chapian, *편견을 깨드리는 내적치유*, 210.
477)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72.
478) 구요한, *내적 치유 이렇게 하라*, 81.
479)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71. 지성에 끼치는 영향으로 자기 변호, 맞비난, 변명(의식적인 것), 합리화 혹은 다른 방어기전(무의식적인 것), 혼돈(혼란)을 말했다.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처, 슬픔, 상실감, 고독감, 우울, 원한, 쓴뿌리, 적대감, 분노, 시기, 질투, 죄책감, 후회, 자책, 정죄감, 두려움, 공포, 염려, 무관심, 무감정(관계의 죽음)을 말했으며, 행동에 미치는 결과로는 공격, 마찰, 충돌, 말다툼, 대결(싸움), 물러나기, 회피(도망)이라고 말했다.
480) Ibid., 173.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라. 이 용납은 문제 해결보다 우선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인격체로, 새로운 관계로, 은혜를 바탕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호 신뢰와 사랑, 존경과 이해 속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강조해야 한다.[481]

2.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가. 말의 상처 치유설교의 필요성

<표 2>에 보면, '주로 말에 상처를 받는다'가 46.5퍼센트이고, 보통 이상은 77.0퍼센트를 차지했다. 결국 4명중 3명 정도는 대부분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씨맨즈는 말의 상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비난의 말은 단 한마디라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반면 칭찬의 말은 쉽게 잊어버린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기 행동에 관한 말보다 자기의 인격 자체에 관한 말에 더 깊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상처를 주는 말은 행동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 즉 자신에 관한 개념과 느낌들이 생성되는 그곳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긴다"[482]

그러므로 <표 3>에 의하면, '상처를 준 자를 말로 공격한다'가 15.1퍼센트, 보통 이상이 43퍼센트로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 분노하고 말로써 다시금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말이다. <표 5>에 의하면, '현재 말에 받은 상처가 있다'가 44.8퍼센트이며, 보통 이상은 65.9퍼센트로 3명 중 2명이 말의 상처 때문에 현재도 고통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표 9>에 의하면,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를 듣고 싶다'가 63.4퍼센트를 차지했고, 보통 이상은 85.8퍼센트로 많은 교인들이 말의 상처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어했다. 특별히 말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인간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 3:6)고 말의 악한 영역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애를 불사르는 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말들은 지옥 불, 즉 사탄의 악한 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483] 그러므로 말의 상처 치유 설교는 자주해야 한다.

---

481)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172-176.
482) Seamends, *치유하시는 은혜*, 178.

나. 말의 상처 치유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1) 말의 상처의 현실과 치유설교의 의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모든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말에서 시작된다.[484]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힘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도 언어이다.[485] 그런데 가정과 학교, 직장, 각종 모임, 심지어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농담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언어 폭력이다.[486] 특히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언어폭력은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며, 두려움, 대인 공포증, 자신감 상실을 갖게 한다.[487] 말이란 이처럼 무섭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무서움을 정확히 아시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488]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상처를 받지만, '사랑한다, 염려한다, 기대한다 등'의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들에서 오는 상처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소중한 영향을 끼쳐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인간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489] 말이 인간을 성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490]그러므로 말의 상처 치유설교란, 말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예방하는 설교이다.

(2) 말의 상처 치유설교의 강조점

말로 인한 상처나 회복에 대한 사례, 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등을 제시하여

---

483) 도은미, *대화학교* (서울: 두란노, 1996), 25.
484) 송길원, *쉼표가 있는 삶*, 133.
485)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109.
486) Grace H. Ketterman,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Verbal Abuse)*,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6. 그의 책 11-12 페이지에서 "언어폭력을 자세히 정의했다. 첫째,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여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는 행위다. 둘째,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어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행위다. 셋째,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낙인찍어 자신감을 잃게 하는 행위다. 넷째, 공공연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다. 다섯째,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다. 여섯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다. 일곱째, 상대방을 자신과 비교해 평가 절하하는 행위다"
487)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120-121.
488) Ibid., 117.
489) Ibid., 121.
490) 정태기, "치유설교"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쿰란 출판사, 2003), 235-236.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치유설교에서 강조할 점은 첫째,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한다.[491] 둘째, 말의 상처가 주는 피해를 말한다. 셋째,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에 대한 원리를 말한다. 넷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한다.[492] 다섯째, 좋은 언어를 삶 속에서 사용하도록 결단시킨다.[493]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는 개인의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예방케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설교

가. 상담설교의 필요성

사실 상담설교는 치유설교와 다를 바 없지만,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만 갈등과 문제를 풀어주는 측면으로 상담설교를 분리했다. '가장 듣고 싶은 설교조사' <표 1>에 의하면, '인생의 고난설교'가 65.2퍼센트, '삶의 문제설교'가 65.1퍼센트, '가정생활 설교'가 73.6퍼센트로 많은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문제들로 갈등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표 4>에 의하면, '상처를 받으면, 목사나 사모, 신앙인과 상담하겠다'가 44.8퍼센트로 나타났다. 보통 이상은 76.1퍼센트로 누구나 다 상담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데는 부담을 갖고 있다. <표 8>에 의하면, '교회 상담을 통해서 푼다'가 27.8퍼센트, '설교를 통해서 푼다'가 56.7%가 되어 개인상담보다는 대중상담식 설교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상담설교 후 교인들의 개인 상담 요청이 있는 반응을 볼 때 상담과 설교, 설교와 상담은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임을 본다. 교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설교를 통해서 부담감 없이 해결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담설교는 이중효과가 있다.

나. 상담설교의 의미와 방법

(1) 상담설교의 의미

'상담설교'는 '설교를 통한 상담'이다.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

491) 도은미, *대화학교*, 24-28, 말의 권세는 첫째, 영적이다. 말은 소리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둘째, 말은 현실을 빚어낸다. 셋째, 말은 한 인간의 인격 유형이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넷째, 말은 관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말은 관계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한다.

492) Ketterman,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247.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한 언어 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493) 정태기, *숨겨진 상처의 치유*, 127-140. 언어를 네 종류로 나누었다. 첫째, 입술의 언어다. 둘째, 머리의 언어다. 셋째, 가슴의 언어다. 넷째, 혼(영)의 언어이다.

설교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에 교훈을 줄뿐만 아니라, 예견되는 유사상황의 위기들을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얻게 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줌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다. 주로 상담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서 시작하여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상처를 회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기능(dysfunction)과 부적응(maladjustment)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다.[494] 상담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며, 말씀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상담설교자는 회중의 삶에 민감해야 한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상담설교 준비는 회중의 표정을 살피는 일과 개인상담, 목회심방, 일상의 대화까지도 상담설교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495] 또한, 설교의 형식에 상담의 기술을 조화시켜야 하는 설교이다. 상담의 기본적인 기술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그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실재의 상황에 적용하여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상담인데, 상담설교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설교에 도입한 것이다.

(2) 상담설교의 방법

캡스(Capps)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해 가는 네 단계 과정을 설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496] 그러나 김만풍은 주로 상담의 주제들을 취급하여 설교했다. 그는 4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둘째, 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셋째,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넷째,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중의 삶을 관찰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예리하게 찾아내어 그들에게 섬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성경본문을 택하고 그 전후문맥과 내용을 다각도에서 파헤치고 그 작업에서 얻어진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

---

494) 김만풍, *상담설교*, 19-21.
495) Ibid., 22.
496) Donald Capps, 각주, 352) 재인용.

다[497] 고 했다. 김만풍은 그의 상담설교를 구성해 나감에 있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는 말씀', '원리의 제시와 적용', '맺는 말씀'이 그것이다.[498]

제 4 절 치유 및 재활 기능에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치유와 재활기능에 효과적인 설교로 자존감을 높여 주는 자아상 회복설교와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존감을 높여 주는 자아상 회복설교

가. 자아상 회복설교의 필요성

<표 2>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처받는다가 48.2퍼센트로 나왔다. 또 <표 5>에 의하면, '외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보통 이상'인 자가 39.7퍼센트로 5명 중 3명이 현재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외모의 특징을 가지고 지은 별명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서 알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있다가 44.7퍼센트가 나왔다. 결국 거의 두 명 중에 1명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를 학대하며 자존감이 낮다'가 43퍼센트나 나온 것을 보면 자존감의 문제가 중요함을 느낀다. 자존감이 낮으면 매사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여 주는 자아상 회복설교가 필요하다.

나. 자아상 회복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자아상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 둘째, 자신이 중요하다는 가치감. 셋째, 자신감이다.[499] 이 세 가지가 구비될 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중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짐으로 소속감을 갖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며, 주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어서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설교이다.

---

497)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말씀*, 1994년 11월호, 128.
498) 김만풍, 상담설교, 79.
499) Seamends, *상한 감정의 치유*, 79. 상담가 머리스 와그너 박사의 저서 "*가치있는 사람이 된 느낌*"(*The Sensation of Being Somebody*, Zondervan, 32-37)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상의 회복설교에서 강조할 점은 첫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라. 앤더슨(Anderson)은 "자존감은 재능이나 은사, 지능, 미의 문제가 아니고, 자아의식의 문제이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500]고 말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신케 하라.[501]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신케 하라.[502] 네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존감의 상처가 있는 자들을 용납하시듯이 자신을 용납해야 함을 강조하라. 다섯째, 상처가 있는 자는 자기를 거부하는 오래된 습관과 질투, 원망, 분노와 용서하지 않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케 하라. 여섯째,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강조하라. 일곱째, 자신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도록 강조하라.[503]

2. 좌절된 꿈을 치유하는 치유적 설교

가. 좌절된 꿈 치유설교의 필요성

<표 9>에 의하면, '좌절된 꿈에 관한 치유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한 사람은 52.4퍼센트를 차지했고, 보통이상이 무려 88.8퍼센트를 차지한 것을 볼 때 교인들은 현재의 삶이 과거 자신이 생각했던 꿈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1명 정도만이 현재의 삶이 자신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모두 좌절된 꿈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상처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표 1>에 의하면, '삶의 문제 즉, 꿈, 이성, 결혼, 우정, 성공, 행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가 65.1퍼센트였고, 보통 이상은 92.2퍼센트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서 좌절된 꿈에 대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좌절된 꿈 치유설교는 새로운 소망을 심어 줄 것이다.

---

500) Neil Anderson, *Victory Over the Dakness* (C.A.: Regal Books A Division Gospel Light, 2000), 34.

501) Craft,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208-211

502) Ibid., 205-206.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고(엡 1:4, 렘 1:5),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창 1:26). 모태에 있을 때 보셨고(시 139:13, 15).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 구속하셨다(롬 5:8). 선택하여 친구라 부르셨고(요 15:15-16). 자녀로 부르신다(요일 3:1-2, 요1:12).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롬 8:14-17). 성도라 부르며(롬 1:7),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벧전 2:9). 우리는 왕의 자녀다. 이는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다.

503) Ibid., 211. John Bradshaw는 *당신을 속박하는 수치심의 치유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이라는 책에서 긍정적인 혼잣말을 할 수 있게 돕는 일곱 가지 방법을 말했다.

나. 좌절된 꿈 치유설교의 의미

(1) 좌절된 꿈의 원인과 증상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이루고자 열망했던 마음의 소원을 의미한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꿈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꿈들은 우리의 자만심이나 이기심, 미숙함과 죄악, 그릇된 선택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사건들과 환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가 일쑤이다.[504]

옛날부터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가정적인 남편을 원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후회가 된다. 속상하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결혼 탓이고, 어려운 환경 탓이고, 내 탓이라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지금은 체념하며 산다. 등' 나도 어려운 과거를 살아온 사람인지라 꿈이 좌절된 이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이들을 위한 치유적 설교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2) 좌절된 꿈 치유설교의 의미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뜻과 우리의 꿈 모두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현실적인 꿈들을 정련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꿈들을 복구하시며, 우리의 실현이 늦어지는 꿈들을 생생하게 보이시고, 우리의 산산조각이 난 꿈들을 재조립하시기 위해 은혜로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50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깨어진 꿈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산산조각 난 삶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506] 그러므로 좌절된 꿈의 치유설교는 이미 실현할 수 없는 꿈들은 정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며, 아직도 새롭게 이를 수 있는 꿈들을 소망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재활시키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좌절된 꿈이 치유되고 나면,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뼈처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에 의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튼튼해 질 수 있다.[507] 교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설교이다.

---

504) Seamends, *좌절된 꿈의 치유*, 20.
505) Ibid.
506) Ibid., 19.
507) Ibid., 89.

3.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

가. 비전설교의 필요성

<표 9>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를 듣고 싶다가 71.1퍼센트, 보통이상이 93.9퍼센트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현실의 삶에서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케 하는 비전설교를 듣고 싶어했다. 왜냐하면, 비전은 정한 방향대로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508] 그것은 안쪽에서 밖으로 몰아내는 추진력과도 같고, 밖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자석의 견인력과도 같다.[509] 비전은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과 열정을 더해 준다.[510] 그러나 상처는 항상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고,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이 없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상처에 넘어져 연약한 성도만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처 치유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재활적 차원에서 비전설교는 꼭 필요한 치유적 설교라고 본다.

나. 비전설교의 의미와 강조점

하나님은 구속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511]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인간들 사이에 상호 용서를 통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512]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역동적 의미를 가진다.[513] 그러므로 구원이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상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도리어 상처 준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 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

508) Stanley, *상한 감정 클리닉*, 18.
509) Seamends, *좌절된 꿈의 치유*, 12.
510) Dale Galloway, *20/20 비전(20/20 Vision)*,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4), 43.
511) Seamends, *좌절 된 꿈의 치유*, 28.
51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50.
513) Ibid., 50.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면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21절)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사랑의 이중 계명(하나님 사랑, 이웃사랑)[514]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자이다. 그러므로 죄와 상처를 치유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50-20 비전이다.[515] 그 동안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환경만 보며, 원망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설교의 의미이다. 그래서 아무리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실현하신다.[516]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전설교의 강조점은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50-20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처받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치유 받은 자로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킴으로 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517] 셋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라.[518] 즉,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비전을 제시한다.[519]

이제 상처로 아파했던 청중들을 설교를 통해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 훨씬 더 건강한 교인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만드는 50-20 비전 설교를 마지막으로 제시한다.

제 5 절 치유적 설교의 치유 효과 증대를 위한 방법들

설교는 청중들에게 들려져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에 청중의 참여가 있을 때 청중의 공감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의 방법 중 몇 가지를 설교에다 적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51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72.
515) Seamends, *좌절된 꿈의 치유*, 207-210. 씨맨즈는 요셉이 말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50-20 환상이라 명명했다.
516) Ibid., 190-191.
517)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126. 나우웬은 "교회가 치유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518) 이성훈,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164.
519) Nouwen, 127.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1. 유사한 치유사례 인용방법

가족 혹은 부부 치유 프로그램 중에 유사상황을 만들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함으로써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유사상황 만들기'(creating analogous situations)[520]라 하는데 이 방법은 비유를 사용하는 중재방법이다. 이는 인간의 경험을 압축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개인 혹은 가족의 문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또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제상황에 대해서 장황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담자가 제시하는 비유적인 유사성에 내담자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치료 목표의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521]

이 방법을 설교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사례를 통해서 유사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청중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설교주제에 맞는 사례를 미리 준비하여 설교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인용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치유적 설교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2. 고백적(confessional) 간증방법

설교자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온 간증이면 더 효과적이다.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설교자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억제해 왔으나 최근의 설교학에서는 클레이폴(John Claypool) 목사처럼 고백적 설교가 장려되고 있다.[522] 그래서 설교자가 회중들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청중들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씨름하고 의심하고, 고뇌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보여줄 때 회중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된다.[523] 또 교인들의 간증을 직접 하게 할 수도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게 음향실에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미리 해 놓고 틀어 줄 수도 있다.

3. 치유관련 비디오 및 영상 클립(Clip) 상영방법

현대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대이다. 그 가운데 영상 미디어는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많이 의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자

---

520) Robert Sherman & Norman Fredman, *부부 가족치료 기법 (Handbook of Structured Technique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김영애 역 (서울: 하나 의학사, 1996), 61.
521) Ibid., 61.
522)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227.
523) Ibid., 228.

극적, 전체적, 즉각적, 편재적, 참여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우뇌를 담당하는 청각, 시각, 촉각, 음악, 예술, 상징, 정서, 직관, 창조성, 침묵, 영성, 종합성, 동시성, 추상성, 등이 포괄되는 통시적(synchonic)인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524]

트뢰거(Thomas H. Troger)는 설교의 영상성과 드라마틱 요소를 강조하면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설교전략(strategies)을 열 가지로 말했다. 그 가운데 생생한 스토리(story)로 구성, 비유(parable) 사용, 말씀을 이미지(image)로 영상화, 영화대본(movie manuscript) 사용, 영화에서 과거 장면을 갑자기 비춰는 플래쉬백(flashback) 사용 등을 말했다.[525] 크래독(Fred B. Creddock)은 "현대인들은 언어감각이 달라졌고, 영상시대가 도래했고, 청중이 달라졌고,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설교도 갱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526] 그러므로 치유관련 비디오 사용방법으로 부부 및 가족치료기법 가운데 하나인 '비디오 테이프 재생'(videotape playback)이 있다. 이 방법은 화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 기법은 연기자가 시청자가 되어 실제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시청하는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된 부분적인 요소들이 논의되거나, 해석되고, 분석되며, 재연되기도 한다.[527] 이런 방법을 설교에 도입할 수 있다. 편집과정 및 재생에 차이는 있겠지만 한 주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시사성이 있는 내용, 영화의 한 장면을 담은 영상 클립[528],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한 회중의 견해 등을 묻는 인터뷰 형식의 녹화를 준비하여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재생하여 짧은 시간 상영한다면 그 설교는 청중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4. 스킷 및 드라마 공연방법

부부 및 가족치료 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빈 의자 기법'(the empty chair in family therapy)[529]이다. 내담자 앞에 빈 의자가 있고, 그 빈 의자에 내담자가 만나

---

524) 노영상,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비디오형의 말씀 선포", *현대사회와 예배 · 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314-315.
525) Ibid., 316-317. cf. Thomas H. Troger, *Ten Strategies for Preaching in a Multimedia Cul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526) 이연길, 왜 이야기 설교인가, *미주목회*, 창간호, 2005년 3월호, 120-121.
527) Robert Sherman & Norman Fredman, *부부 가족치료 기법*, 361-365.
528) 영상설교용(clip)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다. ww.screenvue.com, wwww.churchslides.com www.creativepastor.com, www.igniter videos.com, www.photospin.com

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다. 일종의 모노드라마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속에 쌓여 있는 아픔을 풀어내므로, 내담자를 치료해 가는 방법이다. 이를 설교에 적용하면, 스킷이나 드라마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대사와 동작 그리고 배경 음악 등을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듣기만 하는 설교를 '보는 설교'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메시지의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중들은 머리 속으로만 개념을 정리하는 데서 벗어나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접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경험적 상황으로 접할 수 있다.[530]

더 중요한 것은 스킷이나 드라마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노출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동안 청중들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모습이나, 상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드라마 상의 대화가 노골적이면서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졌을 경우 청중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언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며, 반성과 도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스킷이나 드라마는 설교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지, 전체가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서론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스킷이나 드라마 형식으로 하고 난 후에 설교자가 상처나 갈등의 해결 방법을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설교해 나가면 되는 방법이다.

이상의 방법들을 사용하면, 치유적 설교의 치유 효과도 높일 수 있지만, 청중들이 설교에 몰입하는 효과와 설교를 삶에 적용하는데 매우 역동적이라는 큰 장점도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

529) Robert Sherman and Norman Fredman, 110-114. 빈 의자 기법은 프레드릭 펄스(Frederick Perls)의 저서 *형태치료*에 의해 널리 소개되었다. 참고, Frederick S. Perls, *Gestalt Therapy Verbatim* (Utah: Real People Press, 1969).
530) 정인교, *설교 만들기*, 240-248.

결 론

오늘날 많은 설교가 청중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청중들의 시급한 필요, 혹은 피부에 와 닿는 필요(felt-need)를 무시한데서 온다고 생각한다. 어떤 유형의 설교이든 한 시대를 흔들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는 한결같이 청중들의 필요에 민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531]

머렌(Dough Murren) 목사도 설교자는 (1) 회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2) 회중들의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3) 회중들의 관심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연관성과 적용이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32]

이 가운데 회중들의 아파하는 이유를 심방이나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상처가 있어서 신앙과 인격 그리고 인간관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했다.[533] 가끔 치유적 설교 통해 그들이 치유 받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설교자들의 기쁨이다. 특별히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에 와서 이민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설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1 절 논문의 요약

---

531)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167.
532) 계지영, *현대 설교학 입문*, 226.
533) 최효섭, "그대의 청중은 누구인가?", *이민목회*, 125-129. 이민목회 30년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을 6가지 특징으로 말했다. ①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들(외로운 시대) ②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불안한 시대) ③ 병들고 오래사는 사람들(회색 물결시대) ④ 욕심을 좇는 사람들(황금 제일주의 시대) ⑤방황하는 사람들(방향 상실의 시대) ⑥ 한국적 전통문화에 젖은 사람들(복합문화 시대)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목인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 방안'을 위하여, 왜 이민자들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미주 이민의 역사를 간략히 서술했다. 소수 민족의 설음, 이민법의 횡포,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로 천대받음, 전쟁부인들과 입양아들의 아픔으로 점철된 이민의 역사,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이민교회의 사명, 모두다 상처로 얼룩진 이민역사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결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 교인들도 역시 다양한 상처들을 안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상처들을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제 2 장에서는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일반적, 성경적, 신학적인 이해들을 다루었다. 상처도 마음으로 받고 설교도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도 소중하게 보셨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어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막히게 하며, 교회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한인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많은 것은 이 상처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마음의 상처의 원인과 증상, 발전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 3 장에서는 치유목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설교는 치유 목회 방법들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설교자가 알아야될 기본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목회자들은 각자의 목회철학과 받은 사명에 따라 다양한 목회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치유사역은 필수적으로 있어왔다. 오늘날도 불안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치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회사역이다. 그러나 설교만 가지고 다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치유목회 방법들을 제시했다.

제 4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설교는 목적에 따라 여러갈로 나누지만, 특별히 치유적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회중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기능과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이므로 그 개념을 알고, 오늘의 청중들에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치유적 설교의 기본 원리들과 기능들을 연구해 보았고,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 치유적 설교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교인들의 균형있는 신앙성장을 위해서 치유 설교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설교자가 균형있게 골고루 설교할 것을 제안했다.

제 5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치유적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치유적 설교의 주제선정의 동기나 원리들, 구체적인 주제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교의 준비단계, 작성단계, 선포단계를 보았고,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다루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교회에서 설교한 치유적 설교 3편을 부록에 담았다.

제 6 장에서는 마음의 상처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효과적인 설교방안을 위해서 설교 목표설정, 내용선정과 설교계획을 제안했고, 구체적인 설교방안으로써 크게 3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나눠본 것이다. 첫째, 치유기능에 효과적인 설교 둘째, 치유와 예방기능에 효과적인 설교 셋째, 치유와 재활기능에 효과적인 설교를 제시했다. 이는 교인들의 다양한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다루어 치유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눈 목적은 치유적 설교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상처에만 머무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는 동일한 상처에 쓰러지지 않고, 50-20 비전과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치유공동체 교회를 만들며,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치유적 설교 단계와 방향을 설정, 제시했다.

치유적 설교가 더 효과적으로 증거 되어 치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치유사례 인용과 고백적 간증, 영상시대에 맞게 치유관련 비디오 및 영상 클립(Clip) 상영방법, 스킷 및 드라마 공연방법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계속 도입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설교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를 통한 제언

본 연구자가 계속 설교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연구해 온바 그 답을 제시하였다. 이젠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매주 설교하

는 설교자들에게 제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설교하기 전에 먼저 청중들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심방이나 설교를 통해서 파악하겠지만 실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너무도 적은 숫자가 목회자나 사모와 상담하는 것을 알았다. 청중 파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제안하고 싶다. 청중을 알아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며, 청중에게 들리고, 가슴에 닿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때 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설교자들은 치유설교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본인도 논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회중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무작정 믿으라는 외침보다 도움되는 지식들을 알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치유책을 제시 한다면 더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성경말씀도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새롭고 풍성한 설교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설교자들은 구체적인 치유적 설교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매년 설교 계획을 세울 때 치유적 설교를 매달에 1회씩 하든지 아니면 시리즈 설교를 하든지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야할 주제를 미리 계획하면, 설교 준비도 편하고 치유설교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상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유적 설교의 주제들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치유적 설교 주제를 다 다룰 수 없다.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 자신이 준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설교의 방법이나 수단이 교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단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치유적 설교 방안을 찾아가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성경적 치유설교를 제안한다. 보통 치유적 설교가 인간의 심리학을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교인들의 문제나 삶의 상황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말씀 속에서 찾은 치유원리로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터이고,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 록

치유적 설교의 예 1) 좌절된 꿈의 치유설교

설교 : 이성권 목사
본문 : 창 37:18-28
제목 : 그래도 꿈은 진행 중

작년에 아버님과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반쪽 고아가 되고, 아내는 완전고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신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나이를 먹었는데도 마음이 아픈데 1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은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큰 상처입니다.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편애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복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루는 밭에서 수확을 하는데 자신의 볏단은 서고, 열한 볏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며칠후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봅니다. 형님들은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얼마 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는 도단(dothan)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칩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면서 그를 죽이자고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줍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꿈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갑작스런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꿈이 좌절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의 꿈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꿈이 진행 중임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도탄(Distress)에 빠질지라도 입니다(18-24)

원래 요셉이 빠진 우물은 도단(17절)이라는 곳에 있는 우물입니다. 도단의 히브리어 발음은 도탄(두 우물)입니다. 결국 요셉은 도탄에 가서 도탄에 빠집니다. 한국어 사전에서 도탄이란? "진흙구덩이나 숯불과 같은 데 빠졌다"다는 뜻으로 '몹씨 고통스러운 지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찬란한 꿈을 꾸며 미래를 기대하던 요셉은 도리어 그 꿈 때문에 도탄에서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도탄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사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오셨는데 도탄에 빠지신 분은 없습니까? 핑크빛 꿈을 꾸며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부부싸움으로 도탄에 빠지신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꿈 많은 젊은이인데 남이 걸리지 않은 질병으로 도탄에 빠지신 분은 없습니까? 사귀던 이성친구가 마음이 변함으로 도탄에 빠져 방황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 도탄에 빠지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자'란 책을 쓴 David Seamends가 인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1년도 못되어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극성 박테리아성 이질"에 걸려 죽습니다. 이때 그분의 아버지가 달려 오셔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시더니 "아버지, 저는 이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도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자신이 도탄에 빠졌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꿈에 맞는 사람으로 연단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F. B. 마이어 목사님은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역경의 강철로 만든 면류관을 씌운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악몽같은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도탄에 빠진 것이지, 꿈까지 도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탄에 빠진 상황에도 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25-28)

이때 마치 항구로 배가 들어오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 처한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timing)을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Oswaid Chambers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기관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상인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동생을 죽이기보다는 저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해서 은 20을 받고 팝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살아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살 수 있는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마 집에 계속 있었으면 형들 때문에 계속 고통 당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사형에서 무기 징역, 무기징역에서 유배되듯이 인신매매 되어 타국으로 팔려갑니다. 상황으로 보면 더 깊은 도탄으로 빠져 가는 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과 지금 애굽으로 팔려 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된 꿈으로 인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셋째, 꿈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창 45:8)

꿈을 믿고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꿈은 헛된 꿈입니다. 야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꿈의 사람이 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

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는 길에 수없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가 훗날 형님들을 만났을 때 말한 신앙 고백적인 간증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창45:7-8)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도단에서부터 육신의 아버지를 목이 매이도록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그에게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고, 이제는 오직 나 혼자뿐, 날 도와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욥 23:8-10)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목이 메이도록 불렀을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류 구원의 꿈(19)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도리어 미움받고, 팔리고, 죄인 취급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도탄에 빠지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꿈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절된 꿈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치유적 설교의 예 2) 상한 감정 치유설교

설교 : 이성권 목사
본문 : 시 143:1-6
제목 : 마음이 상할 때

요즘 가을 단풍길을 운전하다보면 하나님이 그리신 한 폭의 수채화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입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곱게 물감들인 단풍은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부정적이어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입력된 긍정적인 자극들은 의식의 표면에 머무르면서 쉽게 표출되고 발산되지만, 부정적으로 경험된 자극들은 계속 억압되면서 마음속에 깊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져서 불결한 창고가 됩니다. 또한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마음은 상한 감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상한 감정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인간관계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상한 감정을 치유 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4)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폐허, 황폐)하다."고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참담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는 배반하고, 사랑하는 아들은 반역하여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배신감, 분노, 수치심, 두려움, 절망, 염려, 죄책감, 패배감, 미움, 증오, 분노 등 온갖 상한 감정이 뒤범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처리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번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우리도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도 치유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첫째,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1-4)

보통은 마음이 상하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상한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위대한 행동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신이 통제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해결하는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1-2)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먼저, 다윗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회개기도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람에게 하면 신세타령이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면 간구입니다. (3-4)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과 고난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전화 한 대를 개설해 놓고, "욕을 들어준다" 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치듯이 걸려 왔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와 같은 전화가 있답니다.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들의 울분이나 분노를 쏟아 놓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누군가에게 상한 마음을 쏟아 붓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다보면 더 상처

받는 일이 생기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의 상한 감정을 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되는 소화불량 음식과 같은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시62:8)"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실 때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토하심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둘 번째,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습니다(5)

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행동입니다. 대부분 속이 상하면 기분 나쁜 일을 먼저 회상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나쁜 상처들까지 다 끄집어내어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처 속에 더 빠져 들어가 허우적대고 마음은 더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상처에서 멀리 빠져나와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습니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합니다. 원망할 상황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촌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랜 세월동안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회상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과거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들을 회상하다보니, 현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다고 그 상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 놓으면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문제해결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은 사람에게는 잠잠히 하고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렘애 3:24-26)" 그렇습니다. 회복의 날은 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승리합시다.

세 번째, 마음이 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6)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폈다는 말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확실한 결단입니다. 보통은 화가 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립니다. 죄를 더 짓습니다. 할말 못 할말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풀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닙니다.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손을 활짝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항복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항복합시다. 회개합시다.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신앙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게 상처받으신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뭇 사람들과 제자들의 배신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흘리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상처받은 생애였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아픔과 수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십니다. 다윗도 주님을 본받아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적 설교 예 3) 관계치유설교

설교: 이성권 목사

본문: 엡 2:11-18

제목: 담(wall)

스킷 제목: "담" (작가: 그로리아 J. 에반즈)

연출/출연: 박주영, 나레이션: 조승현 (능력침례교회 아멘 연극단)

(스킷 대본 대신에 스킷 해설을 쓰겠습니다)

'담'은 스스로 담을 쌓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담을 쌓으며, 자신이 쌓은 담의 디자인을 보며 흡족해 한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이 쌓은 담에 갇혀 그곳에서 극한 어둠과 차가움과 외로움을 체험한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쌓은 담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오신다. 그녀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담을 부수고 회복된다. 회복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과 상처를 안고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다.

담을 쌓는 여인은 바로 현대인의 실존이다. 현대인은 '담' 속의 주인공처럼 누구나 자신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담을 보며 스스로 흡족해 한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담은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담이다. 담을 쌓은 사람은 차갑고 외로운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담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 스킷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가두는 질투심과 분노과 환멸과 이기심과 고집과 자기연민과 교만과 두려움과 불신과 무관심의 담을 헐어 버리고 밖으로 나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 나아가서 치유 받은 그 여인이 이제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파송 된다는 결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을 스킷으로 설교 전에 설교의 주제에 맞게 공연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그로리아 J. 에반즈의 "담"이라고 하는 스킷을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공감하시지요? 오늘 그 담을 무너뜨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목동이 한 목장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씨가 맑은 날, 양들은 풀을 잘 뜯 어 먹고 있었고, 깨끗한 시냇물이 목장 가운데로 흐르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한 목동이 심심해서 "우리 담 쌓기 놀이를 하자" 고 제안했습니다. "그거 재미있겠다." 두 사람은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목장 한가운데를 나누어 담쌓기를 시작했습니다. 담쌓기를 끝냈을 때는 무릎에도 못 미치는 높이였습니다. 갑자기 한 목동이 "이쪽은 내가 주인이다!" 라며, 자기 쪽은 자기가 목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다른 목동이 갑자기 목이 말라서 담을 넘어 시냇물을 마시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 때 다른 목동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그건 내 물이야!"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놀이하고 있잖아!" "그래, 그렇지만 이 쪽은 내가 주인이야" 속이 상한 친구는 자기 땅에서 물이 나오나 보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라는 물은 나오지 않고, 보석이 가득 든 보물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보물을 보더니 시냇물을 못 먹게 한 친구가 "야, 우리 부자 됐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물을 찾은 친구가 화가 나서 "뭐? 우리라고? 야! 웃기지마, 이건 내 꺼야." 그러나 보석은 가졌지만,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진 친구에게 말합니다. "진주목걸이 하나 줄 테니, 물 한 바가지만 주라" "그래! 좋아" 이래서 물물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냇물이 있는 친구는 진주목걸이 하나를 얻기 위해 물 한 바가지를 떠 왔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가 물을 먹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럼 나는 목걸이를 걸어 줄께" "좋아" 물을 마시면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던 친구가 줄을 힘껏 잡아당겨서 친구를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친구를 내려다보다가 자기도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온 친구가 그 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 돌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에드나 밀레이가 쓴 '아리아 다 까포'라는 비극시로써 이 세대를 풍자한 시로 인간의 이기심이 사람과 사람사이에 수많은 장벽(담)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시의 내용입니다. 이 비극시는 놀이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담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자존심 하나 상해도 작은 돌을

그 앞에 쌓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또 쌓게 되고, 또 상처 받을까봐 내 스스로 보호벽을 쌓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담을 쌓습니다. 돌이 적었을 때 빨리 치우지 않으면, 점점 높이 쌓이게 되어서 "나, 저 사람과 담 쌓어!" 라고 말합니다.

Q; 옆을 한번 둘러봅시다! 돌을 몇 개나 쌓았습니까?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 담은 남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가둡니다. 자기의 지경이 좁아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담을 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담(돌)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돌을 갖다 놓지 않았나 돌아보고, 돌을 쌓았다는 느낌이 오면, 곧 바로 전화하세요. 담쌓기 전에 돌을 먼저 내 편에서 치우세요. 남의 허물만 보지만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십시오.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아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담은 정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담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을 쌓으면, 그 담을 헐려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노력합니다. 그럴 때 받아 주세요. 받아 주지 않으면, 저 사람도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2중담(벽)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 담을 헐기가 어려워집니다. 본문에도 많은 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1-12)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들입니다.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적어도 7중 벽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담들이 세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담 안에 둘러 쌓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사이, 선후배, 스승과 제자,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형제, 고부사이, 한 몸이라는 부부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으면 피차 편치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Q; 여러분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습니까? 저는 없는데 혹시 있으시다면 빨리 허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동산에 거하던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으며, 이후로 인간과 인간사이에도 담이 생겼습니다. 죄의 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가로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쌓은 죄악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13-16)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프라그모스)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무력케)하셨으니 이는 이 둘(유대인/이방인)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교회 공동체)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플러스(더하기)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나와 이웃을, 나와 나를 더해 줍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악의 담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어졌고, 나와 이웃 사이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7-18)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허물어버리신 담을 우리가 다시 쌓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희생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의 담을 허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담을 헐고 사랑으로 하나되어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죄악의 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허시고, 사람들과 담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만나시던지, 전화를 하시던지 하셔서 담을 허시고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들과 나 사이의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강병도. "창세기". *호크마 종합 주석*. 서울: 기독 지혜사, 1989.

계지영. *현대 설교학 개론*. 서울: 장로교 출판사, 2001.

고병인. *목회와 상담*. 서울: 예인, 1996.

고영민. *성구원어 대사전*. 서울: 교문사, 1984.

구약신학사전.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9.

구요한. *내적 치유 이렇게 하라*. 서울: 백합 미디어, 2002.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2.

김경수. 치유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4.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김득용. *현대목회 실천론 신강*. 서울: 총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말씀*. 1994년 11월호, 128.

_____.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챤 서적, 1995.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김신명. *치유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성결 문화사, 1995.

김예식. *우울증 치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8.

김종주. *셋이서 만드는 가정 행복*. 서울: 예솔, 1996.

김 진.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울: 프인돌, 1999.

김창수. *설교자여, 시대를 살리는 설교를 하라*. 서울: 엘맨, 2002.

김형준. "헤리 에머슨 포스딕을 중심으로 한 상담설교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예배·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김태복. "한국교회 성장과 치유설교". *월간 목회*. 2002년 3월호, 70.

노영상.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비디오형의 말씀선포". *현대사회와 예배·설교사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도은미. *대화학교*. 서울: 두란노, 1996.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서울: 두란노, 1991.

문상기. "설교의 구속사적 이해와 현대설교의 과제". *현대사회와 예배·설교사역*. 서울 :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 문화사, 1997.

_____. *설교가 전달되지 않은 18가지 이유*. 서울: 규장, 1998.

_____.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16가지 설교 구성법*. 서울: 규장, 2000.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서울: 목회신학 연구원, 1993.

_____. *치유목회학*. 서울: 치유, 1994.

_____. *통전적인 치유목회학*. 서울: 나임, 1994.

_____. *통전적 목회학*. 서울: 나임, 1995.

_____. "전인 치유 사역의 현장과 실제".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제 20권, 1997, 268.

_____. *통전적 내적치유론 1*. 서울: 치유, 2001.

배창돈. *큐티를 하고 싶습니까?*. 서울: 예루살렘, 1993.

송길원. "상담 설교의 필요성." *그말씀*. 1994년 11월호, 115.

_____. *쉼표가 있는 삶*. 서울: 두란노, 1996.

신성종. "신약성경 속의 치유설교". *월간목회*. 2002년 3월호, 61.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안석모. "감정을 이해하면 치유의 길이 보인다". *목회와 신학*. 2003년 8월호, 91-93.

엄예선. *가족 위기들과 가정사역*.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1997.

_____. *목회 가정 상담*.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1998.

오성춘. "치유목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기독교 사상*. 1984년 1월호, 58.

_____.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8.

위성교.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서울: 좁은 문, 1995.

유의영. *미국의 한인사회*. 뉴욕: 뉴욕 한인회, 1986.

_____. *한국 이민 교회사*. D. Min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유진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서울: 두란노, 2003.

윤남옥. *날마다 치유하는 가정*. 서울: 진흥, 1998.

윤현철. *당신도 상담 ·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서울: 아바, 1997.

이관직. "치유의 목표, 무엇이어야 하나". *목회와 신학*. 1999년 7월호, 59.

_____.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보배입니다". *목회와 신학*. 2003년 8월호, 51-52.

이기춘. "기독교 치유와 영성". *기독교 사상*. 1988년 4월호, 2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 서울: 요단 출판사, 1990.

이민재. "그리스도인의 마음 지키기".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3년 8월호, 100- 101.

이성호. *성구 대사전*. 서울: 혜문사, 1983.

이성훈. *내적치유*. 서울: 두란노, 1992.

_____.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서울: 두란노, 1994.

이연길. *소그룹 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총회 출판국, 1990.

_____. "말씀과 치유". *교회발전을 위한 치유개발*.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_____. "왜 이야기 설교인가". *미주목회*. 2005년 3월 창간호, 120-121.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 출판사, 1987.

정성구.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4.

_____. *실천신학 개론*.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4.

정인교.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정장복. *한국 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 · 설교 아카데미, 2001.

정정숙. *사모를 위한 상담*. 서울: 베다니, 1995.

정태기. *웨기목회 상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_____.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말씀*. 1994년 11월호, 163-164.

_____. *숨겨진 상처의 치유*. 서울: 규장, 2003.

_____. *아픔 · 상담 ·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3.

_____. "치유설교".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쿰란 출판사, 2003.

조두만. 히, *헬라어 성구 대사전*. 서울: 성지사, 1987.

주서택, 심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 출판사, 1997.

주승중. *영상 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아카데미, 2004.

지용수. "능력 있는 치유목회". *교회발전을 위한 치유개발*.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차배근. *커뮤니케이션 개론(상)*. 서울: 세영사, 1978.

최재락. *위기와 교육적 치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7.

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서울: 규장 문화사, 1995.

최효섭. "그대의 청중은 누구인가". *미주목회*. 2005년 3월 창간호, 125-129.

크리스티 김. *인생의 음어리를 풀라*. 서울: 규장 문화사, 2003.

I.V.P 성경사전. 서울: 한국 기독 학생 출판부, 1992.

2. 번역서적

Adams, Jay Edward. *성서적 상담법*. 이종태 역. 서울: 월간 목회사, 1977.

_____. *설교연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Baker's 신학사전. 신성종 역. 서울: 엠마오, 1993

Backus, William & Chapian, Marie. *편견을 깨트리는 내적 치유*. 김연출 역. 서울: 예찬사, 68.

Barclay, William. *예수의 치유 이적 해설*. 김득중, 김영봉 공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4.

Baumann, J. D. *현대 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94.

Brooks, Phillips. *설교론 특강*. 서문강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Brown, H. C. Jr., Clinard, H. Gordon, & Northcutt, Jesse J. *설교방법론*. 이정희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89.

Bryson, Harold T. & Taylor, James C.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작성법*. 정성영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4.

Capps, Donald. *목회상담과 설교*. 전요섭 역. 서울: 솔로몬, 2003.

Chartier, Myron R.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93.

Clinebell, Howard J. 현대목회상담.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95.

Collins, Gray R. *마음 탐구*. 허영자 역. 서울: 두란노, 1993.

_____.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련 공역. 서울: 두란노, 1995.

Cox, James W. *설교학(Preaching)*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1999.

Craft, Charles H.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윤호 역. 서울: 은성 출판사, 1995.

_____.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윤수인 역. 서울: 은성, 1995.

Dobson, James. *4 가지 감정의 치유*. 남미선 역. 서울: 서로 사랑, 1999.

Dobson, Theodore E.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Engel, James F.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정진환 역. 서울: 조이 선교회, 1997.

Ezell, Rick. *설교, 변화하는 청중을 사로 잡으라(Hitting a Moving Target)*. 민병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Flynn, Mike & Gregg, Dou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오정현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9.

Galloway, Dale E. *20/20 비전*.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4.

Gilbert, Larry. *팀 사역*. 채수범, 황석호 공역. 서울: 프리셉트, 1995.

Kelsey, Morton.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1.

Hunt, June. *성경적 상담의 열쇠*. 최복순 역. 서울: 프리셉트, 2001.

Jones, Martin Lloyd.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예수 문서 선교회, 1977.

Ketterman, Grace H.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Verbal Abuse)*.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Lawrence, Roy.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이주엽 역. 서울: 요단, 1999.

MacNutt, Francis. *치유의 능력*. 조원길 역. 서울: 전망사, 1979.

Macartney, Clarence Edward. *원고 없는 설교*. 박세환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8.

Margaret, L. A. *효과적인 성경공부*. 정재영 역. 서울: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1986.

Marshall, Tom. *자유케 된 자아*. 예수 전도단 역. 서울: 예수 전도단, 1994.

_____.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 서울: 예수 전도단, 2003.

Murren, Doug. *치유하는 교회*. 심영우 역. 서울: 홍성사, 2002.

Nash, Tom.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터*. 독고 앤 역. 서울: 디모데 성경 연구원, 1997.

Nouwen, Henri J.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Ogden, Greg. *새로운 교회 개척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1998.

Owen, John. *죄 죽이기(The Mortification)*. 서문강 역. 서울: SFC 출판사, 2004.

Piper, John.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 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6.

Prince, Derek. *거부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조철환 역. 서울: 에이멘, 2000.

Robinson, Haddon. *강해 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Seamends, David A. *치유하시는 은혜*. 서울: 두란노, 1990.

_____.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1995.

_____. 좌절된 꿈의 치유. 이갑만 역. 서울: 두란노, 1995.

Segler, Franklin M.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3.

Sherman, Robert., & Fredman, Norman. *부부 가족치료 기법*. 김영애 역. 서울: 하나 의학사, 1996.

Sorge, Bob.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최 혁 역. 서울: 두란노, 1997.

Speas, Ralph.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이현모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0.

Stanley, Charles. *상한 감정 클리닉*. 김창대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6.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설교(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Stranger, F. B. *위대한 의사 예수*. 배상길 역. 서울: 나단, 1992.

Tapscott, Betty. *내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평강*. 서울: 은혜 출판사, 1998.

Thurneysen, Eduard. *목회학 원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서울: 성서 교재 간행사, 1979.

_____. *목회학 실천론 (Seelsorge im Vollzug)*. 박근원 역. 서울: 서울 신학 연구소, 1982.

Tournier, Paul. *성서와 의학*. 마경일 역. 서울: 전망사, 1979.

_____. *인간 치유의 길*. 황창규 역. 서울: 보이스사, 1977.

Turbull, Ralph G. "적극적인 설교". *그말씀*. 두란노, 1998년 11월호, 70.

Turner, John. *치유하는 교회*. 김선도 역. 서울: 광림 출판사, 1996.

Urquhart, Colin. *치유함을 받으라*. 이광호 역.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Wagner, pet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Ward, Waylon O. *상담성경공부*. 최영경 역. 서울: 두란노, 1987.

Whitfield, Charles L.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Healing the Child Within)*. 김용교, 이인출 공역. 서울: 글샘, 2000.

Whittaker, Bill D. *설교 리모델링(Preparing to Preach)*. 김광석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2.

Wiersbe, Warren W. *역동적 설교*. 고영민, 김기원 공역. 서울: 엘맨, 2001.

_____. *상상력이 담긴 설교(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3.

Wiersbe, Warren W. & Wiersbe David. *워어스비가 권면하는 설교의 원리*. 김창모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Willad, Dallas. "기독교적 마음 탐구".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3년 8월호, 81.

Wright, Norman.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Making Peace with your Past)*. 송헌복, 백인숙 공역. 서울: 조이 선교회 출판부, 2004.

Yancy, Philip.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윤종석 역. 서울: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 2000.

3. 외국서적

Aden, LeRoy H. & Hughes, Robert G. *Preaching God's Compassion*. Minneapolis: Portress Press, 2002.

Anderson, Neil. *Victory Over the Dakness*. C.A.: Regal Books A Division Gospel Light, 2000.

Bainton, Ronald. *Here I Stand*.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Brooks, Phillip. *Lectures on Preaching*.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9.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Capps, Donald. *Pastoral Care: A Thematic Approach*. Philadelphia: Westerminster Press, 1976.

Chapell, Bryan. *Using Illustrations to Preaching with Power*. Grand Raphids: Zondervan, 1992.

Clebsch, William A. & Jaekle, Charles R. *Pastoral Care in Historcal Perspective*. Englewood: Prentice-Hill, 1964.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and Growth.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_____,Howard. *Well Being*. San Francisco: Harper, 1991.

Fosdick, Harry Emerson. *The Living of these Day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6.

_____. "What is the Matter with Preaching?". *Harper's Magazine*. July, 1928, 134.

_____. "Personal Counseling and Preaching". *Pastoral Psychology* 3, no 22. March 1952, 11-15.

Hendricks, Howard. *Teaching to Change Lives*. Portland: Multnomah, 1987.

Hesson, Ray. *Church and Person in English*. Hodder & Stoughton, 1964.

Hulme, William E. *Pastoral Care Come of Age*. Nashville: Abingdon, 1970.

Hybels, Bill. "Speaking to the Secularized Mind". *Mastering Contempory Preaching*. Portland: Multnomah/Christianity Today, 1989.

John, Wood. *The Preacher's Workshop: Preparation for Expository Preaching*. Chicago: Inter-Varsity, 1965.

Keller, Timothy. "A Model for Preaching : Part One". *Journal of Bible Counseling*. Spring, 1994, 36-42.

Kelsey, Morton T. *Encounter with God*. Minneapolis: Bathany Fellowship, 1972.

Knox, John. *The Integrit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57.

Linn, Edmund Holt. *Preaching As Counseling: The Unique Method of Harry*

Emerson Fosdick,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66.

Luccock, Halford E. *In the Minister's Worship*, New York: Abingdon Cokesbury Press, 1944.

Maddocks, Morris. *The Christian Healing Ministry*, London: SPCK, 1990.

Manhunt, Francis. *The Prayer That Heal*, Notre Dame, In: Ave Maria, 1981.

Miller, Calvin. *Marketplace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5.

Mills, Glen E. *Message Preparation Analysis and Structure*, Indianapolis: The Bobbs-Merril Company Inc., 1966.

Ramsey, G. Lee, Jr. *Care-Full Preaching: From Sermon to Caring Community*, St. Louis: Chalice Press, 2000.

Seamends, David. "Perfectionism: Fraught with Fruits of Self-Destruction". *In Christian Today*, April 10, 1981, 24-25.

Smedes, Lewis. *Shame and Grace*, San Francisco: Harper Collin, 1993.

Thronton, Edward E. *The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Troger, Thomas H. *Ten Strategies for Preaching in a Multimedia Cul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Turmbull, Ralph G.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WCC, ed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III, Geneva: WCC Press, 1982.

Whitesell, Fairs D. *Power in Expository Preaching*, Westwood, N. Y.: Fleming H. Revell Co., 1963.

Wiersbe, We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migr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Wheaton, Ⅲ.: Victor Books, 1994.

Wimberly, Edward P.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erminster, 1990

Wurmbrand, Richard. "Preaching for Eternity", *Ministry*, July 1994, 14-17.

Vita of
Sung Kwon Lee

Present Position:

The Senior Pastor of Korean Power Mission Baptist Church of Cincinnati.

Personal Data:

Birth date:	October 20, 1957
Marital Status:	Married to Kyung Sook Kang
Home Address:	8066 Hetz Dr.
	Cincinnati, OH 45242
Phone:	Home: (513) 469-0217
	Church: (513) 382-1421
Denomination:	Southern Baptist
Ordained:	March 27, 1994

Education:

B.A.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7
M. Div.	Korea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orea, 1992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5

Professional Experience:

2/16/1986 to 9/30/1990	Staff at the Religious Education Dept. of Korean Mission Center of American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1/1989 to 4/27/1994	Assistant Pastor at Kangnam Joongang Baptist Church in Seoul, Korea

4/28/1994 to 5/21/2000	Senior Pastor at Korean Baptist Church of Venezuela in Caracas, Venezuela
5/22/2000 to Present	Senior Pastor at Korean Power Mission Baptist Church of Cincinnati, Ohio